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우편몰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1월 20일 수요일(주간) 제396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두 노스님의 결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동안거 결제(結制)에도 6대 총림을 비롯한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일제히 '문없는 문'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석달 간의 안거에 들어갔다. 불조(佛祖)의 혜명을 잇기 위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 들어간 스님들은 주로 혈기왕성한 20~40대의 수좌들. 젊은 스님들도 감당하기 힘든 동안거에, 세납 80에 가까운 두 노스님이 까마득한 후학들과 함께 안거에 들어 귀감이 되고 있다. 칠불암 운상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웅 노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결제한 종안 노스님이 그분들이다.

화엄사 선덕 지웅(77) 스님은 19세에 금강산 마하연에서 출가, 여태까지 주지 소임 한번 맡지 않고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대흥사, 봉암사 등에서 수행에 전념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도 얻은 바가 없다며 몸성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전국의 도량을 돌며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하는 게 남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종안(78) 노스님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득도, 지리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칠불암 봉암사 등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5년 전, 태안사 부속 암자인 가은암을 짓고 토굴 정진을 해 온 스님은 "무심의 경지는 여여하나, 확철대오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정진해 온 봉암사로 다시 들어갔다.

평생 해제가 따로 없이 결제해 온 두 노스님처럼, 묵묵히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는 어른 스님들은 한 두 분이 아니다. 그리고 3년째 남국선원 무문관에서 폐관(閉關) 정진중인 성효 스님과 현진 스님, 불편한 몸으로 봉암사 선방에 들어간 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정 스님 등 노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은 중진 스님들의 용맹정진 역시, 불자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참 불사'임에 분명하다.

김재경(취재2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6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서울불교전문강원' 내년 개설

교육원 부설 전과목 한문원전으로…일반인도 수강 가능

6개월~1년 코스 … 빠르면 내년초 부터
수료 스님에겐 주지연수교육 면제 등 혜택

강원의 한문원전 교과과정을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뜻있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강원의 전 교과목을 한문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칭)서울불교전문강원'을 서울에 개설키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스님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불교전문강원은 〈치문〉에서 〈화엄경〉까지 강원의 전 교과목을 과목별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사는 무비스님을 비롯해 월운(봉선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스님과 원로시인 이원섭씨 등 당대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한다는 게 무비스님의 복안이다. 교육원은 강의실 확보를 위해 조만간 동국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의는 주 1회 90분짜리 두 강좌로 진행하며, 강의 기간은 과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코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스님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은 물론 본말사주지연수교육 면제, 3급 승가고시의 우대기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스님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강원은 교육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일반 교양대학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세우고 강사 섭외, 개강 홍보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불교전문강원 개설은 근래들어 원전 강의에 대한 스님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전 강의에 목말라 있는 불자 지식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을 통해 경전을 일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禪) 위주의 포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 경전을 중심으로 한 포교가 가세한다는 점에서 포교 다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서울에 불교전통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중앙종회의 의견에 따라 이런 계획을 하게 됐다"며 "서울불교전문강원은 강원의 교육시스템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19일부터 동안거 … 2천여 스님 90여 선방

11월19일부터 3개월간 전국 90여 선방에서 2천여 스님들이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간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동안거 결제를 맞아 수행납자들의 분발을 격려하는 법어를 14일 발표했다.

법전스님은 법어에서 "제방선원에 운집한 출격대장부인 결제대중들은 결단 있는 의지력과 비장한 용기를 가지고서 모든 방편들을 발로 차서 쳐부수어 버려야 할 것"이라며 "당장 그 자리에서 불조(佛祖)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서 밖으로는 일체경계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가 있음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어 2면, 전문은 buddhanews.com)

한명우 기자

"해인사 '신판가' 철거하겠다

노 문화재청장, 훼손경판 과학적 보수"

1972년 설치된 해인사 신 판가가 경판보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지 395호 1면 기사 참조)에 따라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키로 결정하고, 신판가의 경판들은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재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노태섭 문화재청장과 경남 문화재위원들은 9일 장경각을 찾아 관계자의 현장설명을 듣고, 경판 손상문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노 청장은 "앞면부 신판가의 경판 배치가 주원인으로 통풍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문화재청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해인사로 파견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앞서 문화재청은 8일 "훼손된 경판 및 판가의 보수를 위하여 해인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1997년부터 합동기술지도단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제기된 훼손경판에 대한 보존과학적인 보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판가의 교체 및 보수, 경판의 이물질 제거, 생물학적 피해예방을 위한 관전 훈증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해인사 대장경판의 과학적 보존사업시행과 병행,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1998년부터 시작된 전체 대장경판의 기록화 및 영구보존을 위한 D/B구축을 2005년까지 완료함으로써 경판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원우·박원구 기자

영강 7년명 금동광배·금동미륵 반가상

반세기만에 서울서 다시 '한 몸'

북한 고구려유물 250점
12월 6일부터 특별전

남한의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118호)과 북한의 국보 문화재 '영강(永康) 7년(551)명 금동광배'가 서울에서 반세기만에 상봉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특별전시장에서 '특별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전'을 연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강 7년명 금동광배' '연가 7년명 금동삼존불' '해뚫음 무늬 금동장식품' 등 북한의 국보급 유물 4점이 첫 선을 보인다. 또 실물크기로 재현한 벽화 고분 5기와 북한에서 제작한 실물모형의 광개토대왕릉비, 고구려 무덤벽화 모사도 61점, 평양일대에서 출토된 괴면막새기류 진품 유물 30여점을 포함해 북한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 25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6세기 후반 고구려에서 제작돼 금동미륵반가상의 것으로 추정돼 왔던 '금동광배'와 호암미술관의 '금동미륵반가상'이 다시 한 몸을 이뤄 사유하는 모습은 이번 전시회가 지닌 의의를 함축할 것으로 보인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1944년 평양시 평천리에서 발굴된 금동미륵반가상을 당시 평양에 살던 김동현씨(문화재위원)가 현장에서 구입해 월남할 때 가져왔기 때문에 광배와 이산가족이 된 것"이라며 "두 유물의 발견지가 같은 것은 사실이나 배모양의 주형광배를 반가사유상 광배로 사용한 예가 없어 제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번 전시로 확인이 가능해 졌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호암미술관 소장 '금동미륵반가상'(아래 오른쪽)에 북한의 '영강 7년명 금동광배'(아래 왼쪽)를 얹어 합성한 사진.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연말까지 사은행사 … 관음보살도 증정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지로용지를 들고 입일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시지 않게 되어 보다 편하게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나 기존 독자가 새 구독료 (월 5000원)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김의식 作,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 우체국(11월 시행)
③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사 설

문화재 관리에 국가적 관심을

최근 해인사 대장경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72년에 건립된 신판가가 햇빛에 노출되고 경판전의 통풍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서 경판 449장이 손상됐다는 보고다. 뒤늦게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나서 대책을 세운다고 부산이다.

대장경 판각사업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문화를 수입해 중국인의 의식을 제고하고, 제불보살의 가피로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판각된 촉판을 참고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 조판한 것이 고려대장경이다. 중국의 경판들이 전란과 혼란기에 유실되어 보존이 양호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고려대장경은 그동안 잘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문화사의 지평을 확장한 고려대장경이 작금에 와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이 나라의 문화의식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싸우는 것밖에 모르니 그렇다 치고,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단 대장경판 만의 일은 아니다. 민족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들의 본분일진대 대장경판의 관리가 저런 정도라면 다른 문화재의 관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화는 환경과 인간이 대립과 조화 속에서 얻게 된 타협점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문화의 양상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국문화는 그 표현방식이 여하튼 민족의 역사이자 민족정기의 발현이 아닐 수 없다.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

공약(空約)이 안되도록

대선을 불과 한달여 남겨둔 요즘 각 대통령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는 지난 10월 본지와의 지면 인터뷰에서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면, 11~14일 불교방송에서 열린 '후보 초청토론회'에서도 각종 정책을 제시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8일 조계종에, 불교계 정보화 지원 등 11가지 공약을 내 놓았으며, 이전과 달리 불교계도 27개항의 요청을 각 당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기독교인들이 많다. 불교계가 무엇보다도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던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종교편향이라든가 불교관련 기구에서조차 불교인사의 참여를 배제한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교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불교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도 일단은 엿보인다. 문화재 관련공약도 불교계 요구에 맞추려는 시도를 높이 사고 싶다. 문화재 관련 공약은 불교계에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불교가 민족문화의 대부분을 보존하고 지켜온 종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불교전통문화 정보화 지원,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문화재 보수비 증액 등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 발전시켜가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따라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5년후 결과는 어떠할지 천만 불교인들이 관심깊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계율전문연구원 '비니원' 개원

영산율원 고불식 대학원식 운영·율사양성 중추 역할

2~4년과정 마친 스님엔 율사자격



◇비니원 4명의 연구생 스님들이 입지계(立志偈)을 봉독하고 있다.

지계풍토 진작과 율사양성을 목적으로 한 계율전문연구원이 개원됐다.

대구 영산율원(원장 철우)은 지난 12일 파계사 진동루에서 계율연구원 '비니원' 고불식을 봉행했다. '비니(비나야)'는 범어로 '율(律)'을 뜻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을 비롯해 영산율원의 율주 종진스님과 율원장 철우스님,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계단위원 등각, 혜총, 무관 스님 등 교계 중진급 율사 스님과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은 "요즘 계율을 등한시 하는 승가의 경향에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비니원 스님들은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고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침체된 종단의 계율정신 보급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비니원은 강의 중심의 일반 율원과는 달리 연구생이 직접 선택한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대학원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종단의 계율전문연구기관서 계율연구와 율사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비니원은 또 연구생 스님들이 계율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매년 한차례 씩 학술발표회나 중국 · 대만 스님들과 '계율 세미나' 등을 여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인다.

비니원은 앞으로 2~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스님들에게는 전계(傳戒)와 함께 율사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비니원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합격한 4명의 연구생 스님들이 계율을 연구 중에 있다.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은 "앞으로 제대로 교육된 전문율사가 양성되면 부족한 율사의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지계를 바탕으로 한 종단의 수행가풍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내년예산 '일반' 164, '특별' 236억

각각 6.2, 152%증액…종회심의 거쳐 확정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164억원으로 편성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일반회계 164억4천만원, 특별회계 236억3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 6.2%, 특별회계는 152%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155회 중앙종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무원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 · 특별 직영 분담금을 동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에 194억원, 중앙승가대 이전불사 마무리 및 대학원 설립 지원에 34억8천만원, 종단 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에 5억1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종무기조에 근거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분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5천여만원이 줄어든 141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중앙 · 특별 직영 분담금이 동결되고 관람료 분담금이 2억5천만원 늘어난 반면, 미수분담금이 3억3천여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분담금 수입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5.8%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수입은 8천6백여만원이 늘어난 5억4천여만원, 재산수입은 1천여만원이 늘어난 7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 기획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예산은 올해보다 91% 증가한 1천3백여만원이다. 기획실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7억4천여만원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예산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며, 각 원의 세출예산은 총무원 70억원, 교육원 41억7천만원, 포교원 21억1천만원이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을 보면 사업비는 신규사업 또는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15.8%가 증가했고, 인건비는 인원 확충 및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5%의 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12% 늘어났다. 반면 보조금은 자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외부 단체 보조금 자연감소로 5.5% 감소됐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올해 93억여원에서 236억여원으로 152%나 증가한 것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연금 수입을 1백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6억원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화합바탕 교계 귀감되게 운영"

인터뷰 13대종회 전반기의장 지하스님



"두 번이나 종회의장을 맡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종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서로 화합해서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 열린 조계종 제13대 개원종회에서 2년 임기의 전반기 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사진)은, 종회가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2대 후반기 종회의장에 이어 연속 종회의장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스님은 종회의 화합을 강조했다. 13대 종회가 어느 종회보다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의장의 역할은 종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회가 종단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12대 종회에서 폐기됐던 직능직 의원 선출 방식 개정문제는 종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 문제는 다시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며 "종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종회의원들 각자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는 "하루 속히 개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총무원장 학산스님 선출

법상종, 임시중앙종회서



대한불교 법상종은 10월 31일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2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공석이던 총무원장에 학산스님(경기도 대성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학산 스님은 77년 서울 삼각산 구복암에서 경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포교원장을 역임, 취임법회는 22일 경기도 대성사에서 봉행된다. (02)415-1602 김철우 기자

교육부장에 정산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선스님



교육원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8일 신임 교육부장에 정산스님, 불학연구소장에 법선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정산스님(사진)은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경도량 고려대장경 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대강백 강의에 원전읽는 재미 쏠쏠…



통도사 화 엄 산 림 대법회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정골친신사리를 모신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아래 일정에 따라 2546(2002)년도 「화엄산림」을 봉행코져 합니다.

본사 화엄산림은 벌써 30여년간 계속하여 온 뿌리깊은 공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둔 경전의 根本이 되며 가장 광대하고 깊은 오묘한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방의 훌륭한 스님들 30여분을 초빙하여 귀중한 시간과 장엄한 法席(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많은 불자와 함께 화장장엄세계의 불보살님께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갖추시길 바라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하시면 한량없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불기 2546년 11월 일

입재 — 2002년 12월 4일(수)(음 11월 1일)/오전 10시
회향 — 2003년 1월 2일(목)(음 11월30일)/오전 10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통도사 설법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표 배부)
반 산 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 부산지역 (본사차량및한솔고속관광)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울산지역 (부성고속관광) 공설운동장(08:00) → 중구청 → 세원예식장 → 태화호텔 → 시청긍업탐로타리(08:40) → 무거로타 → 고속도로 → 통도사
· 대중교통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천일일반고속,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통도사종무소 (055)382-7182
기와 접수처 (055)381-1288
회 계 실 (055)382-7187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현문 합장

2002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2/4	수	부방장스님	현담(입재법문)
2	5	목	지안스님	세주묘엄품
3	6	금	무비스님	여래현상품
4	7	토	도영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8	일	각성스님	화장세계품
6	9	월	덕민스님	비로자나품
7	10	화	자광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11	수	종광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
9	12	목	도형스님	정행품/현수품
10	13	금	인환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산정게찬품/십주품
11	14	토	인환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15	일	혜남스님	승아마천궁품/아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16	월	법산스님	십무진장품
14	17	화	법장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18	수	기후스님	십회향품
16	19	목	원산스님	십회향품
17	20	금	월운스님	십지품
18	21	토	월운스님	십정품
19	22	일	통광스님	십통품/십인품
20	23	월	정우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24	화	재문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25	수	상우스님	여래십신상혜품/여래수호공덕품
23	26	목	무관스님	보현행원품
24	27	금	성우스님	여래출현품
25	28	토	종범스님	아세간품
26	29	일	종범스님	입법계품
27	30	월	법조스님	입법계품
28	31	화	월파스님	입법계품
29	1/1	수	항과스님	입법계품
30	2	목	전계사스님	회향법문

"총무원장·동국대 이사직 둘 중 하나 포기하겠다"

정대스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3주년을 맞아 12일 총무원 인근 한 음식점에서 불교계 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사진)은 관심을 끌만한 두 가지 발언을 했다. 하나는 자신의 거취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면문제다.

먼저 거취문제와 관련해 정대스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무원장 직이나 동국대 이사직 둘 중 하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3대 중앙종회 개원사에서 밝혔던 결직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대스님은 개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진퇴문제를 고려할 뜻을 가지고 있다. 겸직 문제는 종회가 끝나면 선을 긋겠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의사표명은 정대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스님은 어느 쪽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정대스님이 '자리'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헌종법상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될 만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곧 총무원장직과 동국대 이사장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종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간의 치열한 다툼양상 등 향후 종단 정치 변화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대스님이 이날 "두 자리 모두 욕심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자칫 종단 내 불협화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다, 사면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은 "내년만 종단이 별 탈 없이 넘어가면 종단이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고, 불교가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종단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도 정대스님은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개원해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한 언급 외에 총무원장 재임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 정대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종단 안정 도모, 서울노인복지센터 수탁 등 그 동안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누가 다음 총무원장을 맡더라도 무리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놓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9일 개원식을 가진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 개원 첫날부터 계파간 이해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스님

조계종 155회 정기종회, 7개분과 상임위원장도 선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9일 개원하고 지하스님을 종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곧바로 열린 제15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12대 후반기 종회의장이었던 지하스님은 12대 전반기 종회의장이었던 법등스님과 표 대결을 벌여 전체 81표 중 41표를 획득, 1표 차이로 13대 전반기 종회의장에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법조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보선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또 △총무분과위 종광스님 △교육 영배스님 △포교 지현스님 △사회 도공스님 △재정 인행스님 △호법 법인스님 △법제 탄우스님 등 종회 내 7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이어 15일 속개된 종회에서는 월서스님을 호계원장에 재선출 하고 호법부장 진옥스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종회에서는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건 △각 종정기관 위원 선출의 건(법규위원회 위원, 재심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 보고의 건 등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종회 개원 첫날부터 계파간 이해다툼

조계종 중앙종회 내의 계파대립이 개원 첫날부터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 9일 열린 종회에서 각 계파는 종회 부의장과 7개 분과 의원 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대 계파 이름을 거론하며 "독식하려 해서는 안된다" "각 계파마다 의원수가 다른데 중요 분과의 분과위원을 똑같은 배분은 곤란하다"며 자파의 입장을 주장했다.

현재 종회에는 무등회에서 이름을 바꾼 보림회, 청림회, 원융회, 일여회에 최근 결성된 무소속연대 등 5개 계파에 초당파를 포함해 사실상 6개 계파가 존재하고 있다. 12대 종회 때의 4개 계파에서 2개 파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무소속 연대와 초당파를 제외한 기존의 4개 계파는 12대 종회 또는 그 이전부터 자파의 이익을 위해 대립 또는 연대하며 종회를 권력다툼의 장으로 변질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3대 종회에서는 이들 계파간의 이해다툼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회직상에서조차 계파 이름을 언급하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파식 구조체계'가 공식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계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자 10명의 종회의원으로 구성된 '무소속 연대'는 14일 종회가 계파 이해에 따른 나눠먹기식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13대 종회 초선의원들도 10일 모임을 갖고 종회가 계파주의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장학재단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설립

정대 총무원장, 13일 장학금 9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13일 오후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제1회 은정장학금,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연구비 1천만원, 대학생 11명에게 각 3백만원, 고등학생 9명에게 각 200만원, 초중생 5명에게 각 1백만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단체 8곳에 각 3백만원씩 모두 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래 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인연이 닿아 일이 이뤄지게 됐다"며 "장학금은 종교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5백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정대스님이 작고한 모친 최은수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4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을 지난 3월 매입해,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앞으로 매년 1회씩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간절한 의심으로 용맹정진 부처 뽑는 시험에 합격하라

법전종정 임오년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시방동공위(十方同共聚)하여 개개학무위(箇箇學無爲)로다.

차시선불장(此是選佛場)이니 심공급제귀(心空及第歸)로다.

사방으로부터 함께 모여들어 모두 무위의 법을 배운다.

여기가 바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니 다음을 비워야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가리라.

(중략)

오늘 우리는 선불장에서 겨울 석 달 안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선원에 운집한 출격대장부인 결제대중들은 결단 있는 의지력과 비장한 용기를 가지고서 모든 방편들을 발로 차서 쳐부수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본조(佛祖)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서 밖으로는 일체경계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가 있음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모든 성인이 있음을 보지 않고 아래로는 범부가 있음을 보지 않으며 맑고 맑아져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이 마음이 공空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경지에 이르면 방棒이나 할喝도 필요 없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시비도 없습니다. 당장에 이글거리는 화로 위에 떨어진 한 송이의 눈과 같을 것이니 이 어찌 선불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로 선발되려면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설령 천년을 선불장에서 지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옥당(玉堂)에 올라간 선비는 과거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급제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이는 반드시 과거시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중들이 오늘 선불장에 모였으니 제각기 화두를 참구하여 부처 뽑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면 이 삼동 한 철동안 이륙시중(二六時中) 내내 선불장에서 간절한 의심으로 용맹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후략)

억!

법어전문 www.buddhanews.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시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시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기준이 불교발전과 가치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대선 불교공약**

1.불자님은 현재 대선 주자들의 대불교제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①잘 알고 있다 ②대강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2.모른다면 그 이유는?

①홍보하는 곳이 없어서 ②관심이 없어서 ③기타

설문 참여: 11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7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봉

탄·허·불·교·문·화·재·단
普光明寺 旧 자광사 주지 취임식 및 불사 회향 법회

축

귀의 삼보하옵고

본 사찰에서는 천불전과 적광전 및 대웅전 불사회향 법회 및 청아스님 주지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2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00
◆ 장 소 : 본 사찰 대웅전
◆ 문 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전화 : 042)822-9219(代)
팩스 : 042)822-8304

행 사 안 내

◆ **제 1부** (08:00) : 점안식

◆ **제 2부** (11:00) : 취임식 및 불사회향 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사찰연혁소개
- 불사경과 보고
- 내빈소개
- 취임사
- 환영사 및 축사
- 청법가
- 법 어
- 음성공양
- 사홍서원

◆ **제 3부** (12:30) : 점심공양 및 대중화합토론회
- 주제 1 : 불교대학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장소 : 적광전(3층)
  - 주관 : 불교대학 졸업생 총 동문회
- 주제 2 : 탄허스님 조사전 및 성보관 어떻게 불사할 것인가?
  - 장소 : 다경실(종각)
  - 주관 : 한암 · 탄허 문도회
- 주제 3 : 탄허스님 유훈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
  - 장소 : 대웅전(2층)
  - 주관 : 본 사찰 신도회

한암 · 탄허 문도회 회주 인허/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탄허 장학회 회장 혜거 / 普光明寺 旧 자광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불교계 처음 연꽃아이들 자폐아학교

울산에 80평 규모…내달말 문 열어

인지학습실 · 소리체험실 · 명상실 등 갖춰

1만명 당 2~3명꼴이던 '자폐아'가 최근 1천명 당 1명의 확률로 나타나면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최초의 자폐 관련 장애아를 위한 전문 교육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세워지는 '연꽃아이들'(원장 영인스님)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폐관련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지 105평, 건평 80평 규모에 인지학습실, 국악을 이용한 소리체험실, 명상실, 컴퓨터 및 동영상을 활용한 언어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12월 말경 문을 열 예정이다.



◇영인스님은 건축비를 아끼기위해 하루 10시간씩 손수 노동을 하고있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영인스님과 미국 유타주립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김정일(47)씨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이 학교의 모태는 자폐아 조기교육센터인 '연꽃 아이들'.

98년 허물어져가는 집을 직접 개조해 법당과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문을 연 '연꽃 아이들'은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가족의 자폐아들을 위주로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연꽃 아이들'은 외국인교사와 정상발달 또래 아이들이 함께 하는 리듬댄스치료교실, 부모의 기도와 명상을 강조하는 상담 등으로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을 의뢰해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일대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폐아 교육의 특성상 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때문에 후원금에만 의존해 온 '연꽃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 제한되었다. 보다 많은 자폐아들에게 조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복지시설인가가 시급해졌고, 법화정사 도림스님과 불자들의 후원금으로 학교 건립을 서두르면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가정집을 구입하고 개조하는 학교 공사는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영인스님이 직접 9월부터 꼬박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마다 않고 있을 정도지만 건축비나 교육 기자재 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뜻있는 불자들의 후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영인스님은 "학교가 완공되면 기존 건물을 활용, 자폐 성인들을 위한 공동체와 직업 교육을 실시,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052)268-6702

울산=천미희 기자

10명중 3명 무·타종교인 대학이상 고학력자 63%

사찰수련회 참가자 1만명 설문조사

올해 전국 사찰에서 실시된 여름 수련회 참석자 10명중 3명이 무종교인이거나 타종교인이고,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참가자도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찰수련회 참석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2,701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사찰수련회 참가자들은 종교를 묻는 질문에 593명(22.8%)이 무종교, 208명(8.0%)이 다른 종교라고 답했다. 이는 사찰 수련회가 포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찰수련회에 처음 참가했다고 답한 참석자가 1,936명으로 73%에 달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참가동기를 묻는 질문에 938명(37.8%)이 '수행을 배우고 싶어서', 723명(29.2%)이 '불교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응답해 불교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참가자가 많은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응답자 2,624명중 63.4%인 1,663명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답해 고졸 631명, 중졸 267명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 이는 불교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지식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대각전 309불 봉안

불교병원 기탁자 만불불사

동국대는 13일 90주년기념문화관 대각전에서 만불봉안불사 제6차 봉불식(사진)을 개최했다.

봉불식은 동대 대외협력처장 보광스님의 발전기금 경과보고,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식사,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법어,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각전에 봉안된 309불은 올해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기금으로 1백만원 이상을 기부한 상우스님, 현선스님, 송주사 · 용수사 신도회, 강덕인씨 등 스님과 불자, 사찰, 신도회 명의이다.

대각전은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법당으로 97년 11월 1,912불 봉안이후 이번 6차까지 3,471불이 모셔졌다. 김원우 기자

불교TV 신임이사 추천

상무에는 홍무흠씨

불교TV는 10월 30일 마포 홀리데이인서울 지하 왕후에서 제40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암스님(부산 해동용궁사 주지), 조연스님(경주 법연원 회주) 등을 신임이사로 추천했다.

또 지난 9월 10일 봉은사에서 시작된 삼천불 조성을 위한 대법회는 25일 해인사에서 회향하게 된다.

한편 불교TV는 5일 홍무흠씨를 상무로 선임했다.

강지연 기자

"도립공원 지정 승인권한 지방자치단체이양 반대"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은 13일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만큼 도립공원 지정 승인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차체 이양은 10월 2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남동우 기자

"오계가 미래사회 대안" 철우스님, 포럼서 주장

8일 한국일보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간불교 창간 20주년기념 '불교, 과연 인류미래의 대안인가' 포럼에서 철우스님(조계종 영산율원장)은 오계를 자비행, 보시행, 청정행, 진실된 언행, 지혜행 등 다섯 가지로 재해석한 후 "불자들이 기본적인 수행관과 교육관인 오계를 지켜야 불교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철우 스님(계율),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경전),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이념), 김광식 연구부장(대각사상연구원, 불교사) 등이 발제자로 나와 부문별로 불교가 인류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수해지역에 쌀·김치 전달

동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회장 송묵)는 18일 수해지역인 강원도 삼척시 주민들에게 자비의 쌀 및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자비의 쌀 100포대, 김장김치 1,000포기다. 회장 송묵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여 어둡고 외로운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하권익 불교병원장 내정자 보훈병원장으로 자리옮겨

동국대 불교병원장 내정자였던 하권익 의대교수가 11일 자진사퇴하고, 보훈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 교수는 5월 31일 불교병원장으로 내정돼 지난 9월 1일 동국대 의대 교수로 채용됐었다. 10월 1일 열린 187차 동국학원 이사회에서는 하권익 교수의 불교병원장 인선에 대해 △정관에 어긋난 정년보장 △급여형태의 문제 △종교문제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시각을 표명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국보·보물중 64%가 불교문화재

불교관련 유형문화재 조계종이 51% 보유

우리나라 국보, 보물의 64%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목록〉(이하 지정 목록)에서 밝혀졌다.

〈지정 목록〉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현재 지정 문화재 8,003점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632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외한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시 · 도유형문화재)만 보면 전체 3,613점 가운데 55%(1,993점)가 불교문화재다. 또한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6%(303점 중 170점), 보물의 66%(1,315점 중 871점)를 차지한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소유별 현황을 보면, 조계종이 1,033점으로 51%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형문화재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태고 · 천태종 등 다른 종단이 소유한 63점을 합하면 1,096점으로,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54%만이 불교계 소유다.

권형진 기자



◇개신교재단인 고신대측이 동원한 굴삭기에 의해 미륵암 요사채와 화장실이 강제 철거됐다.

미륵암 요사채등 강제 철거

고신대 집달관 동원, 항의하던 불자 부상

혜정스님, "도량파손 못보겠다" 분신시도

11일 부산시 영도구 고신대 내에 위치한 미륵암(주지 혜정)의 요사차가 굴삭기에 의해 완전히 철거됐다.

개신교재단인 고려학원과 고신대가 법원 절차에 따라 440여명의 집달관을 동원, 미륵암 강제 철거를 강행하면서 요사채와 화장실이 철거됐다. 비구니 금련회 스님들과 신도 등 150여명은 사찰 입구를 막고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집달관들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노보살 3명과 신도 문정순씨가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물리적 충돌끝에 요사채 집기들이 바깥으로 옮겨지고 굴삭기에 의해 철거가 강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주지 혜정스님은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미륵암 사태는 80년 고신대가 미륵암을 포함한 주변 7만 4천평을 매입해 이전한 후 캠퍼스 확장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륵암은 74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토지매매 계약서만 있을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미륵암은 9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부산=천미희기자

24시간 1000일 정진 정토회, 24일 회향식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진해온 정토회 1000일 정진이 24일 회향된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회향식은 1부 대회마당, 2부 회향정진, 3부 회향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출발, 대중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1부 행사는 이윤구 인제대 총장이 '한반도와 남북한 민중의 미래', 법륜스님이 '통일운동 10년의 회고와 새로운 모색'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2부 법고, 합창공연, 관음정근 등 행사에 이어 3부에서는 1000일간의 정진과 활동에 대한 영상물 상영, 아름다운 통일민들레 포상, 향후 계획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남동우 기자

대한불교 삼론종
봉 대승보살수계대법회 행

삼화상 : 전계아사리 전석봉 대화상 / 갈마아사리 이혜공 대화상 / 교수아사리 사혜광 대화상
칠증사 : 윤지운 대화상 정추봉 대화상 / 류정봉 대화상 이인봉 대화상 / 최청호 대화상 이청봉 대화상 / 김진봉 대화상

대 회 임 원

대 회 장 : 김혜승 총무원장 부대회장 : 이지해

봉행 위원장 : 김진봉 부위원장 : 이성월 / 추진 위원장 : 이도우 부위원장 : 이성각
운영 위원장 : 김지겸 부위원장 : 정법작 / 준비 위원장 : 조지경 부위원장 : 황도희
호법 위원장 : 김청담 부위원장 : 한법륜 / 동원 위원장 : 이허부 부위원장 : 조성휘
법요 위원장 : 윤지운 부위원장 : 노혜원 / 홍보 위원장 : 손혜각 부위원장 : 윤일선
지도 위원장 : 유지도 부위원장 : 김성하 / 예경 위원장 : 주도경 부위원장 : 송명산

◆일 시 : 불기 2546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주 최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후 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02)433-9780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MHz
BBS 부산불교방송

여건 척박해도 강원 군불자들 불심만은 돈독



◇27사단 군종병들이 호국대성사 설법전에서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불기를 손질하고 있다.



◇강원도는 20여명의 군법사가 1백여 군법당을 도맡아야 한다. 이기자부대 이태곤 법사도 5개법당을 담당하고 있다. 이태곤 법사와 장병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마주보고 있는 교회에는 밴드와 피아노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승리부대 종교센터내 법당은 피아노조차 없어 장병들의 찬불가 소리가 제각각이다.

법당냉기 체온으로 녹이며 마음의 휴식
도내 1백여곳에 군법사는 20여명 불과
재정 큰 어려움…공양물 준비도 버거워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연대 법당. 10일 오전 8시 50분, 강원도 산악에 자리잡은 군부대에 여느 지역보다 일찍 찾아든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병들이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바람을 피해 병사들은 총살같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변변한 난방장치가 없는 법당안은 역시 냉기가 가득해 바깥 날씨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 추위가 당연하다는 듯 불자장병들은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면 동료들의 온기로 후끈해질 것이란다.

군종병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 구석에 놓인 피아노는 자리만 차지할 뿐 활용되지 못했으며, 병사들이 부르는 찬불가는 자꾸 음이 틀렸다. 1백여 장병들의 찬불가 부르는 소리마저 작았다면 이날 법회는 맥없이 진행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장병들은 추위를 이기느라 군가만큼이나 씩씩하게 찬불가를 봄뒀다.

오늘의 법회는 부모님에게 편지쓰는 날. 비좁은 법당에 다닥다닥 붙어 있은 장병들은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썼다. 호호 손을 불어가며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적은 편지가 군종병에게 모아졌다. 장병들은 법문을 해 줄 법사도, 나눠먹을 간식도 없지만 힘들고 지친 일주일의 피로를 이곳 법당에서 풀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부대 군종병은 "교회에 가면 외부에서 지원 온 신자들과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음료수와 피자를 먹을 수 있지만, 법당에서는 곰도 쭈지 못할 형편"이라며 "간부불자들이 내는 회비로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소연했다.

철원 ○○연대처럼 강원도 군불자들은 외부 민간지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신행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법사 없이 법회를 열어야 하거나 열악한 여건 때문에 불자장병들도 타종교에 빼앗기고 있는 강원도 현장의 목소리는 불교계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담겨있다.

전국 군법당은 400여 곳.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백여 법당이 강원도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 지역에는 2백여 곳이 있다. 1개 사단에는 부대인원과 배치가 얼마나 넓게 돼 있는가에 따라 적게는 1곳, 많게는 16개 군법당이 있는 곳도 있다.

강원도에 배치된 군법사는 20여명으로, 전체 군법사 120여명의 6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마저도 공 해군 법사 3명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다. 강원도지역 육군 법사는 6곳의 군법당과 법회를 관할해야 하지만, 종교행사가 이뤄지는 일요일 하루 동안 법회에 갈 수 있는 곳은 3~4곳. 2~3곳은 법회를 열지 못하거나 군종병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군법사의 임무가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교육, 선도, 대민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3~4곳의 군법당을 담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게다가 군종병은 연대급 이하부대는 다른 보직을 갖고 있는 장병이 군종 업무까지 떠맡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지역 군법당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재정적인 것. 장병들에게 법회 때마다 나눠주는 음료수와 간식,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 등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부대가 많다. 간부불자들의 회비와 민간인 불자의 보시금, 부처님 오신날 특별성금 등으로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임관 2년차인 을지부대 구윤호 법사는 지난해 승리부대 예하 연대법사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법당운영비를 마련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병사들의 간식비로 충당했다. 을지부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문중의 사형스님이나 도반스님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천도재 올려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도 있다"고 어느 강원도 군법사는 귀띔한다.

50여명의 군법사가 200여 법당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강원도지역과 외견상으로는 군법사 분포가 비슷하다. 그러나 10여 군불교지원단체와 조계종 서울 경기포교사단 군포교팀 110여명이 군법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50여 법당의 재정과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인근 사찰에서도 일부 법당에 재정 또는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해 강원도지역 군법당의 민간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경기포교사단 군팀과 포교사단 강원팀, 동산불교대 동문모임인 정불회에서 5개 법당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군포교지원단체 중에서는 삼우회가 년 3~4회 위문과 불사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 군불교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울 등 대도시와 거리가 너무 멀 뿐 아니라 강원도지역의 사찰수가 워낙 작은 데다가 조직적으로 군포교에 나서는 포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가 20여명에 불과할 만큼 불교세가 미약한 점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요인이다.

경기도지역에서 활동하다 지난 10월 강원도로 자리를 옮긴 이기자부대 이태곤 군법사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미 듣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지금처럼 간부불자들에게 군포교비용을 떠넘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승리부대 종교센터내 법당은 ○○포병대대와 신병교육대대 장병들의 종교활동 공간으로,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열고 있다. 1평짜리 현관을 사이에 두고 교회와 마주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당에 다니는 불자장병들은 매주 민간교회에서 군교회에 위문을 오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밴드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 교회와 피아노 한 대 없는 법당. 반주에 맞춰 찬불가를 불러 보는게 이 곳 군불자들의 소원이다. 이곳에서 만난 불자장병은 "핸만큼 비교가 되어야 비교를 하지,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푸념했다.

승리부대 유영문 법사는 "1명의 군법사가 10곳이 넘는 법당을 관리하는 부대의 불자장병들은 법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토로했다. 또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불자들은 최소한의 신행여건이라도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jmmsoo@buddhapia.com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승리부대 병사들은 법당이 없어 병기수리반 야전 불상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초코파이를 받고있는 장병들. 군불자들에게는 초코파이 한개가 큰 즐거움이다.

강원도 주요 군법당 연락처

1군사령부 법동사	(033)742-2701	15사단 찬불사	(033)441-6843
2군단 상용사	(033)242-6166	21사단 도솔사	(033)481-4904
3군단 봉입사	(033)461-5108	22사단 문학사	(033)631-9690
8군단 충용사	(033)671-2195	23사단 용해사	(033)823-6153
2사단 의선사	(033)481-3694	27사단 대성사	(033)441-4218
3사단 삼봉사	(033)458-3414	36사단 백호정사	(033)743-6264
6사단 청원사	(033)455-3103	102여단 동해사	(033)671-2195
7사단 백암사	(033)442-3287	8전투비행단 미타사	(033)747-4455
11사단 화랑사	(033)433-7723	18전투비행단 찬송사	(033)645-9009
12사단 을지사	(033)462-1417	1합대사령부 해봉사	(033)533-9655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일주문



'금강삼매경론' 출판법회

법흥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은 14일 금수사에서 개금불사 회향 및 〈금강삼매경론〉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보살사 명부전 낙성식

종산 청주 보살사 주지는 3일 보살사에서 명부전 낙성식 및 지장보살상 점안식과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초·중·고 합동수계법회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은 21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동국학원산하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신곡맞이 순회법회 봉행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신곡맞이 전국순회법회를 24일까지 용승사, 홍법사, 만덕사 등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봉행한다.



평화통일 기원 영산대법회

세민 경남불교협의회장은 21일 오후 2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민족화합 · 평화통일' 기원 영산대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진산식 열어

자광 김천 직지사 주지는 26일 오전 10시 직지사 대웅전에서 지역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청담대종사 기념행사 회향

혜자 도선사 주지는 15일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30주기 열반대재 및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49일 정진 기도입재식

성열 강남포교원장은 11일 포교원 대웅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49일 정진 기도입재식을 봉행했다.



세계평화 기원법회서 법문

정각 부산 미륭사 주지는 28일 부산 UN묘지에서 봉행되는 국제영가천도 및 세계 평화 기원대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33회 보살계 수계법회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6일 대법당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증명법사로 제33회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약사여래종 총무원사 이전

범환 대한불교 약사여래종 총무원장은 20일 총무원사를 대전시 서구 산직동으로 이전한다. 011-9093-6686



'불교간병인회' 창단식

우학 영남불교대학장은 8일 관음사 4층 법당에서 제1기 불교간병인교육 수료식과 불교간병인회 창단식을 가졌다.



'우리절' 관음전 낙성식

동봉 곤지암 우리절 주지는 24일 오전 10시 관음전에서 '관음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31-763-4674



'전통해우소…' 주제 특강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전통해우소의 생명성과 친환경성' 주제로 특강을 한다.



국제포교사회장에 취임

조우영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3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강당에서 제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천년 궁궐…' 출판기념회

신응수 한국문화기능인협회장은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천년 궁궐을 짓는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이재우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은 12월 2일 오후 7시 한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제6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일주일 네차례 신장투석 도천스님

고통속에서도 신장병 아동 돕기 계속



◇도천스님이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월, 수, 금, 토. 일주일에 네 번, 스님은 학교에 간다. '학교'는 스님이 투석을 위해 찾는 병원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게 쓰는 용어다. 일주일에 2번이던 투석이 3개월 전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네 번으로 늘어났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몸이 힘들어졌다. 죽을 고비만도 벌써 네 번째.

"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몸의 고통을 공부 삼으며 부처님의 은덕 많이 입었으니 세상의 고통 받는 이들에게 돌려주고 가야죠." 병이 악화되기 전만 해도 스님은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다. 신장병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국도보순례를 위한 훈련이었다.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신장병 예방과 신장 장애 아동 돕기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막혀오는 지금도 스님은 "도보가 힘들면 사이클로 하면 된다"며 신장 장애 아동을 위한 생명을 건 마지막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신장병을 앓은 지 벌써 17년째. 몸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을 배웠던 스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하는 원망심을 버리고부터 부산의료원 행려 병자 간호,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후원 등 힘 닿는 대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회향해왔다.

'물 한번 마음 놓고 마셔보는 것'이 소원인 신장병 환자의 고통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스님의 대중 생활은 더욱 힘들다. 한때는 사찰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봐주며 지냈지만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식생활, 잦은 병원 출입 등으로 스님은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을 개조해 법당을 마련하고 지내왔다. 어느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 퇴원해 오니 그마저 내달이면 비워주어야 한다.

스님은 주위 인연들에게 폐를 끼칠까 마음이 편치 않다. 병원에서 한달 정도 더 있어야 한다는 것도 뿌리치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퇴원해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사이클 순례가 힘들지 않겠느냐 물음에 "중간 중간 내리막길이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던 스님. 스님은 지금 힘든 고개를 오르고 있지만 가쁜 숨 고를 수 있는 내리막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학교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

후원계좌:국민은행 115-21-0476-604(박동범), 전화:011-571-407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조직정비후 전방부대 지원 주력"

8일 창립 군예비역 불자회 **이석복** 초대회장



"이전까지는 군 예비역들이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섰지만 창군 이래 처음으로 사무실 마련은 물론 조직적인 포교활동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 한없이 기쁩니다."

8일 창립한 군 예비역 불자회 이석복 초대회장(법명 환회, 사진)은 "불자회 창립을 신호탄으로 불교계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전 연합사 부참모장인 이 회장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자로 군 생활 중에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개종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단장 시절에는 뜻을 같이하는 간부 및 사병들과 2년 동안 새벽 108배를 하기도 했다.

경전 중 '三日修心千載寶(삼일수심천재보) 百年貪物一朝塵(백년탐물일조진)' 사흘 동안 닦는 마음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일세'라는 구절을 좋아한다는 이 회장의 불심은 현역 포교 지원으로 이어진다.

"현재 군 법당은 다수 있으나 군 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직 정비만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인연을 맺어 줄 생각입니다. 오랜 군대생활에서 나온 경험들이 현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큰 신행단체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회장은 "불교계 잘못된 관행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장 제8회 불교 인권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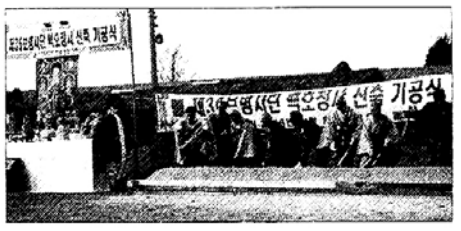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사진)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가 수여하는 제8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87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첫 조합원 직선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은 민주노총 내 유일한 여성 산별 연맹 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식은 인권위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20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개최된다. 02-734-6401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불사

진각종은 11일 서울 탑주심인당, 12일 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야계단에서 진기 56년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혜일 총인이 증명아사리, 도흔 종사가 전계아사리, 일정 종사가 갈마아사리, 지광 종사가 교수아사리로 열린 이번 관정불사에서는 서울지역 142명, 대구지역에서 292명 등 총 434명이 보살십선계를 받았다.



백호부대 법당 기공법회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8일 원주시 제36사단 백호부대에서 법당신축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원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양원모 사단장, 군불자 등 300여명이 모인 법회는 법당 신축 기부금 증정식, 시삽 등으로 이뤄졌다. 법회에서 원행 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은 "법당이 완공되면 장병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명불교양로원 증축 기공

사회복지법인 혜명불교양로원(원장 현성)이 13일 증축 기공식을 갖고 연건평 477평의 새 건물 불사를 시작했다. 기공식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주지 혜자 스님, 정두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른신을 보다 좋은 시설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팔재계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팔재계는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 공덕을 쌓은 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국태민안과 우리고장 부산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재계(八齋戒)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두 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아닌 때 먹지 말라**



제3회 국태민안과 부산발전 기원

고승대덕 증명

팔관회

※ 법회후 동참한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TV,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주 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867-0501

11월 22일 금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

동참안내

1. 팔관회 연등 접수(1인 1등 10,000원)
   저마다의 소구소망을 담은 연등으로 행사장을 장엄
2. 호법광명등 접수(1인 1등 100,000원)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회망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접수
3. 부산발전기원등(1인 1등 500,000원)
   각계 지도자 및 회망불자님들을 대상으로 접수
4. 수륙고혼 수계 및 천도재 접수(영가 1위 10,000원)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으기

일일 한 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비의 쌀은 11월 22일(금) 오후1시

"팔관회"가 열리는 "사직실내체육관"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식전행사 안내

전통국악한마당 : 박경랑(제5회 서울전통국악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外 국악인 다수

불자연예인공연 : 현철, 김병조, 이은하, 김혜연 등

시민 ·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최근 직장직능 단체들이 직업적인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모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불자약사보리회 류남녕 간사가 서울역 앞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와 상담하고 있다.

진료·효도관광·법률·세무 상담 등

직업특성 살려 모임 활성화

월~수요일 서울역 광장 · 종묘서 투약
매주 일요일 마다 봉은사서 무료 진료
"봉사도 하고 보람도 찾고 공부도 돼요"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연수생들로 구성된 불자모임이다. 96년 창립한 사법연수생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법조인회, 서초반야회 등 법조모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법률상담 등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매년 7~8월, 전국 주요사찰에서 불자들의 고민을 듣고 법률적인 해석과 취해야할 조치 등을 일러주는 등 회원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불자들과 함께 나눠온 결과다.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 서울 조계사에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장불자회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전개, 직장직능 단체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다. 다르마법우회를 비롯해 불자약사보리회, 선재마을의료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불자가수회, 한국세무사불자회 등이 주인공. 이들 단체들은 무료 진료, 투약, 효도관광, 법률 세무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회원간 유대감 형성 효과도 얻고 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불자약사보리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역앞 노숙자 쉼터에서 무료투약을 실시한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투약을 실시, 60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류남녕 간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회원 스스로에게는 큰 공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불자들로 구성된 선재마을의료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봉은사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진료도 한다. 이 곳 봉사단체가 대부분 가톨릭, 개신교계인 점을 감안하면, 불자약사보리회와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불자모임인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차량을 이용한 노인효도관광, 장애인 야외나들이, 사찰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불련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에 걸맞는 직능단체로 자리 잡았다.

한국세무사불자회는 홈페이지(www.buddhatax.com)를 통해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30여 회원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상담을 요청해 온 네티즌들의 세무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단체의 특성을 살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모임이 전체 직장직능 단체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직이나 직능직이 아니더라도 불자회가 관심을 갖는다면 유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우리은행 부산불자회 등 일부 은행단체들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지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의 관계자는 "공무원 불자회는 공무와 관련된 상담을, 금융단 불자회는 금융상담을, 병원 불자회는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은 활동은 회원의 자아성취감을 크게 해 가져와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국립의료원 법우회

국립의료원 법우회는 여느 직장불교회와는 다르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법당이 먼저 개설됨으로써 창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당은 89년 독실한 불자였던 주양자 원장의 배려로 마련되어, 불자직원들과 환우 불자들의 안식처이면서 기도도량의 역할을 해냈지요. 법당에 모신 부처님도 병원인 점을 감안,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법당이 개설된 이후 법우회 창립을 위한 불자직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직장내에 생겼다는 데 불자직원들이 크게 고무되었던 것 같아요. 1년여의 노력 끝에 안욱수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90년 6월 자비인술을 베푸는 의료인불자,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는 보살이 될 것을 다짐하며 법우회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회원들은 기도와 실천이 일치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위해 '의료인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월 2회의 정기법회와 월 1회의 의료봉사를 통해 직장내 신행활동은 물론 자비의 인술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 왔습니다. IMF 당시에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노숙자와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우회의 활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창립 당시 80여명에 달했던 회원수가 절반으로 줄은 데다가 주도적으로 법우회를 이끌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원 개개인의 신심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인원이 줄은 빈자리와 활동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지요.

불자로서 갖춰야할 상식과 예절,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한국방생선원 성덕스님의 지원을 받아 2년 과정의 국립의료원 불교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98년에도 2기 불교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세검정수행원 조인오 법사의 지도로 불교학당을 열어 금강경과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초기도, 우란분절, 출가절과 열반절 특별기도 등 회원들의 기도정진도 아울러 진행하며 신심을 닦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행활동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불제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지요. 하지만 회원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병원 법당의 부처님을 찾아 기도와 삼배를 올리며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임종승 총무(방사선과)



◇국립의료원 법우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열고 있다.

불자가수회, 전국 노래자랑대회

12월 6일, 입상자 연예협 가수분과 등록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는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동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전국불자노래자랑' 결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3월 진해 정암사를 시작으로 전주 송광사 등 20여 사찰 · 포교당에서 열린 지역예선 입상자들과 12월 2일 서울 · 경기지역 예선 입상자들이 참가한다.

이번 연말 결선에서 입상한 불자들에게는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에 등록, 불자가수회원으로 모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상자들의 노래를 모은 CD도 제작할 예정이다.

불자가수회는 이날 결선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13-2905

사단법인설립 기념법회

교불련 30일 동국대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30일 동국대 동국문화관에서 사단법인 설립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정기이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 기념법회,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결산보고,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임원진 선출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교불련은 10월 28일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교정인불자 연합법회 개최

서울·경기지부 23일 명랑사서, 13개지회 참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서울·경기지부(지부장 분기두)는 23일 오후 3시 서울 봉천동 명랑사에서 연합법회를 갖는다.

재소자포교와 지역포교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법회에는 영등포교도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등 13개 지회가 참가한다. 서울 · 경기지부는 교정인연합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월 1천원, 년 1만원' 보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지난 3일 공주 영평사에서 연합법회를 열었다. 대전교도소 등 5개 지회가 참여한 이날 법회는 교정인불자들의 친목을 위해 차담, 감사 산사음악회 참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불자교정인연합회는 지부내 지회간 연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지부간 연대활동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단체장 동정



법우회 활성화 토의

이정완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장은 21일 오후 7시 왕십리역 역무교양실에서 조직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벌인다.



불교 기본교육 회향

박재순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장은 22일 도청회의실에서 10월 18일부터 6주간 실시해온 불교기본교육을 회향한다.



보리암서 창립 1돌 법회

공창석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9~10일 남해 보리암에서 16개 시 · 군 불자회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영호남 화합 지리산 산행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10일 영남불교대학 산악회와 영호남 화합을 위한 지리산 합동산행을 했다.

적멸보궁 3곳 참배

부산광역시청 법우회

부산광역시청 법우회(회장 최익두)는 23~24일 오대산 상원사, 영월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등 3곳의 적멸보궁을 참배한다. 경남지역 수해로 인해 연기돼 3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순례에는 시청과 구 군청 등 산하기관 법우회원들이 동참한다. 숙박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특별정진법회를 열 예정이다.

최익두 회장은 "부산아시안게임 등으로 숨돌릴 여유없이 바쁘게 일해온 회원들이 모처럼 사찰을 참배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불심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중생아픔 치료하는 보살되자" 서원

불교학당 개강…금강경·유마경 공부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 려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인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방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종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1월 30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종명공고중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1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 업 연 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목어

인권 짓밟는 물고문



대검 감찰부는 8일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잠정 결론이라고 토를 달긴 했으나 고문행위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물고문 이라니.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각종 공안사건 조작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뼈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것이 최근 인권정부 아래서,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검찰 청사내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 사건 책임자의 입에서 '큰 실수' 운운하고 일각에는 "조폭 잡으려다 한 실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동정론이 이는 것 역시 후진국적 사고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검찰 청사 안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명명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고문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채택되지 않고, 유죄로 최종 확정 될 때까지는 누구도 행위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명제는 이 원칙이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번 파문은 몇몇 고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별반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각급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인권존중 의식을 일깨우는 스스로의 자성과 노력이 요청된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활동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르는 지를 여론은 주시하고 있다.

안이한 판단으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강렬(희곡작가협회 명예회장·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자녀의 종교



불자님의 자녀가 타 종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91명 가운데 43명(47%)은

타종교 믿는 자녀, 불자로 만들겠다 87%

설득하여 불자가 되게 한다, 36명(40%)은 일단 인정하고 차츰 대화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 12명(13%)은 인정해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불자님의 자녀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0명(99%)가 없다고 답변했다. 있다 라는 의견을 밝힌 불자는 1명(1%)에 불과했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포교사회학과

정보화 선도할 사이버 포교사 시급

불교 10여 년 전만 하여도 정보화사회는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서는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에 가슴 뭉클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의 성과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헌신한 기술인력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매체 활용에 대한 열망과 적응능력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을 여행해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사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정보사회가 이룩되면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항상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고도정보사회에도 명암은 항상 존재한다. 이미 우리사회에도 인터넷 게임의 중독, 저질 음란물의 과도한 유통과 범람, 자살사이트의 운영, 불건전한 만남의 도구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매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용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보매체 이용자의 자존적 의식의 결여와 무명(無明)의식에서 비롯된다. 일부 게임프로그램이나 도박 프로그램에 중독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중독에 취약한 인간심리를 악용하여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둘째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정보매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매우 정상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상품을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과 규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할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보주체들 사이에 필요한 게임의 규칙과 도덕율이 실종된 사이버 아노미 현상이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정보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밝은 지혜로 탐하고, 어리석고, 분노하는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정신적으로 선도할 지도자가 다양하게 육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무지와 무명으로 덮여져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중생을 제도할 인터넷포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포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보매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사회를 선도할 인력이다.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비의 눈으로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보의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는 지혜와 정보기술과 매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재가 배출되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서양불교 성장과 한국불교 미래

불교포럼은 13일 동산불교회관 2층 강당에서 '서양불교의 성장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수행결사 수행원 원장)의 발제로 진월 스님(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과 이동호 소장(발틱연구소)이 논평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산 스님
(참사람수행결사 수행원장)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불교인구가 약 200만에 이르며, 미국에서 동양의 수행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약 1천 5백만에 이른다. 서양에서 불교가 이토록 급성장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식층이 불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생활·수행불교라는 서양불교의 특징도 한 몫을 했다.

이처럼 서양불교가 급성장하는 반면 한국불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적인 문제점을 보면 출가자들의 체계적인 인

급성장 서양불교를 거울로

성교육과 바른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관 정립의 미비, 소의 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와 종론 및 종학 정립의 미비, 소의 경전에 입각한 참선수행의 이론과 실제의 미정비,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의단(疑團) 형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수행체계의 빈약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체계 정비와 다른 수행법에 대한 관계 정립, 간화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호흡관법이나 수식관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또 재가 전문 지성인들을 위한 수행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향상을 위한 불교 전문어학당의 설립도 필요하다.

진월 스님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미국에서 백인 엘리트들이 불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근래에 소가가까이(SGI) 회원들이 확산되고 있는 바, 그들의 대다수는 영세 서민인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백인 엘리트 불교라고 할 수 없는 '흑인 대중불교'의 저력도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3수행법이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전통 수행체계 확립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근기에 맞는 눈높이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눈높이 수행체계 확립해야

무엇보다 시급하다.

서양불교가 한국으로 역수입 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비록 동양에서 건너갔지만 서양불교는 체계적 문헌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서에 잘 맞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 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로 어느 스님이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이나 강원룡 목사 등이 거론된다. 이는 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승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동호 박사
(발틱연구소장)

사회속의 지도적인 위치의 소위 엘리트 계층이 불교보다 기독교에 많이 편향된 것도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는 해방 후 미국의 물량공세에 의한 것이지만 최근 각종 출판물 등으로 볼 때 대중불교로 많이 이행되고 있어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제3 수행법에 관한 문제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떠나서 수행자체가 부실해 여러 가지 수행법이 유입되었다고 본다. 즉 우리 자체의 묵묵한 수행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수행 전념시 불교중흥길 열려

이다. 승가에서는 한 번쯤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여성불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불교는 인권 문제와 직결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2004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불교도대회에서 불교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볼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서양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양사회는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행자가 수행에 전념할 때에만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편견과 차별

온갖 존재는 실체 없고 평등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초중고 교과서의 내용 중 장애인·여성·인종 및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 등, 총 13개항을 지목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지적한 교과서 내용 가운데, 고교1학년 사회과목(디딤돌)의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가정부'라는 특정 직업을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1학년 체육과목(교학사)의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라고 남성과 차별하여 서술한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특히 인성 개발과 가치관 정립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위의 수정권고를 모두 수용해 국정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인권의식은 돌이킬 수 없다.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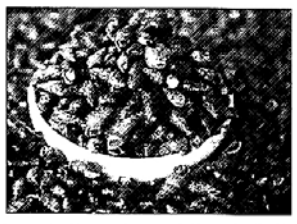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장수정보
美國 기적의 불로초
120세 장수 스피루리나
미국 NASA 우주국 건강센타 발견
▶스피루리나는 다른 식품과는 달리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주인이 달나라 갈때 스피루리나를 복용하는 이유도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 남태평양 바다속 1000m이상에서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20년의 연구와 임상으로 인간이 120살까지 병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NASA에서 장수 한다는 뜻으로 스피루리나라고 붙인 이 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중 가장 오래사는 것이다.
1982년 5월 미국에서 연령별로 10명씩 스피루리나를 복용시킨 결과 80세에 드신분들은 현재 101세며 4분만 돌아가시고 현재 6분은 건강히 활동하고 있다.
스피루리나에 대한 신비의 정체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2개월만 드시면 산성화된 세포를 약 알카리세포로 바뀌지는 것으로 임상되고 있으면 건강할때 드시는 것이 최고 좋다고 한다.
▶효능·효과 - 적게는 감기, 알레르기부터 크게는 암까지도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전립선 염 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잔뇨, 빈뇨,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국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①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②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③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④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⑤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⑥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⑦ 평소 잠을 자다가 (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미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연속 수행의 요람 경주 여래선원 (비구니 선원)분양 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는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처 여래선원을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 종합병원, 경부고속철도 신역사가 각 5분 거리인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건강을 위해 선도산 자연생수를 평생 무료제공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황리 분양중
● 총면적 : 약 17평형
● 입주 예정일 : 2003년 10월
● 분양 입주금 : 6,000만원
(아침, 점심 공양 평생 무료제공)
※ 공양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입주금 : 5,500만원
금선사는 이미 금선선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누구보다 비구니스님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경북 경주시 충효동 193-2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 치 : 전남 고흥	• 위 치 : 서울	• 위 치 : 경기가평
• 법 당 : 39평	• 법 당 : 45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70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1,000평	• 부 지 : 129평	• 부 지 : 2,000평
• 가 액 : 3억	• 가 액 : 5억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절을 맞기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실
비구니스님
연락바랍니다
▷ 조계종 스님
041)662-4696
017)260-6577

구 합 니 다
공부하는 비구니스님으로서
부산인근에 아담한 토굴
암자 임대 주실분을 찾습니다
019)588-6448

포교원 같이 운영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철학가능 하신 분)
054)973-4118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양산
● 대지 : 약 22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10평
● 가액 : 1억 3천 5백
※ 도로 교통 전망좋음
※ 공원묘지와 연관된 사업가능

<사찰 가능>
● 위치 양산
● 대지 약 300평
● 건물 4동 60평
● 가액 5억
※ 황토 목조 신축건물
※ 사찰로 용도변경 가능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건평 37평 2001년 신축
● 대지 400평 · 전 300평
● 임야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칠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1억 5천 분리 가능
011)434-7209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심한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소재 (지하철역100m)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억 5천(융자가능) 오래된 역사 도심 포교사찰임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법당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하남시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시설물(법당, 주방 일체 포함)
● 보증금 3천만원(월세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2)925-3747
017)246-6531

포교당(급)안내

● 위치: 강동구 길2동 아파트 주택 큰길, 교통편리함
● 평수: 40평 3층 삼존(탱화 고급 대형)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500만원
011)298-203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 목조 새건축 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수유1동
● 법당 : 4층 건물에 2층 (1층 ~ 3층 임대중)
● 스존불 후불 지장 신심 기도 정진 도량
● 대지 : 64평
● 방 3개 주방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8)325-8802 반야심
016)697-6663 정진화
02)907-1643
꼭 필요한분만 연락 바랍니다
출가(스님)를 원하는분 연락바람
미국에 가서 사실분(비구니, 사미니)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포교당) 안내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호계)
● 건 평 : 40평(2층, 방, 주방)
● 보증금 :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특 징 : 호계중심가(시장)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 치 : 부산광역시 소재(마하사 입구)
● 건 평 : 40평(2층, 방, 주방)
● 보증금 : 1000만원(월4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특 징 : 최고급 자재로 시설한 아주 좋은 포교당입니다.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부지 및 묘지안내

● 포란형의 명당
● 충북 도은읍에서 승용차 7분~10분거리
● 준농림지 1170평(농로있음) 마을 앞 큰길 300m 거리 저수지 있음
● 평당 25000원(절충가능)
032)519-1086

포교당안내

● 위치 : 화양리 4거리
● 크기: 23평 방1, 거실1, 법당, 욕실
● 시설일체, 몸만들어가도 됨
● 가액: 보증금800만원 권리금 1200만원
011)251-5287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3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6)557-0471
031)257-6622

사찰안내

● 위치 : 수락산 당고개 전철역 500m
● 평수 : 300평, 법당 30평
● 요사 : 20평, 나한절 30평(노천)
● 약수 2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3억 5천
011)9997-9932
02)952-7220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찰 (부지) 안 내

● 진주 사천시 사천운동장에서 차로 5분거리 굴법당 포함 약600평 경치좋음 일금 3억 2천만원
● 진주 사천시 2000평 중 종교부지 500평 허가됨 일금 평당 4만원
● 마산시 진동 도로변 절뒤편은 암석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경남 고성 부지 500평 대웅전 (단청 및 목조 완성) 도로변, 아파트 옆 일금 1억 9천만원
● 경주시 감포읍 75평 건물 2동 스님기도처 및 쉬는 곳으로 안성마춤 일금 4천 만원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통합병원 앞 산자락에 무허가촌 약 120평, 9평 법당 콘테이너 1개 일금 4500만원

※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인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양도 · 양수 전문 011-836-2502 / 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사찰안내

● 위치 충무일원, 버스종점 도보로 3분
● 임야 5000평, 대지 700평
● 기타부지 400평 주차장 무한정
● 법당 20평 철성각 10평 산신각 1동
● 요사체2동 50평
● 계곡청정 산세수려 70년된 사찰임 납골당 유효
● 가액 2억 3천만원
017-855-9551
055)637-1201

사찰(급)안내

● 의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 92
● 일월산 줄기속에 앞은 올창한 당지나무와 개울물이 항상 흐르고 전기와 주차시설 완성 현재 터 공사도 했습니다
● 평수 : 약 700평
● 가액 : 5100만원
016)507-3002

사찰(급)안내

● 위치 심원포 입마다가 멀리서 환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약 3000평 준농림지 중
● 법당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목조)
● 가액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임 대형차량 진입 됨 주차장 약 200평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좋음 주차장 완비
● 건물 3층 건물중 2층(60평)
● 큰방3, 법당30평 샤워실 주방
● 시설A급 완벽 현재운영중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9)338-00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소재 국도변 ● 부지 대지 150평
● 건물 법당 27평 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2층 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25평 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산신각 및 용왕당 천연지하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뒤편 자연림 고목으로 신비스러움
● 요사채 외 2층으로 필요시 스물 증축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의 기도도량으로 최적지임
● 매가 2억 7천만원 감정가 1억 4천만원에 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남 부근
● 대지 : 600평
● 요사채 : 110평
● 대웅전 : 25평
● 가액 : 14억
● 위치 : 충남온양
● 대지 : 650평
● 요사채 : 70평
● 대웅전 : 40평
● 가액 : 2억 4천
● 위치 : 경북 예천 군청 옆
● 대지 : 100평
● 요사채 : 15평
● 대웅전 : 13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1억 1천

011)9820-0112, 041)554-0112 기와공장 박대리

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싱당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055)336-5691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중심지역 5층건물중 3층 45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방2개, 응접실, 주방 화장실, 샤워장
● 가액 보증금 7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층주 토굴터 대지 106평 1590만원
055)241-5359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안동댐 부근 동악골
● 평수: 13100평
● 가액: 1억5천(가격절충)
018)711-5294
054)854-529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시내
● 대 지 : 170평
● 법 당 : 50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9억
● 위 치 : 수색근교
● 대 지 : 300평(도지)
● 법 당 : 15평
● 요 사 : 2동 45평
● 가 액 : 3억(전세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정보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군
● 법당 15평
● 요사채 50평
● 건평 300평
● 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1억
● 위치 충남 연기군
● 법당 20평
● 요사채 50평
● 건평 종중땅(500평 사용)
● 금강 강변 위치(건물 등기 필)
● 가액 4800만원

※ 사찰, 암자, 포교당, 인수할 분 매매하실 분 성심이 도와 드립니다.
※ 조용한 시절에 시기적절히 잘이 보내실 분(기도, 요양, 휴양, 기타 등) 상담 하실 분 성심이 도와드립니다.
서울 02)432-5529 충남 041)864-9143 핸드폰 011)99454-9062

암자안내

● 위치: 충북단양-영월사이
● 임법당 방2 주방1 법당1 포함 22평
● 산신각 3평 뒤에 텃밭있음
● 산세좋고 물좋은 조용한 곳
●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
● 창건주 직접 상담 요망
011)485-2686

포교당안내

● 위치: 구리 남양주(부영APT앞)
● 건평 60평
● 시설물 : 법당 35평, 방2개, 사무실1개, 공양간 1개, 욕실1개, 화장실 2개
● 2층건물의 2층 전체 사용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31)555-4062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아파트 15평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불기 등 부대시설 일체포함
● 보증금 : 1300만원
011)815-0354
053)567-3633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실평수 60평)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6억 5천만원

011)9073-1560

탈 종 공 고

● 속명 : 임상근 ● 법명 : 도관 ● 승적번호: 6336
● 사찰명 : 대원사 (서울 강북구 미아6동 1267-37호)

상기 승려는 귀종의 종풍과 종지가 맞지 않아 이에 수행할 수 없어 탈종자를 제출합니다.

2002년 1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전철역 부근
● 건물: 4층 70평 및 옥상사용
● 시설 완벽 현재 포교당 운영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847-0408

포교당안내

● 위치 : 일산 지하철역 100m
● 법당 150평, 요사 방 4개
● 도심포교당으로
● 최고의 위치, 최고의 시설
● 가액: 보증금 전세 1억8천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530-1975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n57kr@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전통 한옥 5칸
● 접집, 고가집
● 대지 78평, 건평 65평
● 큰방 3개, 별채 방3개, 전체수리
● 가액 1억2천7백(융자가능)
●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또는 보살님 답사요망
063)287-848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임야 : 2000평
● 대지 : 350평, 법당: 대웅전 14평 요사채 : 30평, 창고 10평 산신각, 용왕각(각 2평)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1)811-546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동면
● 건물 : 슬라브 양옥
● 법당(20평) 요사채(30평)
● 대지 : 151평
● 가액 : 9천 5백(절충가능)
011)811-5466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은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칠아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림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법 회 안 내
삼각산 심우정사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
보름 법회 오전 10시
서울 종로 신영동 산4번지
02)391-1421주지 범진 합장

보 현 정 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이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북한장: 고추장 판매 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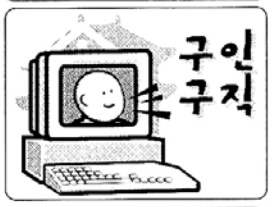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시민선방 개원 및 동안거 입재
1)입재일 11월 19일(음 10/15), 해재일:2003년 2월 15일
2)대 상 : 일반 불자 및 스님, 행자, 절에 살면서 수행하실 분, 직장인도 가능
3)위 치 : 홍은동 백련산 자락(홍제역 3번 출구에서 10번 마을버스 종점)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02)395-1222

대한불교 조 동 종
삼각산 청령사
초하루 보름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02)379-3935, 6938
주지 윤지명 합장



출가하여 승려가
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남 · 여) 40세 이하
011-459-3282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공양주 모십니다
▷ 전북 부안 변산반도
063)583-7281
063)583-7284

부전스님 구합니다
▷ 조계종 스님
055)552-5111

물좋고 공기맑은 깊은산골 토굴에서 공부하실 스님 모십니다.
063)352-2888
011-812-91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정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3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맞겨 주십시오.
011)9859-7425

북경관광 및 한방체험 방문단 모집
기간 : 6박 7일 금액 149만원 세일, 모집하실분 환영 / 수당지급
게이트관광 02)465-2577

직 원 모 집
불교성지순례전문 (주)실크로드 여행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조 건 여행을 좋아하며 신심있는 불자 남 0명, 여 0명
(주)실크로드 여행사 02)720-9600



사람을 찾습니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 56세 키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017-653-1077/011-9723-1043

한 국 스 님 을 찾 습 니 다
법명 李前國
중국 남경에서 인연을 맺은 의형제 周仁勇이 찾고 있읍니다.
연락처 中國 南京 鼓樓里 56號 601室
중국남경(025)220-7934 한국연락처 033)332-6022

사찰 종무실 직원 구함 북한산 노적사
남녀 제한없이 40세 미만 사찰내 숙식가능자
컴퓨터 경리 사무 등이 가능하고 사찰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
문의 주 간 : 02)353-4924, 011-9734-4924, 353-5016
야 간 : 02)353-4924, 011-9734-4924
노적사에서 행자(스님되실 분 40세 이하)도 모집합니다



비구니 확인입니다.
초하루, 지장재일에
기도해 드립니다.
016-9336-2210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명학역 앞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절수행 강좌 / 청견스님
문의 02)722-1050

주 지 직 인 무 효 공 고
사찰명 도봉사 소재지 경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 901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직 직인을 개인하며 이후 사용된 전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불기 2546년 11월 1일
도봉사 주지 승앙 (노광례)

탈 종 공 고
사찰명 도봉사 법명 속명 승앙(노광례) 승려번호 1275-0146
소재지 경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 901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6년 11월 1일 도봉사 주지 승앙 (노광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layer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40석) 연중개방
02)738-5586/5568

비법을 전수합니다
정확한 사상체질 판별법
놀라운 치료효과의 사암침법
054)552-8544

사륜중고차 전문
▷전무 : 심상팔
문의 상담 받습니다.
011-272-7643



오래된 해소 천식에
효과좋은 토종약초 있습니다
▷ 약사여래포교원
043)645-7604
011-748-7604
011-485-7604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회복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동산불교 학술 연구소 및 무진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권선문

본 동산반야회는 1982년부터 무진장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20년 동안 신행해 왔습니다. 큰스님은 한국불교 근대사에 있어 대 포교사의 업적을 남겼기에 동산창립 제 20주년을 맞아 동산불교 학술연구소와 무진장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큰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고 또한 후학인을 양성하여, 앞날에 한국불교포교를 튼튼히 하고자 하옵니다.

불교를 아끼는 여러분!

동산학술연구소와 장학재단설립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미래 불교포교변화의 장을 열겠습니다.

후원금액은 후원자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동산불교학술연구소:근본불교연구 및 포교방법연구 분야
▶무진장장학재단:불교학분야 연구자

후원계좌
▣국민은행:016-01-0226-236 동산반야회
▣농 협:053-01-192203 김재일
▣우리은행:119-05-121292 동산반야회
▣우 체 국:010041-02-066442 김재일

▶후원회사무국: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장 김 재 일
한국불교 인 권 법 당 주지 박 진 관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한국 근대 선불교 산실 정혜사 능인선원 중창

수덕사, 10억투입 내년가을 완공계획

한국 근대 선불교의 산실인 정혜사 능인선원이 중창된다.

선지종찰(禪之宗刹)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는 20일부터 근대 한국최고의 선원으로 주목받아온 정혜사 능인선원의 한국 선불교 역사성을 복원하는 취지에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시작한다.

예산 수덕사 산내암자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지주와 동량이 되었던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 전강 금오 춘성 청담 혜암 벽초 스님 등 수많은 눈 푸른 납자들이 용맹정진했던 곳이다.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 가을 완공예정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선방(40평) 개조, 전통양식의 요사채(60평), 목욕탕(30평), 우물, 해우소(화장실)가 건립된다.

현재 정혜사 능인선원은 1층(16평)과 개조한 2층(10평)을 모두 합해 20여명 밖에 수행할 수 없고, 콘크리트로 건립된 요사채가 협소한 것은 물론 공동 목욕탕 시설이 없는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보수가 요구돼왔다. 수덕사는 정혜사 불사를 위해 이번 동안거부터 선방을 잠정적으로 폐쇄했다.



◇한국근대선불교의 산실인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 능인선원의 현모습.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능인선원은 한국불교의 중흥처요 꺼져가던 선맥을 다시 잇고 법등을 밝힌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난날의 명성과는 달리 낙후된 모습이 되어 선가의 귀의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수덕사에서는 근대 선불교의 산실에 걸맞으면서도 위상을 잃지 않는 불사를 하고자 하는 만큼 불자들의 적극적인 불사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41) 337~6565.

한편 599년 지명법사가 창건한 정혜사는 1930년 만공선사가 암자를 중수하여 가람을 선원으로 재정비, 근현대 불교계를 움직인 고승들을 배출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932년에 설립한 능인선원과 1935년에 중창한 관음전 산신각 불유각 요사 등이 있다. 특히 정혜사에는 한국 근대 최초의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의 유일한 완성작품인 관음보살좌상이 봉안돼 있다.

김원우기자

국태민안·부산발전기원

22일 제3회 팔관회

2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국태민안과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팔관회가 봉행된다. 우리나라 전통 불교축제인 팔관회를 현대화된 시민축제로 계승 발전시킨 제3회 팔관회는 팔재계의 실천을 통한 불자의 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 주최로 사찰 및 불교단체, 일반시민 등 1만여 불자가 참여하게 될 팔관회는 삼신이운(제불보살님을 법회에 청하는 의식), 국악 축하 공연, 불자연예인 공연, 육법공양, 수륙고혼 영가천도, 연등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민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팔재계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비의 쌀모으기를 실시해 절약과 절제로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행 실천을 이끌고 있다. 천미희기자

법당옆에 폭 35m 도로 계획

사찰경내엔 154Kv 고압송전탑

자비정사 '노선변경요구', 경산시 '난색'

법당 처마 바로 밑에 폭 35m 도로가 들어서고 사찰 경내지에 154KV 고압송전탑 설치가 예정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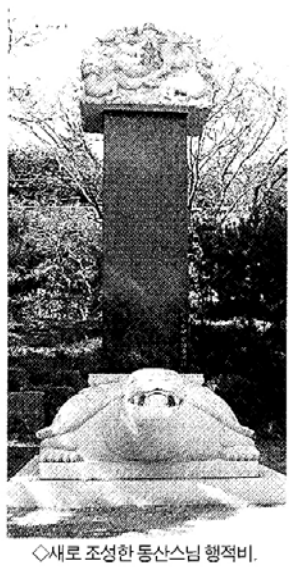
경산 자비정사(주지 청안)는 도로 건설과 관련 7일 경산시청을 방문 "시가 도시계획도로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사찰을 통과하도록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명백한 불교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또 "도시계획도로 선이 사찰 부지 상당부분을 관통해 도로 개설시 대웅전 철거 위기가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도시계획도로 선을 사찰에서 20m 정도 뒤로 물려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측은 "계획도로가 확장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라 무리가 없고 한번 정해진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용인 화운사(주지 혜돈) 경내지에 154KV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1기가 설치될 예정(송전선로 이격거리 약 150m)이어서 수행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

화운사측은 사찰수행환경 침해를 근거로 용인시에서도 송전탑 설치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산업자원부가 사업을 강행, 4일자로 승인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박원구 · 남동우 기자



◇새로 조성한 동산스님 행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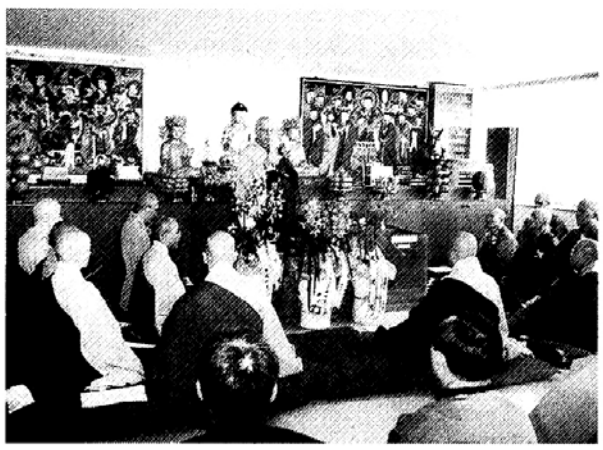
동산스님 행적비 범어사에 우뚝

16일 동산스님 직계 상좌와 문도회는 범어사(주지 성오) 탑전에서 동산스님 사리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1965년 열반에 들 때까지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 되어주었던 동산스님의 사리탑비 제막은 1967년에 이어 두 번째. 동산스님의 상좌였던 성월스님이 비명을 지어 범어사 경내에 세웠던 비석의 내용 중 동산스님의 행장이 일부 누락된 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세운 것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인 지관스님이 글을 짓고 서예가인 학정 이돈흥씨가 글을 쓴 사리탑비의 내용은 동산스님의 사상과 수행가풍을 비롯하여 불교정화, 중풍과 선풍 진작, 교화, 설법, 지계, 계율, 승려교육, 가람수호 등 스님의 행적 등으로 제법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미희기자



◇외국인들에게 한국선을 알릴 부산 남산 국제선원이 9일 문을 열었다.

부산 남산국제선원 9일 개원

법회 영어로, 외국인스님·관광객 등에 개방

"Homage to all the Buddhas, Who are present in their glory, At th s assembly(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9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국제선원(선원장 무심) 개원식에 참석한 눈푸른 외국인 스님들과 국내 불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영어 삼귀의로 법회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말 삼귀의가 이어졌고 법회의식은 영어와 우리말로 진행됐다. 낯설지만 참신한 이 풍경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선을 소개하기 위한 문을 여는 남산국제선원의 첫인상이 되어 참석한 부산 불자들에게 새겨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등의 숭산스님 제자들과 해운정사 선방 수좌들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심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 불자들을 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량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50평 규모에 선방과 요사채, 공양실을 갖춘 남산선원은 앞으로 외국인 스님, 외국 관광객, 일반 불자는 물론 선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법회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국제선원장 무심스님은 숭산스님의 맏상좌로 84년 숭산스님으로 사미계를 받고 86년 범어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을 지낸바 있다.

051)518-7913 천미희기자

혜원정사, 경로잔치 열어

학생 27명에 장학금 전달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0일 제 7회 경로잔치와 2002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혜원정사 조실 고산스님, 노기태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 500여명의 관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예인 축하공연, 혜원정사 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대호 학생을 비롯한 27명에게 총 1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기자

숭림사 16나한상 등 7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

숭림사 16나한상 등 7건이 전라북도 도 문화재로 새로 지정됐다

익산시 숭림사 16나한상과 정읍시 정혜사 석조보살입상, 미륵사 석불좌상, 고창군 무송리 석불좌상 등 4건은 유형문화재로, 고창군 문수사 석조승상과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용화사 미륵불상 등 3건은 문화재 자료로 각각 지정됐다.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자세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어서 그동안 문화재 지정에 힘들었다"며 "소조 석가모니 목불 등의 문화재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신기자

달성비슬산 정상 폐사지

밀교사찰 대견사터 주장

경북 달성군 비슬산 정상부근의 폐사지가 '대견사'터이며, 밀교사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남문화재연구원(원장 이백규)이 달성군으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아 9월 23일부터 1일까지 대견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견사(大見寺)'란 글자가 새겨진 암막새(지붕 끝에 모양을 내는 기와)가 출토되면서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지 서편 암굴 남쪽 입구 우측 바위에서는 화염에 휩싸인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 밀교계통의 문양이 발견돼 밀교사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발견된 문양은 99년 남원 승련사 뒷산 일명 기차바위에서 발견된 유가심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황제가 창건한 대견사가 1416(태종16)년 이후 여러 차례 중창을 거듭해 1633(인조11)년까지는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구기자

태평양전쟁 무연고희생자 유골·위패

2차 357기 환국… 보광사에 봉안

태평양전쟁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유골 및 위패 357기가 올해 두 번째로 조국에 돌아왔다.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회장 이백암)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이종대)는 16일 일본 14개 사찰에 보관돼 있던 한국인 희생자 유골 50구와 위패 307기 등 총 357명의 유골과 위패를 모셔와, 파주 보광사에 봉안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차 100기 봉환(본지 390호 391호 15면 기사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가 국내 사찰에 봉환됐다.

이번 2차 봉송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계평화사, 민간단체들이 주장해왔던 40여만기에 이르는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미 반환 한국인 유골이 1,100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해왔다.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는 앞으로 12월초 제 3차 300기를 들여오는 등 일본 23개 사찰에 보관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 40만기를 모두 환국시킬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대전지역 53개단체 참가



◇대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002 청소년자원봉사 및 진로탐색박람회 개최모습.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는 9일부터 10일까지 충무체육관에서 '2002 청소년자원봉사 및 진로탐색 박람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 53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참여기관 홍보 △난타, 청소년 댄스동아리, 전통문화 등의 공연 △3D 애니메이션, 수지침 등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류재희 대전지사장

대구불교방송 창립6돌 기념법회

대구불교방송(사장 성타)은 11일 불교방송 7층 대강당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스님을 비롯 고운사 주지 혜승, 직지사 주지 자광, 동화사 주지 지성,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은 인사말에서 "대구불교방송이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을 이땅에 전한지 6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불교계의 진정한 생활의 동반자이자 단결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부 축하행사에는 성악가 여정운, 박희숙씨의 불교가곡 공연, 대구예술대학교 교수 김일수씨의 섹소폰 연주, 대구불교방송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박원구기자



◇한상선보살이 연화원 불단을 청소하고 있다.

나보다 이웃 먼저 생각

서울 연화원 한상선 보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불자'

서울 망우3동 연화원 불자들은 새벽마다 다른 사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상선 보살(45, 법성화)을 이렇게 부른다.

한 보살은 절에 다닌 지 5년에 불과한 초심불자. 하지만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은 오래도록 절에 다닌 불자들보다 더하다는 평이다.

5년 전 번화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한 보살은 어느 날 가게가 도난을 당해 한 순간에 재산을 잃었다. 여기에다 둘째아이가 장난을 치다 볼펜을 던진 것이 친구의 눈에 맞아 실명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한 보살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위의 한 불자가 절을 찾아 100일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한 보살은 절에 갈 수가 없었다. 몇 만원 기도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화원에 전화부터 했다. 주지 진봉스님은 따뜻하게 위로하며, 절에 일단 나오라고 했다. 100일 기도비는 법당 청소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요일 〈초발심자경문〉〈금강경〉 교리공부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기도하고 교리공부 하다보니 저절로 살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환희심이 났던것은 나도 모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을 위한 마음이 생기다보니 동네에 연작은 음식점은 IMF상황에서도 장사가 잘됐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둘째아이 친구의 병원을 매일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간호했다. 철저하게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다행히 둘째아이 친구는 실명위기를 넘겼고, 오히려 피해자 친구부모가 가해자 부모인 한 보살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다. 지금은 중국으로 유학간 피해자 친구가 수시로 안부를 묻고, 방학만 하면 가장 먼저 들려 인사를 올 정도가 됐다.

한 보살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질려면 주위 이웃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사상에 따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한보살의 생각이다.

요즘은 한 보살의 신심에 감복한 남편 이창현(법명: 법등) 거사도 함께 절에 다니며 마음을 밝히고 있다.

한상선 보살은 "어려운 시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나서 인생이 너무 즐겁게 바뀌었다"며 "앞으로 사찰 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힘을 보태고 싶다" 말했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봉사단 만들어 사회도움 주고 싶어"

추천의 말

진봉스님 연화원 주지



한상선 보살은 남다르게 신심이 깊다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한 보살은 종교생활의 자세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생활속에서 모든 일을 불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불자입니다.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는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러 불자들도 부처님의 훌륭한 생활법문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전국사찰에 시민묵조선원 개설·계율 재정비 추진

'조계종'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11일자로 종교법인 인. 허가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 공식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종단 26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실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지명덕찬 대선사

수미산문 중창한 대한불교 조동종

석존께서 2590년 전에 개발한 묵조선법의 수행끝에 정각을 이루셨고 1070년 전에 동조선으로 창수한 이엄진철 수미산문의 법통이 단절되었음을 통탄하던 종도들이 1989년 5월27일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청련사(靑蓮寺)에 모여 이엄진철(利嚴眞徹)의 법통과 묵조선풍을 계승하는 수미산문 중창대작불사(須彌山門 重創大作佛事)로서 대한불교 조동종(大韓佛敎 曹洞宗)을 중창한 다음 1990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등록 함으로써 국가공인을 받는 공식 종단으로 등장하였다.

중국 소림사 조동정종 법통 사법보완

불법전승은 친승기별이 불변철칙이다.

전 해인총림의 이성철 방장이 저술한 「한국불교 법맥」에서 법사와 법제자가 상면하여 친승기별(親承記莂)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사와 법제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변개하는 것은 불법무효이며 불법전승에 있어 친승기별은 여하한 이유로서도 변개할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림사 조동정종의 순수 정통성

조동 제9조 녹문자각의 6대 법손으로서 조동 제15조 설정복유(雪庭福裕) 문하에 2대 제자가 있는바 영은문태(靈隱文泰)의 법손은 동운종이 되었고, 혜구(慧矩)의 법손은 소림사 조동정종 (少林寺 曹洞正宗)이 된바 유독히 바를 정자(正)를 하나 더 쓴 이유는 동운종파와 같이 친승기별 철칙과 융장이 없이 5역중법최인을 수법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사실 그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법전승 한다는 뜻에서 정(正)자를 더 첨가한 것이다.

○…소림사 청심소희 방장에게 사법

1994년 7월 16일 박운파 종정(朴雲坡 宗正) 윤지명(尹智明) 총무원장 이하 본 종단의 60여명이 소림사 장경각 법당에서 제30대 주지 겸 방장인 청심소희(淸心素喜) 법사를 모시고 입실건당한 바 서천 제82조, 동토 제55조, 조동 제45조의 정통법맥을 계승하여 단절되었던 수미산문의 법맥을 보완하였고 이어 소림사 사천왕문(四天王門) 앞에 수미산문 중창 및 조동정종 법통사법 기념 비석을 건립하였고 한국내에도 2001년 5월 27일 현 종정 주석 사찰인 청련사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추진사업 계획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사업

신도의 사부대중이 연속적 연수교육과 행자 사미(行者 沙彌)의 교육과 합동득도수계식 입실건당식과 구족계 보살계 등을 부단히 봉행하여 종도의 자질향상(資質向上)에 적극 진력한다.

○…전국사찰에 시민 묵조선원 개설

교통과 시설이 가능한 전국사찰의 법당이나 회관에 시민 묵조선원을 개설하여 현대문명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불자들의 심신 수양처를 제공한다.

○…의식의 간소화

현재의 각종의식은 한문화 되어있고 너무 길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한글화와 요약간소화 한다.

○…계율의 재정비

①석존께서는 「교단화합과 번영을 위해서는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으니라」 하셨고 ②불멸 후 경전 제1결집과 제2결집시에 문제화 된 십사정(비)법(十事淨(非)法)에 대한 계율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③중국의 백장청규(百丈淸規)는 걸식탁발법(乞食托鉢法)을 떠나 선농병행주의(禪農竝行主義)를 택하는 개혁을 하였고 ④신라의 원광은 세속5계에서 살생유택(殺生有擇)을 ⑤고려의 보조는 계율의 개차법(開遮法)을 ⑥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등이 있다. 이제 본 조동종은 과거와 현행제도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만은 없어 불교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알맞은 승려들이 힘껏 활동하여 피모대각 이류중행 (被毛戴角 異類中行)으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계율을 재정비 한다.

○…조동종 특색의 성전 간행보급

조동종 묵조선 사상의 위치에 서서 선밀교의 포괄적 대성전을 간행하여 전 불자에게 보급하여 불심을 고취시킨다.

○…전 종도의 근로봉사 운동 전개

일손 모자라는 일터에 본종 전 종도는 집단적으로 매년 1회이상 무보시 근로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받는 재보시로부터 베풀어 주는 법보시와 육신적 근로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승속일여 (僧俗一如의 일치 신뢰감을 확산시킨다.



◇총무원장 심월덕담

(非)法)에 대한 계율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③중국의 백장청규(百丈淸規)는 걸식탁발법(乞食托鉢法)을 떠나 선농병행주의(禪農竝行主義)를 택하는 개혁을 하였고 ④신라의 원광은 세속5계에서 살생유택(殺生有擇)을 ⑤고려의 보조는 계율의 개차법(開遮法)을 ⑥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등이 있다. 이제 본 조동종은 과거와 현행제도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만은 없어 불교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알맞은 승려들이 힘껏 활동하여 피모대각 이류중행 (被毛戴角 異類中行)으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계율을 재정비 한다.

○…조동종 특색의 성전 간행보급

조동종 묵조선 사상의 위치에 서서 선밀교의 포괄적 대성전을 간행하여 전 불자에게 보급하여 불심을 고취시킨다.

○…전 종도의 근로봉사 운동 전개

일손 모자라는 일터에 본종 전 종도는 집단적으로 매년 1회이상 무보시 근로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받는 재보시로부터 베풀어 주는 법보시와 육신적 근로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승속일여 (僧俗一如의 일치 신뢰감을 확산시킨다.

묵조선(默照禪)의 약사

불교탄생의 모체(母體)

석가세존께서 2590년전인 기원전 588년 음력 12월8일 견성성불 하신바 그 수행방법은 선정후혜(先定後慧)의 묵조선법에 의해 성취 하셨으니 묵조선은 부처와 불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모체이다.

부처와 불교 탄생시킨 근거

◇경전에 나타난 묵조선

「정혜등학 명견시불(定慧等學 明見是佛)」에서 정(定)은 묵(默)의 뜻이요 혜(慧)는 조(照)의 뜻인바 정묵(定默)은 마음의 산란을 막아주는 것이요, 혜조(慧照)는 혼침을 제거하여 광명의 지혜를 밝히는 뜻이다. 따라서 선정후혜의 묵조선 수행법에 의해 정과 혜를 수련하여 닦으면 해탈의 광명이 밝아지나니 이것이 곧 부처이니라 라는 해설이 된다.

〈열반경(涅槃經)〉

조동종 제2조 조산본적(839~901)은 「정의공계<본체계>는 본래무물이니 시묵경계요 편위색계<현상계>는 유만상형이니 시조경계니라(定位空界<本體界>는 本來無物이니 是默境界요 偏位色界<現象界>는 有萬像形이니 是照境界니라), 묵조자는 불불조조 적적상승지대법이니 세존 6년 단좌지비법과 달마면벽 9년은 응주벽관지경계야니라(默照者는 佛佛祖祖 嫡嫡相承之大法이니 世尊 六年 端坐之秘法과 達摩面壁 九年은 凝住壁觀 之境界也니라)」이를 해설하면 우주본체의 참모습은 본래 한물건도 없는바 이것이 묵(默)의 경지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세계는 삼라만상의 형상을 갖춘 모습은 이것이 조(照)의 경지 이니라,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제조사들이 적통정통으로 상승해온 대법칙이니 세존의 6년간 결가부좌로 입정한 비법과 달마의 9년간 면벽입정은 무아삼매(無我三昧)의 묵조선 수선의 경지이니라 라는 뜻이다.

〈조산본적(曹山本寂) 어록(語錄)〉

달마가 중국에 묵조선 전해

서기 520년(1482년 전)에 인도의 서천 제28조 달마가 중국 숭산 소림사 달마동(少林寺 達摩洞)에서 최초로 전파한 선도 묵조선이었는바 이것이 서천 제33조요 중국동토 제6조 혜능(慧能)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승되어 갔다.

임제종(臨濟宗)의 간화선(看話禪) 대두

석가세존이 기원전 544년(2546년 전)에 대열반하신 이래 정법(正法)시대 1천년을 지나 상법(像法)시대 1천년에 들자 근기가 희박하여 짐에 따라 중국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 도교(道敎)의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 철학을 도입하여 중국식 간화선을 개발하였으니 특성은 ①화두(話頭)를 들고 ②할(喝)로써 소리지르며 ③방(棒)으로써 몽둥이질하는 등 방편을 써서 묵조선법과는 정반대로 선혜후정(先慧後定)으로써 학인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경책하였는데 이것이 임제의현(臨濟義玄) 당시에 주역할을 한 까닭에 임제간화선 또는 임제종 간화선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조동종의 묵조선 대두

이제까지 조용하던 중국 선정의 경지에 임제종 간화선이 새로 등장하자 당나라 동시대의 동산양개(洞山良价)는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인 혜능(慧能)이 주석하는 조계산(曹溪山)과 동산양개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종명(宗名)을 조동종(曹洞宗)이라 공칭(公稱)하고 세존께서 성불하신 수행법을 묵조선(默照禪)이라고 호칭한 바 동토 제8조 석두희천의 참동계(參同契), 조동 제14조 만송행수의 종용록(從容錄)에 의지하여 수선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엄의 중국 운거도응 법통 사법

신라승 이엄진철(利嚴眞徹)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眞如禪寺)에 주석하는 조동 제2조 운거도응(雲居道膺) 문하에서 6년간 묵조선을 수련끝에 심인(心印)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엄의 수미산문 창수

서기 932년(1070년 전)에 세속제자가 된 고려의 왕건태조(王建太祖)가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내정리의 수미산 성지에 광조사(廣照寺)의 대사찰을 국력으로 건립하고 제1대 주지로 모신 바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묵조선 선풍(默照禪 禪風)을 크게 펼치니 500여 제자 학인들이 전국에서 운집하였으니 이것이 수미산문(須彌山門)의 창수이다. 그리고 신라말 고려초에 20여명의 승려가 중국에 가서 묵조선 법통을 계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형미(逈微), 경유(慶猷), 려엄(麗嚴), 이엄(利嚴)은 해동사무외사(海東四無畏士)라는 존경의 호칭을 중국에서 붙혔다. 그러나 잦은 인근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고려국운과 함께 수미산문도 수대를 못가서 법맥이 단절되는 비운을 당했다

그 이후 묵조선 사상의 흐름

그러나 묵조선의 수미산문 즉 이엄진철의 법맥은 비록 단절 되었어도 묵조선 사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니 ①고려 중엽 일연(一然)은 중편조동5위(重編曹洞五位) 2권을 저술하고 2회에 걸쳐 9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열었으며 ②조선시대에는 설잠(雪岑)이 조동종의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를 저술했고 ③임진왜란 당시 서산 휴정(西山 休靜)과 사명 유정(四溟 惟政)은 불살생에 대한 인과의 엄청난 부담을 감수 하면서도 조동종 묵조선의 핵심사상인 「피모대각이류중행(被毛戴角異類中行)에 대한 이타행(利他行)정신으로 왜적을 무찌르는 승군(僧軍)을 일으켜 호국사상을 실현하였으며 ④한말에 만해(萬海)는 조동종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저술하고 서산과 사명처럼 조동종 사상에 입각하여 불굴의 독립투쟁을 한 것이다.



◇중국불교 조동정종 숭산 소림사 정통법맥계보가 대한불교 조동종으로 이어진 법맥계보.

대한불교 조동종 종지종풍 소의경전

- 교주 : 석가모니불
- 종조 : 동산양개(洞山良价)
- 수미산개조 : 이엄진철 (利嚴眞徹)
- 중창조 : 지명덕찬 (智明德贊)
- 종지(宗旨) 종풍(宗風) 석가 교주의 근본교리를 통해하고 선정후혜(先定後慧)의 조동종 묵조선 기본 수행법에 따라 심신탈락(心身脫落) 이심전심(以心傳心) 즉심시불(卽心是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동산양개(洞山良价)의 투철한 작주성과 이엄진철(利嚴眞徹)의 법성원융무애(法性圓融無碍)한 수미산정수(須彌山劍脈)의 계맥정신과 지명덕찬(智明德贊)의 중창이념(重創理念)을 묵조선풍(默照禪風)과 조동종 종풍(曹洞宗風)으로 한다
- 소의경전 (所依經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의 진공묘유(眞空妙有)한 일승불이(一乘不二)의 사상과 석두(石鏡)의 참동계(參同契), 동산(洞山)의 정편5위(正偏五位) 만송(萬松)의 종용록(從容錄)과 기타 전등법어(傳燈法語)를 소의경전으로 한다

대한불교 조동종 조직

종정 : 尹智明(윤지명)	재무부장 : 李法緣
승정원장 : 韓春潭	규정부장 : 趙行修
승정부원장 : 崔語空	사서실장 : 郭法輪
문도회장 : 曹梵海	감찰부장 : 李正默
총무원장 : 朴心月	포교부장 : 許雲成
부원장 : 金日光	
감찰원장 : 金正林	**전국교구 종무원**
종회의장 : 林眞一	서울원장 : 金雅龍
종회부의장 : 馬海倫	경기원장 : 洪晩悟
포교원장 : 金法空	강원1원장 : 李滿慧
교육원장 : 黃大陣	강원2원장 : 成慧泉
문화원장 : 宋慧序	충북원장 : 延大景
선원원장 : 金大休	경북원장 : 朴雲鶴
율원원장 : 朴一松	대구원장 : 林德眞
호법원장 : 金大觀	경남중부원장 : 梁海日
총무부장 : 宋德性	경남서부원장 : 黃法光
사회부장 : 郭行旭	울산원장 : 朴海月
교무부장 : 劉光慧	부산원장 : 鄭德正



◇2001년 5월27일 청련사에 세운 '수미산문 중창 및 조동정종 법통사법 기념비'. 이 비석은 1994년 중국 소림사 사천왕문 앞에 도세웠다.

묵조선은 부처·불교 탄생시킨 위대한 모체



◇중국불교 숭산 소림사 장경각에서 입실건당 기념 소림사 탑림사진(1994년).

이엄진철 수미산 법통계승…1989년 조동종 중창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70-6
전화 02)2062-0725
팩스 02)2062-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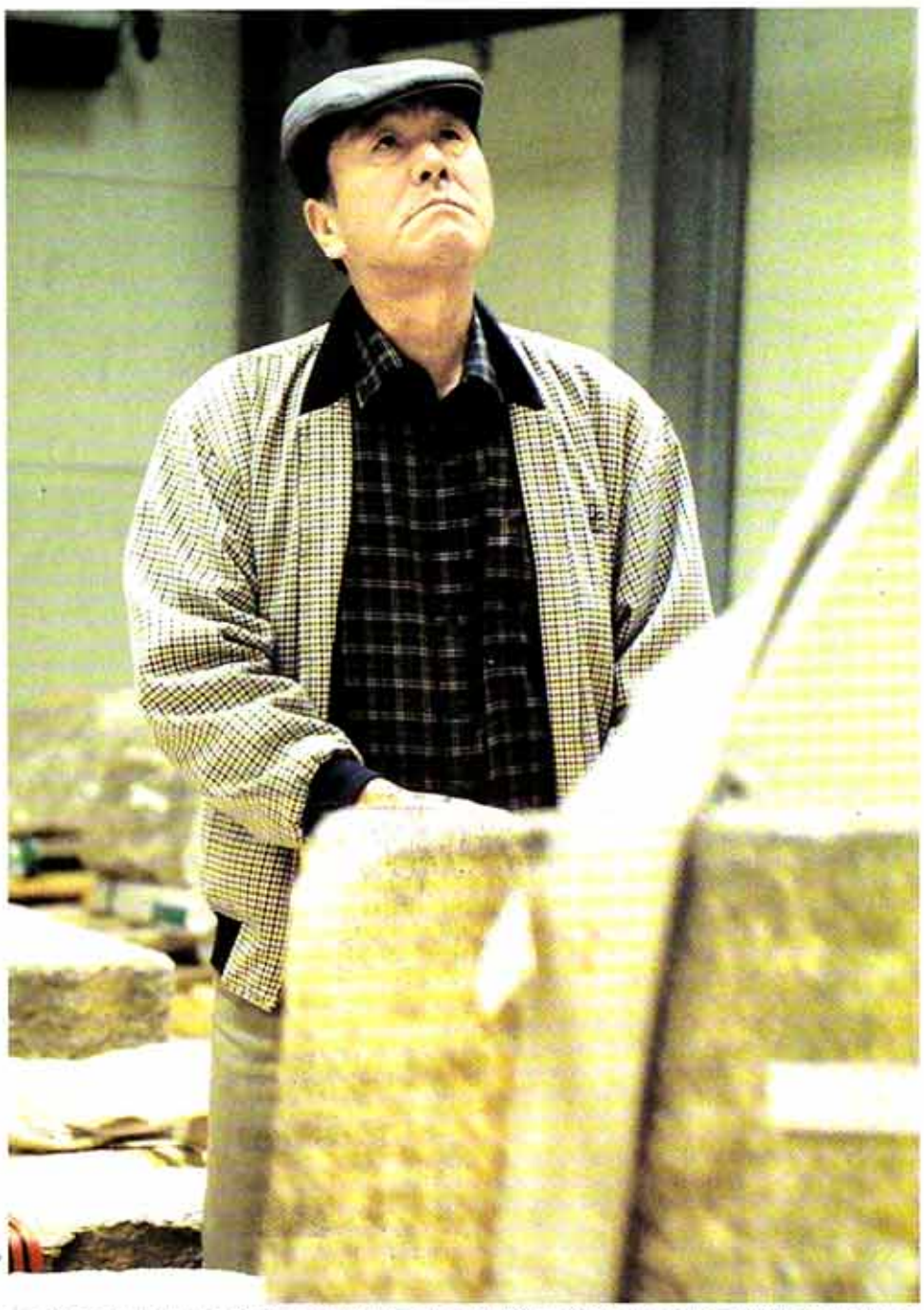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시법남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홍정수 씨

문화재 드잡이 기능자

미륵사지 석탑

"완벽한 보수 내 마지막 소원"



◇ '언젠가 저 탑을 내가 바로 세웠으면…' 미륵사터 석탑은 늘 홍정수(문화재 드잡이 기능자 190호)씨의 가슴 속에 있었다. 이제 흠집 하나없이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40여년 드잡이 경력 홍 씨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가을 황사가 천국을 뒤덮은 지난 11일 전북 익산 미륵사터 석탑(국보 11호) 해체 보수 현장. 가로 50m 세로 30m 높이 30m 규모의 가설 멧집 안에선 두 명의 석공이 시멘트를 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제가 댓댄 시멘트를 제거하는 일은 이번 해체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1400년을 버티 온 돌이 시멘트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일이 정으로 쪼고 있는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두 사람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면 홍정수(문화재 드잡이 기능자 190호 · 63)씨는 대뜸 석탑 내부의 적심 구조를 가리키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올랐다. 3층 지붕돌(옥개석)과 지붕 받침돌(옥개 받침)을 들어내 보니 가지런히 채워져 있어야 할 내부 적심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59년 동묘 보수 '드잡이' 시작

"이것 좀 보세요. 무너져 내린 부재를 마구잡이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것마저 깨뜨려서 다 채워버렸으니…, 다시 쓸 수 있는 부재들도 많았을 텐데…. 자기들 문화재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홀대한 게 틀림없어요." 못내 아쉬움이 흘러나온다. 우리 나라 최고(最高) 최대(最大) 석탑인 미륵사터 석탑에 드리워진 일제의 그림자는, 겉으로 드러난 시멘트보다 더 심각한 2차적 훼손이 있었던 것이다.

미륵사터 해체 보수 공사에서 홍정수씨는 '특별한' 존재다. 1년 전인 지난 해 10월 31일 해체 보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에서 탑에 첫 손을 댄 사람이 바로 40년 경력의 '드잡이' 홍씨였다. 3층 지붕 받침돌까지 해체한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은 부재 하나라도 홍씨의 손을 거치고서야 탑을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낸 석재는 180여 개. 보통 석탑의 경우 내부 적심을 포함해서 15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미륵사터 석탑은 해체해야 할 부재 수를 3000개로 추산하고 있으니 이제 시작인 셈이다. 작은 돌은 무게가 200~300kg, 옥개석의 경우 2톤을 넘기도 한다.

"생각보다 부식이 많이 되어 큰일이에요. 동탑 복원 때를 생각하면 최소한 50%는 원래 부재를 써야 제대로 된 복원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작은 흠집 하나도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때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10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석탑만 100여기

홍씨는 요즘 아내와도 별거중이다.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된 올 2월, 자신이 손수 만든 거중기와 보수대, 쌍보수대, 도르래 등 장비들을 갖고 아예 거처를 이곳으로 옮겼다. 두 달 전에는 휴대전화마저 없애 버렸다. "일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가 오지만 그 때마다 거절하기도 미안했기" 때문이다.

"드잡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미륵사터 석탑은 늘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탑을 내가 맡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석탑을 맡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것 하나 제대로 마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홍 아무개가 저 일을 했는데 정말 튼튼하게 했다'는 소리는 들어야지요."

홍씨가 드잡이 일에 입문한 것은 5~60년대 당대 최고의 드잡이였던 매형 김천석(작고)씨 때문이었다. "55년도인가, 시골(전남 여수)에서 올라와 남대문에서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유일한 드잡이였던 매형의 권유로 드잡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59년 동묘 보수 공사 때부터 본격적인 드잡이 길로 들어섰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 동안 매형에게서 독립해 처음 일을 맡았던 64년 남한산성 보수 사업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했다. 남대문,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오대산 월정사 8각9층석탑, 불국사, 석굴암,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 등 웬만한 국보급 문화재 가운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석탑만 족히 100기는 들었다 내렸다. "당시만 해도 저처럼 거중기나 보수대, 쌍보수대, 도르래 등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요즘도 산 속 깊은 절터 같이 기계 장비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손수 만든 장비를 갖고 갑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40여년 현장 지켜

드잡이 하면 거중기나 도르래 등을 이용해 무거운 돌이나 기둥을 옮기고 들어서 다시 맞추는 일을 하는 전통 건축 기술자를 말한다. 탑이 대표적이지만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 목조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추녀 같이 덩치가 큰 나무를 세우는 것도 드잡이가 할 일이었다. 석불이나 마애불, 담장이나 성곽 보수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기중기가 있어 드잡이가 따로 필요 없을 때가 많다고 한다.

"70년대에는 일감도 많았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솔직히 법이 가만 돼 이 일만 해서는 못 살았죠. 때로는 석공일도 해야 하고…. 함께 일 배운 사람 중에는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저야, 이것 하나 배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해 왔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손으로 문화재를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보람도 느꼈고요. 제게는 이 일이 곧 수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모두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나라 문화재 보수 정비 사상 최대의 역사(役事)가 될 이번 공사는 해체하는 데만 앞으로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부재 하나를 들어낼 때마다 표면에 붙은 이끼류를 제거하고 3차원 영상 복원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일이 실측하고 사진으로 찍어 놓는 작업을 함께 하다 보니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만 해도 3,500컷의 사진자료와 100기가가 넘는 CD롬 자료를 정리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자칫 조그마한 훼손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수하고 나서도 말썽 안 생기고, 적어도 몇 백 년은 끄떡없이 서 있으려면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켜볼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권형진 기자 jinyi@buddhapia.com

홍정수씨의 손길을 거친 문화재

1959년 서울 동묘 보수
1960년 서울 남대문 해체 복원
1964년 남한산성 서장대 보수
1965년 익산 왕궁리 5층석탑 보수
1967년 아산 현충사 석축 공사
1968년 서울 흥제동 5층석탑 이전
1970년 도산서원 보수
1971년 월정사 8각9층석탑 해체 복원
1972년 불국사 보수
1975년 수원성곽 보수
1987년 경복궁 근정전 월대 공사
1996년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 보수
1998년 건원능 병풍석 해체 복원
1999년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 보수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보수

국태민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一心寺 山神 石窟 法堂 佛事案內



귀의상보하옵고
소승이 지난 7월 25일,남북이 하나로 이땅 불국정토기원 일심사 "아미타 좌불"봉안후, 월드컵 경기시 국민 화합이 이루어 지는가 했더니, 요즈음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시끄러워 한반도 백두 대간의 정기를 다루시는 33산신을 봉안하고자 산신 굴법당 불사와,고려대장경봉안을 위한 전국의 참불자들과 인연을 맺고자 모연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들은 무루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음 11월 9일)
- 장 소 : 일심사(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구)
- 문 의 : 016-407-2549, 041-356-2549
- 모연계좌 : 우체국 310615-02-058483 (예금주:정문식)

일 심 사 주 지 설 호



릴레이 수행일기

계속된 범부의 욕망·갈등…불자의 길로

"어디서 무엇을" 항상 내영혼 일깨워 줘

노귀남(上)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수행과 공부를 농부와 밭에 비유한다면 올 가을 나는 무엇을 추수했는가.

온갖 모순이 혼재하는 이 땅에서 마음 움직여 살아가면서, 나는 밖으로는 평등, 공평하지 못한 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휩쓸리고, 안으로는 경쟁심을 일으키고 경계에 끌려가는 욕망들이 들끓어 쉽게 평정(平靜)을 얻지 못한다.

10 여년 전 여름에 백담사에 간 적이 있다. 아무 연고도 없었던 한 불교청년회 수련대회에 준비도 없이 그냥 끼어들었다. 내 목적은 만해 스님의 자취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내 자신과 대면하고 말았다. 백담사 바로 앞에 캠프를 만들고 아침 밥을 대충 먹고는 오세암으로 출발했다. 50여 명이 따라 나섰다.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 설악산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꼴이 되었다. 오세암이라고 가서 보면 번번이 엉뚱한 곳이 나오고, 나중에는 낭떠러지에 도착해 정말 낭패스런 상황에서 모두 우왕좌왕하였다. 헤매고 온 끔직한 길로 되돌아가야 할지, 좀 위험스럽지만 계곡을 타고 내려가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이, 나는 누군가 끓인 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좀 채울까 했다. 그때, 왔던 길로 돌아간다고 결정하고 출발신호가 내려졌다. 그 순간 지치고 배고픈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두려움이 내 몸을 긴장시켰다. 낙오되지 말아야 한다는 잽싼 판단으로 기를 쓰고 대열의 중간정도를 따라 붙였다. 그 날 밤은 더욱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밤새 쏟아지는 무서운 폭풍우로 텐트가 날아가기 직전이었다.

그때 나는 무사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벌어진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했다. 딴에는 불교공부 한답시고 초연한 듯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도대체 내게 공부가 무엇이고, 수행이 무엇이었던가. 뭔가 정리된 듯, 잡힌 듯 하던 것이 결정적인 경계에서 와그르르 무너진다. 이런 모습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드러난다. 사치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생활편의를 따라 소유가 늘어나고, 슬그머니 편의의 수준을 높여 소유를 합리화한다. 곧 자동차도 사야할지 모르겠다. 모순되는 실천이 또 마음에 감옥이 된다.

단단히 단련된 자신이 아니라, 자꾸 허물어지는 요즘 생활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씨앗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있을 씨앗이지만, 종교적 심성과 문학적 심성. 이 둘을 특히 기둥으로 삼고 왔다. 종교적 심성은 끌어낼수록 세속적 욕망들을 줄여준다. 생활에서 욕망과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에서 이게 내가 가려고 한 길인지 되묻는다.

그것이 훨확적인 태도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문학적 심성은 가난한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 버리고 지나치고 말 것을 알뜰히 챙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나 할까. 네온사인이 아니라 별빛이, 전자음악이 아니라 풀벌레소리가 내 영혼을 일깨워 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런 심성을 기르면서, 오늘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내 수행으로 삼는다.

(계속)

들숨쉬며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날숨



◇법왕정사 주지 청견스님은 6일 청호불교문화원에서 '호흡에 맞추어 절하기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스님은 "호흡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떤 수행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108배 300배 반복하니 마음·육신 청정"

호흡에 맞춰 독경·염불하기 수행도

"절 수행은 '내가 제일'이란 아만심에 살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모든 사물에 겸손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참회와 하심을 하게 됩니다."

6일 오후 1시 서울 논현동 청호불교문화회관 7층 법당. 날랜 모습의 스님이 무릎을 꿇어 부처님께 절을 한 후, 가볍게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양평 법왕정사(cafe.daum.net/sorisan) 주지 청견 스님이 지도하는 절 수행법 강좌. 오늘은 그동안 익혀 온 호흡법을 배경으로 절 수행의 기초를 배우는 첫 시간이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들이 절을 시작한다. 숨을 들이 마시며 무릎을 꿇고 장궤 합장 자세를 취한다. 장궤 합장에서 발을 포개고 바닥에 두 손을 짚으며 절을 하는 접족례를 하며 숨을 내쉬고, 다시 장궤 합장. 합장하고 일어서며 숨을 들이 마신다. 다시 한번 들숨을 쉬면서 무릎을 굽히면 자연스럽게 '흡흡호'가 되는데 무의식중에 2회의 들숨과 1회의 날숨을 쉬게 된다.

2개월 전부터 스님의 강좌를 들으면 수행을 해 왔다는 김현자(51. 서울 반포동) 씨는 "절 수행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업장과 번뇌를 녹이고 싶다"며 "순간의 고통이 오랜 세월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 수행을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절 수행을 하는 김 씨도 처음에는 발가락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해 "이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주상갈은 스님의 호통에 놀라 자세를 바로 잡곤 했다고 한다.

한번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게 먹는 술을 끊기 위해 절 수행 강좌를 듣게 됐다는 박현정(38.서울 신사동)은 "절 수행을 하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 술로 지은 업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108배, 300배를 반복하다 보니 심신이 청정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신의 건강회복과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 절 수행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온몸의 고통을 이기게 해 준 부처님께 감사하기 위해 절 수행을 시작했다는 청견 스님. 온몸을 움직이는 절 수행을 통해 고차원적인 호흡 수련을 하게 되고, 수를 세어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련을 종합해 온 스님은 '절 삼매'를 통해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다. 이 때부터 스님은 절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 법왕정사에서는 호흡에 맞춰 절하기 수행 외에도 호흡에 맞춰 독경하기, 호흡에 맞춰 염불하기 등 수행도 하고 있다.

법왕정사에서는 이밖에도 참선, 행선, 선 체조, 와선, 행선, 위빠사나, 자동 단전호흡법, 도인체조, 꿈·혼침 극복수행법, 업장소멸 진참회, 부처님 감사수행 등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또한 주말마다 열리는 '부처님 호흡법'을 중심으로 한 '철야정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절참선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시범, 장궤자세로 한글 금강경 독송, 석가모니불 염불, 축원기도, 3번의 108배 등을 실시한다. 법왕정사 =(031)771-7745

글=강유신 기자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법왕정사의 호흡맞춰 절하기



"절은 심신닦는 기초수행 신·구·의 3업 한번에 정화"

'절 기차게 잘하는 법' 저자 청견스님

"모든 불교 의식이 절에서 시작해 절에서 끝나듯, 절 수행은 모든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절 수행을 통해 모든 수행의 기초를 닦으세요."

〈절 기차게 잘 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양평 법왕정사 주지)이 말하는 절 수행의 의미다.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종합적인 수행입니다.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을 동시에 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고3 학생 같은 경우, 절 수행은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청견 스님은 절 수행이 참회를 통한 업장소멸, 절 삼매를 통한 아상의 타파 이외에도 심신의 건강을 얻는 부수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스님은 불교 수행자를 위한 참선캠프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소리산에 출가자, 재가자, 결사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세계적 참선캠프를 세우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두달간 폐관정진(閉關精進)에 들어 간다.

수행 캘린더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1월 23일(셋째 토요일) 오후 8시 성남 정토사에서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이어 12월 1일 회주 보광 스님을 초청, '문명염불(聞名念佛) 공덕'을 주제로 일요법회를 연다. (031)723-9797

■자비명상 수련=대한불교진흥원은 11월 23일~24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참나를 찾아서' 주제의 자비명상 수련을 진행한다. 마가 스님(마곡사 교무)이 지도하며 참여인원은 30명. (043)833-7789

■제따와나선원 정기수련=제따와나선원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9시, 화·목요일 오전 9~11시, 토요일 오후 7시(수행 및 법문)에 범라 스님의 지도로 근본불교 수행을 실시한다. (031)967-0511

■고엔카 위빠사나 정진='고엔카 다음 카페'(cafe.daum.net/dhammakorea)는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 30까지 서울 마포 불교진흥원(불교 방송국). 2층 불교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수련한다. 문의 =eunsung519@yahoo.co.kr

■'일승보살의 길'=현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2·4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선원에서 '일승보살의 길'에 대해 강의한다. 강사는 선원장 대우 거사. (02)582-9371

■연방죽선원 정기수련=연방죽선원은 매주 월~토요일 오후 7~10시(수행),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불교와 수행'에 대한 법문), 매주 일요일 오후 2~10시(수행) 선원장 법주 스님의 지도로 정기법회를 연다. 연방죽선원은 재미 과학자인 김사첨 박사가 최근 한달간 강연한 '담마 토크' 녹음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다. (02)334-1763

■참선 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에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교육내용은 선의 이론과 바른 자세, 호흡법, 마음 다스리는 법, 화두 참구법 등이며 1개월 과정을 수료한 후 참선 수행반(월·화요일)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051)466-4090

■경주 남산 순례=여행과불교를 사랑하는사람들은 11월 24일 경주 남산으로 순례를 떠난다. 오전 8시 50분 남산 삼불사에서 입재식을 가진 후 망월사-경애왕릉-삼릉-금오산 목없는 석불좌상-상선암-마애석가여래대불좌상-상사암-금오산 정상-약수골 등을 순례한다. (016)865-8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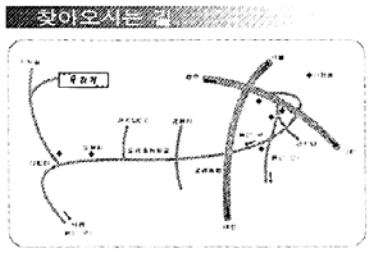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우리절



오십시오.
세상사 잡다한 것 다 놓아 두시고
오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넉넉한 자비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 우리절 관음전에는 석가족이 직접 조성한 42수11면 관세음 보살님을 모십니다!
- 우리절 관음전에는 1997년7월22일 핀 사리꽃(일명:우담바라)이 봉안됩니다.
- 우리절 관음전에는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여 조성된 '월드컵범종'이 모셔져 있습니다.
- 우리절 관음전은 곤지암에 위치한 태화산 노적봉이 바라보이는 곳에 도량의 기운과 노적봉의 기운이 합쳐져 기도성취가 빠른 곳입니다.
- 우리절 관음전은 123평 위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형태의 편안하고 여늑한 도량입니다.
- 관음전 낙성법회 안내
  - 옥동 법인정사 효경큰스님 법어
  - 2002년11월24일 오전10시
  - 곤지암 우리절 관음전

찾아오시는 길



관음전낙성법회

·장소: 곤지암 우리절(www.urijeol.com)
·Tel: (031)763-4674~5



◇무문관 수행자를 위한 음식공양을 비롯해 사중 청소, 채소밭 · 화단 가꾸기, 불우이웃 돕기, 성지순례 등 무문관봉사단의 모든 활동은 '마음공부'의 일환이다. 행자 스님과 함께 공양간에서 설거지하는 회원들.

바라밀현장

남국선원 무문관봉사단

무문관 수행자의 '외호 대중'

"몸으로 신심 일으키는 불자 될 터"

봉사는 부처님 향해가는 '마음공부'

8일 간간이 싸락눈 섞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에 도착한 제주 서귀포 남국선원은 선불장(選佛場)의 엄숙함과 남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간직한 비경으로 다가왔다. 대웅전에 참배하고 선원장인 혜국(전국선원장회의 회장) 스님을 친견하면서 무문관(無門關) 수행처의 엄격한 수행 기풍을 더욱 실감한다.

이어 저녁 공양시간에 공양간에서 본 글귀는 눈에 익은 '공양문'.

"주는 기쁨 나누는 삶이기를 서원하며(천지의 은혜가 스며있는) 감사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양문이 상징하듯 다섯 명의 보살들이 3명의 행자 스님들과 어울려 부지런히 공양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공양주가 아닌 평범한 신도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무문관 봉사단' 회원들이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93년 선원 건립을 계기로 봉사단이 구성된 이후 매일 5명씩 조를 짜 무문관 수행자를 위한 음식 공양과 108배 정근, 참선 등으로 정진하고 있는 재가 수행자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로 있는가?"

선원장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정성으로 스님들의 공양을 차리다 보니 음식의 맛이 없을 리 없다. 봉사단이 차리는 공양은 무문관 수행자 7명과 선방의 수좌 5명, 사중 스님 4명 등 스님 16명과 동안거 결제 참여대중을 합하면 40여명분이 넘는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공양물을 만들기만 할뿐, 무문관에 난 창구멍으로 공양물을 전하는 일은 행자들에게 양보한다. 발심출가하여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려는 행자들이 먼저 공덕을 쌓아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시 공양을 차린 봉사자들은 도량의 잔디밭과 꽃밭을 청소하고 채소밭을 가꾼다. 집에서 가져온 거름과 한약재 등으로 가꾼 무우, 고추, 배추 등 유기농 채소는 생명력이 듬뿍 담겨있어 한 끼만 먹는 수행자들에게는 요긴한 공양물들이다.

선혜월(46, 서귀포) 보살은 "남에게 보여주는 물질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합이 없이 행하는' 무주상(無住相) 보시가 더욱 참된 봉사라는 생각에 따로 회장이나 책임자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법 자체이길 바란다는 반야월(51, 서귀포) 보살은 "머리로 불교를 하지말고, 몸으로 신심 일으키는 불자가 돼야한다.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는 선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신행의 좌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봉사단은 사찰재정이 부족할 때는 봉사단에서 된장을 팔아 보충하는 일도 마다않는다. 사찰에서 장례를 지내는 불자가 있으면 함께 장례준비를 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한다. 남국선원의 봉사자들은 어느덧 무문관의 든든한 외호대중이 되어있었다.

서귀포=김재경 기자



선불장(選佛場) 남국선원 무문관

2006년까지 방부 마감, 대기자 줄이어

한국불교의 법맥을 잊기위해 1년동안 문을 걸어잠근채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용맹정진하는 남국선원 무문관 수행자들.

1994년 혜국 스님이 일타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문을 연 무문관은 3경의 방과 샤워실 및 화장실 7평 등 한 방이 11평 규모로, 2층 건물에 모두 8개의 방(2층에 30명 수용규모의 대중선방 포함)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선원의 무문관이 3개월 또는 5개월 기한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남국선원은 1년기한으로 무문관을 운영하는데, 보통 1년이 지나면 수행자들이 13kg 정도 체중이 빠질(일종식이 원칙)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

현재 3년간 무문관을 나오지 않고 있는 성효, 현진 스님과 정목 스님 등 선원장급 수좌 등 무문관을 거쳐간 수좌는 60여명. 현재 2007년도 방부를 받을 정도로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 선원장인 혜국 스님은 초창기, 직접 1년간 무문관 정진을 했을 정도로 무문관 운영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마음비추기

행없는 견성, 자기최면에 불과

평소 신심 좋다고 믿어왔던 불자 한 분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랜 기간동안 각고 끝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던 말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았더니, 한 때 모처에서 만난 적이 있던 자칭 무슨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계룡산에 있는 수련단체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들어가보지 않은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으나, 몇가지 내가 만났던 느낌으로 도저히 그 단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었던 터였다.

그 불자님은 입문한지 일주일만에 견성을 체험했는데 수행법도 획기적일 뿐더러 단시일내에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말 완전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살아간다고 했다.

이같은 불자님의 말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체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만에 빠지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충고를 했지만, 그 불자님은 오히려 나를 향해 불교의 틀 속에 가려 깨달음을 등지고 있다고 나무랐다.

내가 그 불자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었다.

그 단체에서 가리키는 몸 죽이기와 마음 죽이기 방법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수행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이미 불교의 초기경전에 다 설해 놓은 것이고, 또 견성을 했다고 인정을 해 주는 스승 자체가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문제삼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계율과 무소유 실천에 관한 부분이었다. 내가 오래전에 그 단체를 방문 하였을때, 도인이라는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어떻고 성불이 어떻고 극락이 어떻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 뒷 산비탈에 수많은 짐승을 기르면서 괄아먹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그 짐승들을 잡아 잔치를 하곤 했다. 또, 견성했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봐도 그렇다. 입으로는 '허공이 되었네, 내가 없어졌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쾌락을 좇으면서 무엇하나 버린 것 없이 과거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깨달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행이 나타나지 않는 무아체험이나 견성은 또하나의 자기최면이며, 황홀경일 뿐이다.

그러나 그 불자는 나의 이런 충고를 귀에 담지 않았고, 끝내는 불교를 떠났다. 안타까운 일련의 일들이 지금 불교 속과 밖에서 행해지고 있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경제적 여유없어…"잘못된 생각

몸과 마음 있으니 재물 탓 말아야

미용사인 윤평희, 서갑희(56)씨는 동남내기 친구다. 둘은 벌써 7년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출장 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미용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비탈길, 골목길을 헤매는 일도 잦아진다. 이들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것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우리 주위에는 "남들은 때맞춰 보시도 잘 하는데,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시도 못 한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돈을 내는 것만 보시의 전부로 여기는 풍토도 문제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핑계다.

재물 보시만 보시가 아니라 윤씨나 서씨처럼 자신의 전문 기술을 살려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엄연한 보시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능 불자회가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불자약사보리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와 함께 약품을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나눠준다. 의사와 간호사 등 불자 의료진 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도 매주 일요일 강남 봉은사에서 무료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다. 매주 내과, 치과, 안과 및 한의사들이 돌아가며 진료를 한다. 한국세무사불자회 역시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는 매주 토요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운전불자연합회는 관광 봉사, 차내 장기기증 캠페인 등 지역별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꼭 전문직이나 기능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난타'라는 노파는 등냥한 돈으로 등 하나를 밝혔다고 한다. 등냥할 기운만 있어도 보시할 힘은 있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과 마음이 있으니 보시할 재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자. 부처님께서는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다.



◇보시는 돈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단원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제 16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 호스피스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적으로도 호스피스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현재 정부에서도 호스피스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호스피스 교육을 통한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과 현장에서 접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호스피스 발전의 한 밑거름이 되어 전 국민적 의료복지 향상은 물론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 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불교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토마을에서는 제 16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각계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 육 안 내

◆ 교육일정 : 2002년 12월 8일 ~ 2002년 12월 15일, 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여 25명 ◆ 연 령 : 38세 ~ 65세 ◆ 교육수강료 : 19만원
◆ 지참물 : 반명함판 컬러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슈리닝, 슬리퍼, 컵, 가사장삼(스님)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 원서마감 : 2002년 12월 5일
◆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정 토 마 을 원장 능행 합장

2003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야간)

원 생 모 집 안 내

1. 모 집 과 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 모 집 학 과 가.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위기관리, 행정법무(행정사, 경찰사무 법원행정직) 전공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다. 지방정부경영학과 : 지방경영,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정치정보 전공 라.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전공
3. 모 집 인 원 각 학과 ○○ 명
4. 지 원 자 격 가.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03년 2월 취득 예정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5. 수 업 연 한 가. 2년 과정(4학기 졸업) 나. 비 논문으로도 석사 취득 가능.
6. 전 형 방 법 서류전형 및 면접
7.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1.11.25(월) ~ 12. 4(수) 14 : 00 - 21 : 20(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대학원 교학과(본교 강의동 5층)
8.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1.12. 7(토) 10:00 ~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9. 합격자 발표 2002.12.13(금) 14 : 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10. 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모 상반신 사진 [3×4㎝] 3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1. 전 형 료 가. 전형료 : 50,000원
12. 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271, FA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 특 전 가. 신입생에 한하여 1년간 수업료 50%를 감면함.
나. 공무원, 교직원, 군/경 및 전공관련기관의 근무자는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다.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혜경스님의

경전 읽기

법화경 ㉛ 수희공덕품 제18

50전전



아무리 큰 재물 보시를 해 봐야 50번째 수희 공덕에도 못미쳐

50인이나 전전(展轉)하여 전해진 가르침을 들은 50번째의 사람이 얻는 공덕을 왜 특히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법화경〉의 위대함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이러하다.

누구라도 좋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 설법장소를 떠난 후에 어디서든지 이 〈법화경〉을 설해 가르친다. 그러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도 똑같이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여 또 다음 사람에게 설해 가르친다. 이리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마치 등불을 이어 켜듯이 이 〈법화경〉을 설하고 전해 가서 50인 째까지 차례로 전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다음에서 다음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과 전해 듣는 사람의 능력과 소질의 문제도 있으므로 전하는 사람의 이해 범위 내에서 전해지는 것이므로 50번째의 사람이 받는 수희공덕은 최초의 사람이 받는 수희공덕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으리라. 이 50번째의 사람이 받는 수희공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즉 4백 만 억 아승지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출생, 즉 태생 · 난생 · 습생 · 화생 등 온갖 모습의 중생들에게 어떤 큰 시주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 하나 하나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이 세상에 가득할 만큼의 금과 은 내지 산호나 호박 등의 보석을 비롯하여 코끼리나 말, 탈것[乘物] 그리고 일곱 가지 보배로 된 궁전과 누각 등을 그 하나 하나의 중생에게 빠짐없이 베풀어주기를 80년 동안이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중생이 바라는 대로 생활을 즐기기 위한 물질을 베풀어 왔다. 그러나 이 중생들은 차츰 나이가 들어 늙어가서 몸은 쇠약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되었으며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에 의해 이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모든 중생에게 법을 설해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각각 나름대로의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즉 재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도 했다. 그 큰 시주의 재보시 및 법보시에 의해서 얻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만, 그 큰 시주가 얻는 공덕도 〈법화경〉의 단 한 시구[一偈]를 듣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공덕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얼마 만큼인가 하면 백분 드는 1천 분이 아닌 백천만억 분의 1. 뿐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도 비유에 의해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하여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50전전 수희공덕'의 크기이다. 전하고 전해서 50번째의 사람이 얻는 수희의 공덕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맨 처음의 사람이 얻는 수희에 대한 공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이다. 즉 최초의 사람은 법회에서 직접 설법을 들었으므로 훌륭하게 가르침에 통달할 수 있었다. 설득력이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감격은 매우 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가르침을 들었을 뿐인 사람이다. 법에 대한 넓은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도 가지지 않았으며 남에게 설한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내용은 '그가 들은 바와 같이' 틀림없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람에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엷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50인 째에 도달했다고 하면 보통의 가르침이라면 거의 감명도 무엇도 없어져 버려서 들은 사람은 '아, 그런가' 하고 치워 버릴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나 〈법화경〉의 경우는 그것이 다른 점이다. 가르침의 내용이 한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림없이 전해지는 한, 50인 째에 이르러도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최초의 사람보다 조금씩 엷어지긴 하겠지만 그 엷어진 감명마저도 커다란 공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50전전'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공덕에 대해 주의해야할 것은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덕을 나타내는데 매우 상징적인, 즉 형태가 없는 것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어구의 표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찾아 이해하여야 한다. 불교에는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왜 손가락을 보느냐?"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두고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구의 저쪽에 있는 정신을 보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다음의 〈법사공덕품 제19〉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주의를 해야 한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㉒

흉내내기와 야호선

'야호선' 식 가르침 아직도 많아 시대에 맞는 참선지도법 나와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인 '유기EL'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1897년 독일의 K.F. 브라운이 전기신호를 전자빔의 작용에 의해 영상이나 문자 등의 광학적인 상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브라운관(특수진공관)을 발명한데서 유래한다. 그 후 브라운관은 텔레비전의 수상관, 컴퓨터의 모니터 등에 널리 이용해 왔다. 그러다 최근 두께가 얇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와 대형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의 사용이 보편화되기도 전에, 한일 업체들은 두께와 무게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액정에 비해 만 배 이상 빠른 동영상 재생 능력을 가진 차세대 유기EL 제품의 양산을 놓고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브라운관의 발명 이후 본래의 목적은 같으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영상정보를 좀더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야호선(野狐禪: 참된 수행은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듯한 태도로 옛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남을 속이는 사이비 선을 뜻함) 방식이 적지 않게 쓰이고 있는 선가(禪家)의 지도 방식도 이제는 현대인에 맞게 다시 재고할 때라 판단된다. 야호선과 관련되어 음미해볼 '임제할려(臨濟喝)'란 화두가 〈종용록(從容錄)〉 제13칙에 있다. 임제 선사가 세상을 뜰 무렵, 삼성이 원주(院主)로 있었는데, 선사가 법상에 올라 가로되 '내가 떠난 뒤에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소멸하지 않게 하라!' 하니 삼성이 아뢰되 '어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소멸케 하겠습니까?' 하니, 이에 선사가 가로되 '갑자기 누군가가 물으면 그대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하니, 이에 삼성이 '할(喝)!'을 하니 선사가 가로되,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서 소멸하게될 줄을 누가 알았으리오!' 하였다.

사실 옛날에는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임제 스님의 꽥소리[喝]!, 덕산 스님의 몽둥이 찜질[棒]! 등의 충격 요법도 있었으나 이런 수단들은 앉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부질없는 짓이며 또한 꾸준히 바르게 앉는 사람에게도 역시 필요 없는 짓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간화선 전통의 계승자였던 무문혜개 선사도 이점을 간파하고 〈무문관〉 48칙 편찬시 '할'에 관련된 공안들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흑백 텔레비전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듯이, '할'을 이용한 지도 방식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선가에서 그저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별로 신선한 충격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듯이 부디 제방의 선지식들이 온몸을 내던져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새로운 학인 접득 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한국선풍이 지구상에 널리 선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임제의 꽥소리! 다만 귀머거리만 들었으며,

덕산의 몽둥이 찜질! 때린 놈만 통증이 골수에 사무쳤네.

서강대 물리학과
ypark@ccs.sogang.ac.kr



그림 · 문병성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㉞

거부할 수 없는 것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 찾아야

그대들은 또, "부처는 6신통(六神通)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天神) 신선(神仙) 아수라 · 대력귀(大力鬼)도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예컨데 아수라가 제석천과 싸워서 지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蓮) 뿌리에 있는 실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니 어찌 성스럽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신통(神通)은 코두가 업 짓는 신통이요 무엇에 의지한 신통이다. 부처의 6신통이란 그렇지가 않아서, 색깔에 접해서는 색에 속지 않고, 소리에 접해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에 접해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에 접해서는 맛에 속지 않고, 촉감에 접해서는 촉감에 속지 않고, 법(法)에 접해서는 법에 속지 않는 것이다. 색 성 향 미 촉 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아는 까닭에, 이 의지함 없는 도인(道人)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오온(五蘊)으로 된 부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땅 위를 걷는 신통을 나타낸다.

마음은 본래 신령스럽게 통하는 것으로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머물지 않는다. 막히고 머무는 것은 오온이라는 모양과 이름에 막히고 머무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이름과 모양이 빠짐없이 한결같은 마음이어서, 생각이나 말에 장애받지 않는다.

이제 이름과 모양, 생각과 말에 장애받지 않는 길을 시험삼아 함께 가보자. 그것은 모든 헛된 거품을 제거한 진실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이다. 이 길은 바로 지금 '나'로서 활동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남기고, 생겨났다 사라지거나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든 가변적인 요소들을 제외시켜 가는 방법을 통하여 탐구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금 손을 내밀어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신다고 하자.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 나를 찾아보자. 우선 차와 찻잔이 먼저 제외될 것이다. 다음은 찻잔을 잡은 손과 손을 움직이는 팔과 차를 마시는 입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의 육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손과 팔과 입은 '나'가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들이 떨어져 분리된다고 하여 '나'가 떨어져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손과 팔과 입과 같은 가변적인 육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느낌과 욕망과 생각과 의식은 어떤가? 차의 향기가 코에 느껴지고 찻잔의 촉감이 손에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느낌들은 조금 전에는 없었고 조금 뒤에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없어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욕망과, 녹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가변적이다. '나는 지금 차를 마시고 있다'는 의식 역시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변화하고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아서 '나'라는 노릇을 하고 있는가? 손, 팔, 입은 제외하더라도 손, 팔, 입과 함께 제외될 수 없는 무엇을 찾아야 하고, 느낌과 욕망과 생각과 의식은 가변적이지만 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가변적이지 않은 무엇을 찾아야 한다. 그 무엇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의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이 나타나 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감사의 말씀

삼보 귀의하옵니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어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 법체 평안하심을 서원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본종 국태민안 평화통일기원 대법회에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오탁악세의 말법시대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정법안장과 불법홍포에 함께 손을 모아 불국정토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큰스님들과 함께하신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님들의 늘 평안하심을 서원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큰 절 올려야 하오나 여의치 못해 지면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삼화불교대학 학장 혜 인 합장

종단 명칭·휘장 공모

삼보귀의하옵고,

본종은 불기2546(2002)년 10월 25일 창종기념 대법회를 봉행하였으나 타 종단과 유사한 종명으로 인하여 불자들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한국불교 율종의 법통을 이어 법손만대에 유전될 종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뜻을 품은 종단명칭과 휘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공모 및 심의 ■

- **공모내역** : 종단명칭 및 휘장
- **공모기간** : 불기 2546(2002)년 11월 30일까지
- **시 상** : 1백만원
- **심 의** : 본종 종명 및 휘장 심의위원회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135-8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02)511-2026~7 팩스(02)511-2028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알리는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는 2002년 10월25일 종단을 창종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종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과 불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혼돈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02년 11월30일까지 종명을 변경할 것을 대한불교조계종과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부대중이 있다면 혼돈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삼 화 불 교 대 학
학장 혜 인 합장

"원효, 동아시아 불교계 흐름 선도"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 번역자 워크숍



◇<원효전서>영역의 의미와 번역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및 번역자 워크숍이 12~13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13일 번역자 워크숍 모습.

영역 원효전서 번역 예규로 자리매김 될 수도

저본으로 삼는 판본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상가인 원효(617~686) 스님의 현존 저술 23종을 영어로 번역하는 〈원효전서〉 영역 사업이 회향을 앞두고 있다. 원효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97년 동국대와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원효학회는 내년 2월 〈금강삼매경론〉을 번역한 제2권과 〈무량수경종요〉 〈유심안락도〉 등을 담은 제5권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1~2권씩, 모두 5권의 영문판 〈원효전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12~13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및 번역자 워크숍은 지난 5년여 동안의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는 자리, 박성배(뉴욕주립대), 로버트 버스웰(UCLA), 루이스 랭카스터(버클리대) 조성택(고려대) 윤원철(서울대) 김용표(동국대) 교수 등 번역에 참여한 국내 · 외 한국 불교 연구자와 국내 불교학자들은 〈원효전서〉 영역본 출간의 의미를 모색하고 번역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첫날 주제 발표를 한 버스웰 교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통찰력이 여러 가지 주석적 저술을 통해 이뤄졌던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서 원효는 불교문헌에 대한 탁월한 주석가였다"고 원효를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택 교수 역시 "〈원효전서〉 영역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사상사 속에서 원효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독창적 사상가라는 면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흐름을 앞서 읽어내며 다른 학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박학다식한 면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번역에 참여했던 서양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을 다룬 번역자 워크숍이었다. 〈한국불교전서〉 전체를 영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 불교학계로선 〈원효전서〉 영역이 하나의 '번역 예규'가 될 수 있고, 번역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어려움은 〈원효전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택 교수는 7세기 불교 한문으로 적힌 원효의 저술을 현대 영어로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언어적 문제'를 우선 들었다.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한문을 분석적이고 실재적인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용어로 번역할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용표 교수는 "9차례의 번역자 워크숍을 거치면서도 학자들 간에 특정 용어의 번역을 놓고 이견이 많아 통일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승기신론소 회본〉을 번역한 박성배 교수는 동일한 경전에 대해 전하는 판본이 여러 가지일 경우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할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기했다. 김용표 교수는 "〈대혜도경종요〉의 경우 원효가 구마라집의 번역본에 주석을 단 것인지, 현장본에 대한 주석서인지, 텍스트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스웰 교수가 첫날 주제발표에서 밝혔듯 원효 저술의 전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논리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도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육류소비자 살생 공동책임"

슈미트하우젠 교수,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서



불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 가운데서도 첫 번째 계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이다. 이 말은 곧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라는 뜻일까?

:8~19일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불교의 관점에서 본 채식주의'를 발표한 세계적인 유식학자 슈미트하우젠(독일 함부르크 대학 · 사진) 교수에 따르면, 불교에서 채식주의가 등장한 것은 서기 400년 무렵 〈대반열반경〉 〈능가경〉 등 대승경전이 출현하면서부터다.

고기와 어류를 5종의 기본 음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초기불교 시대에 육식은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다. 동물들이 승려를 위해 특별히 도살되었다고 보고 듣지 않았을 때, 또는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승려도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됐다. 동물을 포함해 모든 유정이 불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대승경전이 성립하면서 육식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윤리적 견지에서 볼 때 훨씬 중요한 것은, 고기의 소비가 필연적으로 공급을 부추기고 따라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의 살해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살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능가경〉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도살되는 과정의 고통뿐 아니라 현대의 사육 방식 때문에 살아 있는 내내 겪어야 할 고통도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듯 동물을 비롯한 모든 유정은 괴롭힘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불교의 윤리와 배치된다.

대승경전 생긴 후(AD400년) '채식주의' 등장

종교다원주의 특성은 개방성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9일 '불교와 다원주의'를 주제로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회장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포괄주의의 단계까지는 이른 것 같지만 아직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웃종교와 공존 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기무라 기요타카 일본 츠루미 대학 교수는 "연기관에서 보면 '근원(元)'이라는 인식이나 '-주의'라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불교 내에는 다원주의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는 다종교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줄 수 있는가? 윤영해(동국대) 교수는 "불교의 '자기 부정'의 원리야말로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다원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이흠 교수는 "부정의 논리가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최종의 진리는 불교라는, 포괄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자기부정' 원리가 공존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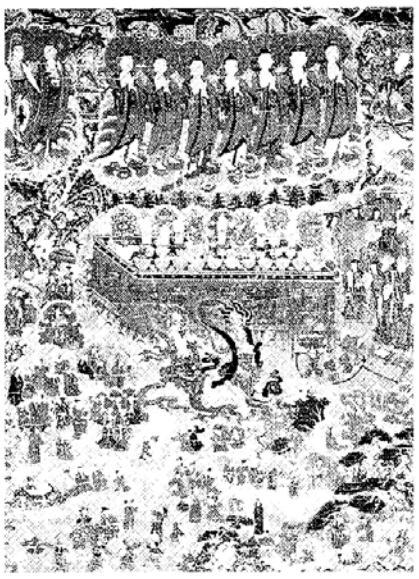
기조 강연을 맡은 윤이흠(서울대) 교수는 "종교다원주의는 특정한 종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용어가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한 사회에 공존하는 현실(즉 다종교 상황)을 기술하는 용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자신의 절대 신념체계를 지키면서 타인의 절대 신념을 방해하지 않는 개방적 태도가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8)

지옥에서 극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사람인 목련존자(目連尊者)는 효심이 지극한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시에 죄를 많이 지은 탓에 아귀지옥에 떨어져 굶주리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올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보를 벗어나 화락천(化樂天)에 태어나 무량복락을 받았다. 이 고사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안거가 끝나는 스님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조상들의 혼백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농부들은 호미를 씻고 백중놀이로서 여름 내내 힘든 농사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는다. 목련희(目連戱)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목련전(目連傳)이라는 한글소설이 간행되었다. 이 명절의 성대함은 연극, 문학, 놀이, 음악, 회화 등 다양한 예술로 전하고 있다.



◇봉서암 감로도(1759년, 호암미술관 소장). 화려함 속에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불화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조상의 혼백을 구하는 의식인 우란분재(盂蘭盆齋)를 표현한 감로도(甘露圖)가 있다. 이 불화는 비참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육도(六道)의 중생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효를 통해 지옥에서 극락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극적인 기적도 보여준다. 지옥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옥도라 하지 않고 달콤한 이슬을 뜻하는 감로도라 부른 까닭은 이 그림 속의 현실 같은 지옥 또는 지옥 같은 현실이 극락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고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통스럽지 만은 않은 것이다. 특히 하단에는 여러 현실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를 통해 불화를 제작한 당시의 풍속과 풍속표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 불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59년에 제작된 봉서암 감로도를 보면, 하단에는 지옥과 지옥 같은 현실생활이 펼쳐져 있고, 중단에는 두 아귀들을 중심으로 천도의식을 베풀고 있다. 하단과 중단 사이에는 나무가 총총한 산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 위 상단에는 극락으로 인도하는 7불이 즐지어 있고, 그 좌우에 인로왕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거들고 있다. 하단의 인물들은 삶의 고통과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에 빠져 죽고, 호랑이에 몰려 죽고, 맞아 죽고, 전쟁 중에 죽는 등 아비규환이다. 특히 인물들의 눈초리에는 근심과 경계의 빛이 가득하다. 심지어 소의 눈빛에도 경계심이 담겨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을 눈초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생계가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불화는 위낙 화려하고 밝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에 불기 시작한 장식성이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룬 가운데 장면과 장면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삼색 구름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 불화 속의 지옥은 이미 극락에 닿아 있는 것이다.

감로도에 지옥·천도의식·극락 함께

"언제든 천계갈 수 있다" 희망 담겨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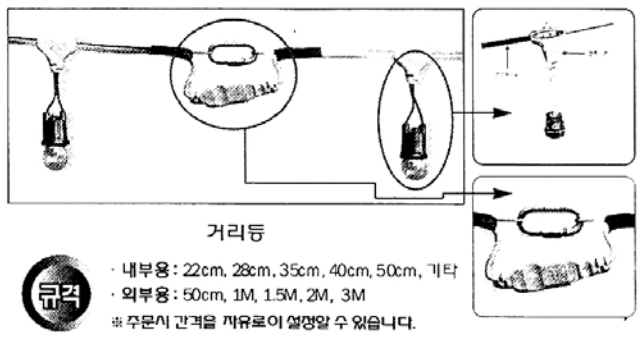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속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새로나온 책 4권



'쏟아지는 햇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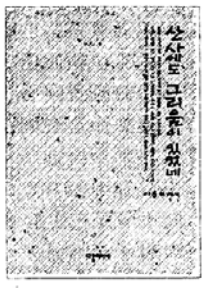
아눌라 스님 지음

정신세계사 / 9천원

〈쏟아지는 햇빛〉은 내용과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한국에서 출가한 뒤 스리랑카로 날아가 현지에서 위빠사나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아눌라 스님이 지었다.

공항에서 만난 타종교인과 마음 나누기, 자비관 수행 에피소드…. 한편 한편을 읽을 때마다 '아하~!' 하는 깨달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깨달음이란, 항상 우리를 비추는 햇빛처럼 바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것임에 틀림없다.



'산사에도 그리움 있었네'

이승수 편역

다할미디어 / 8천원

한양대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승수씨가 '산사와 그리움'을 주제로 한 옛사람들의 짧은 시를 모아 펴낸 것이다.

1부에서는 고려시대의 이규보, 이색, 조선시대의 양사언, 이이, 정철, 김정희 등 선비들의 시문집 가운데 산사를 그리워하거나 배경으로 한 작품 135수를 실었다.

2부에서는 보우, 휴정, 유정, 언기, 경허 스님 등 선승들의 시문집 중에서 그리움을 소재로 한 작품 123수를 가려 뽑아 번역, 해설했다.



'한국의 차도'

최차란 지음

화신문화 / 8천5백원

〈한국의 차도〉는 조선 막사발 재현에 일생을 바친 도예가 최차란 씨가 펴낸 책이다. 현재 경주 차인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씨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잡다(雜茶)를 정리하고, 진정한 한국의 차도(茶道)를 정립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차도라는 말의 뜻에서부터, 왜 차도를 실천해야 하는지, 차도의 종류와 차도 실행의 기본원리, 차도와 우주원리, 우리나라 차문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 〈한국의 차도〉 일본어 번역문을 실었다.



'야생초 편지'

황대권 글·그림

도솔 / 9천5백원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꿋꿋이 모진 생명을 이어가는 야생의 풀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황대권씨가 썼다.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985년부터 13년 2개월 동안 양심수 생활을 한 황 씨의 옥중 서간 가운데 야생초에 관련된 것만을 골라 놓았다. 놀랍게도 이미 20년 전부터 생태학에 기반을 둔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두었던 황씨는 아주 사소한 풀 한포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일을 통해 온전한 자기혁명과 전혀 다르게 세상 보는 법을 일깨워 준다.



부처와 아인슈타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인슈타인과 부처'

토마스 J. 맥팔레인 지음 / 강주헌 옮김

황소걸음 / 1만원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인간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사방을 헤집고 다닌다. 그러므로 중생이 스스로 무욕의 경지를 추구함으로써 욕망을 떨치게 하라."(부처)

"인간 본연의 한계를 깨닫고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조화로운 삶을 성취할 수 있다."(아인슈타인)

부처와 아인슈타인.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는 기원전 5세기 경 35세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엄격한 계급사회였던 당시 힌두사회에 "차별없는 평등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05년 26세의 나이에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과학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아인슈타인과 부처〉는 2천 5백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지구 반대편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현실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했지만, 많은 점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던 두 사람을 통해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의 만남을 보여주는 책이다.

여기서 부처와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세계적 물리학자로서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정신 문화적 코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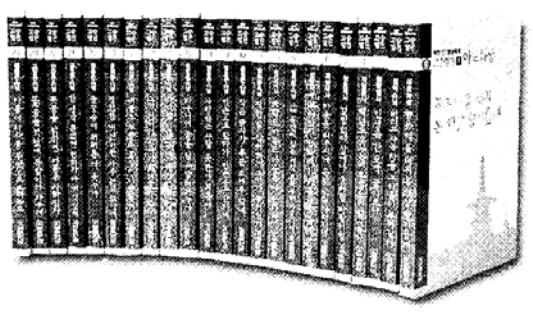
이 책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현대 물리학자들의 말과 부처를 비롯한 동양사상가들의 말을 맞대 놓음으로써, 현실세계의 본질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이 동양사상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여준다. 공간 이외에 시간과 물질, 사물의 본질, 패러독스를 통한 현실 인식,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계,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인하려는 욕구 등의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현대물리학자들의 증언과 동양사상가들의 증언은 일치한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현대물리학자들의 생각은 아시아의 옛 철학자들이 터득한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동양의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진리 사이에는 단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 과학자들이 외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진리를 발견했다면, 동양의 영적 지도자들은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똑같은 진리의 세계에 도달했다. 이는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 왔던 기존의 이원론적 사고의 틀을 깨고, 과학과 종교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들은 최신 과학이론인 '복잡계이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든 현상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어 연결되어 있으며,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사상과도 그대로 연결된다.

두 세계 현자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동서 고금의 삶에 대한 지혜와 진리를 접하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은자 기자 eijee@buddhapia.com



쉽고 재미있는 큰스님 이야기

'고승열전 시리즈 24권'

윤청광 지음

우리출판사 / 각권 1만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큰스님들. 그러한 큰스님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승열전 시리즈〉다.

삼국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불교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스님 24명의 일대기를 다룬 〈고승열전 시리즈〉가 우리출판사에서 새로 나왔다.

작가 윤청광 씨가 소설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정리한 이 시리즈는 불교방송의 프로그램 '고승열전'으로 방송되었던 것들이다.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에서부터, 불교의 계율과 정신을 전해 준 겸익 스님, 무소유와 무애의 자유인이었던 원효 스님, 법복을 벗어 던지고 무섭게 수행에 전념했던 효봉 스님, 불교 경전의 한글시대를 연 운허 스님, 엄격한 수행으로 해탈의 길에 도달한 전강 스님 등 남달랐던 큰 스님들의 삶의 궤적과 사상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감동과 가르침이 공존하는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기주의와 물욕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 보자.

이은자 기자

시문학전문지 '유심' 가을호

유심문학상·신인문학상 공모

계간 시문학전문지 〈유심〉 가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기획 특집 '선과 시' 세 번째 편으로 '한국의 선과 시'(이종찬), '선시와 초현실주의의 시'(권기호) 등을 담았다. 또 만해 탐구에서 소설가 조정래의 글 '내영혼 속의 만해와 촬운'을 실었으며, 집중 조명에서는 '시인 신대철의 시 세계'를 살폈다.

한편,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유심문학상'을 제정했다. 대상은 등단 10년 전후 작가로, 당해연도 〈유심〉 봄호에 발표하고, 여름 백담사 만해축전 때 시상한다. 시 시조 평론 분야로 각 분야 5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유심신인문학상'도 공모한다.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마감하며, 시(10편내외) 시조(10편내외) 문학평론(60매내외)로 응모작은 다른 지상 및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적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02)730-2500 〈유심〉 편집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이뭐꼬	성철스님	김 영 사
3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4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6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7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스님	효 림
8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 문 서 원
9	바로 이런 생애	우 빤 디 따	불광출판사
10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청 운 거 사	우리출판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무얼하러 오셨는가'

〈무얼하러 오셨는가〉는 걸레스님으로 불린 중광 스님의 일상을 담은 책이다. 중광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년간 곁에서 시봉했던 사진가 정봉문씨가 흑백 사진 90여컷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놓았다. 중광 스님을 시봉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인연', 3년간의 시봉기를 담은 '중광', 산사에서의 한가로운 일상과 마음 공부에 대해 담백하게 써내려간 '여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산출판사, 1만 2천8백원



'자연 속으로'

동자승의 화가 원성스님의 그림집이다.

최근 그린 그림들과 기존 책 〈풍경〉 〈거울〉 등에 실린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펴낸 것이다. 자연과 동자승이라는 주제로 활동해 온 원성 스님의 작품을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최근 작들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같은 제목의 주제로 열렸던 전시회에 소개된 것들이다.

이레, 3만 8천원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농·수·축·임산업, 식품가공업 및 가정 건강생활 필독서!!
질병을 고치는 책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성분의 놀라운 효능
특차: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목초액 식첨용1Kg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600,000원)
목초석류엑기스 1200ml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495,000원)
목초석류엑기스 성분 석류엑기스90%(흑석류80%+홍석류20%)+목초액10%
참나무 간질환 · 당뇨병 · 암 · 무좀 · 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저자 : 류창재(구 창엽) 값 8,500원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재의 건강교실"에서 명강의 중
류창재(구. 창엽) 소개
목초액 연구가
심성교정 연구가
환경보존 연구가
사회사업가
산업강사 : 각 기업 및 단체 출강중
(인간성회복과 인간능력개발 조직인화 관한 자료)
방송인 : 4년간 출연방송(KBS, MBC, 인천방송, 다솜방송, 이랜드방송, 제3방송), MBN매경TV 매주 6회 출연중
최신간! 명강의 테이프 포함!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값 13,000원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 입 →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긍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도서는 전화 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011-9702-8282 / 011-344-589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4-24-0006-533 (예금주 : 류창엽)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풍수 그 2천년의 신비가 벗겨진다!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우영재 지음
신국판 / 438쪽
정가 18,000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이 글의 핵심인 「평산구조(PS구조)」 분석은 세상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풍수성립이래 지난 2천년 동안 신비스럽게만 여겨져 왔던 풍수의 핵심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사상 최초로 풍수의 핵심인 「地氣(땅기운)의 패턴 및 분포구조(=PS구조)」 발견 해부
■ 대권가문 및 몇몇 주요가문의 선영과 생가에 대한 땅기운 구조(PS구조) 분석을 통한 풍수의 신빙성 고찰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卓 撰杜蒐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尤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삼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흥기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홍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김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궁유성 지음/정가 4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궁유성 지음/정가 40,000원

지금 우리는 왜 인디언에 열광하나?

최근 인디언의 삶을 주제로 한 책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틱낫한, 달라이라마 책의 열풍을 이을 또 하나의 '마음 공부' '영적 수행' 이야기의 확산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왜, 지금 우리는 인디언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분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문명에 결핍된 부분을 인디언의 삶에서 찾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수천년의 전통을 이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디언들의 공동체적 상생의 삶에 대한 공감이,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백인들에 의해 짓밟힌 극적인 최후와 어우러지면서 신화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인디언의 삶의 방식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60년대부터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격랑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취하던 때였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직수입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문화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삶의 방식 또한 미국화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우리 전통의 문화와 정신도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디언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은 지적 유희, 관념적 현실 비판 의식과 출판 상업주의의 만남이 이루어낸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녹색평론 김종철 대표는 "비폭력적 문화를 갖고 장기적으로 살아온 인디언들의 삶 자체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인디언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특히 백인들에 의해 짓밟혔던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의 출간은 단순한 출판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것들에 대한 달콤한 읽을거리 정도의 상품적 차원에서 접근한 책들은 가벼운 읽을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순회강연 중 우르릉천둥, 1976년

'우르릉천둥이 말하다'

카르멘 해뜨는 포프 지음 / 조병준 옮김

나무심는 사람 / 1만 2천원

'구르는 천둥'

더글러스 보이드 지음 / 류시화 옮김

김영사 / 9천9백원

인디언의 공동체적 상생의 삶에서 현대문명에 결여된 부분 메우고자

최근 나온 〈우르릉천둥이 말하다〉와 〈구르는 천둥〉은 체로키 인디언 치료사로 유명한 우르릉천둥(Rolling Thunder, 우르릉천둥과 구르는 천둥은 동일인이다)을 다루었다.

〈우르릉천둥이 말하다〉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카르멘 해뜨는 포프가 그의 연설문과 녹음테이프를 직접 풀어낸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97년 이후에 집필됐는데, 인디언과 인디언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구르는 천둥〉은 1974년 백인인 더글러스 보이드가 쓴 책이다. 에피소드와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출간되었을 당시에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서는 고전에 속한다.

백인이 외부에서 인디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구르는 천둥〉이라면, 〈우르릉천둥이 말하다〉는 인디언 우르릉천둥의 눈으로 내부에서 밖을 향해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쓰여졌다.

"영적 삶의 길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내 영적 삶의 길은 살아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속에, 하늘에 빛나는 태양 속에, 내 이마 위의 하늘에 담겨 있다. 흐르는 강물과 대양이 나의 경전이고, 나의 종교다."

"무관심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폭력과 같은 질병이다. 냉담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한다."

우르릉천둥은 1915년 미국 남동부의 그레이트스모키 산맥에서 태어났다. 백인 정부에 의해 인디언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보호구역 안으로 내몰리던 시기였다. 타고난 산사람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족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인디언 세계의 영적 지식과 의술을 전수받았다. 10대 후반에는 홀로 숲에 들어가 수행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동물 · 식물과 의사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숲에서 나온 뒤 본격적인 수행을 하며 여러 치료사들의 제자로 입문해 가르침을 받았다. 30대에 '위대한 영혼의 뜻'을 깨닫고, 쇼쇼니 족의 인디언 여성 얼룩새끼 사슴과 결혼해 서부 네바다 주에 정착했다. 이때부터 그는 치료사로서, 영적 조언자로서, 또한 인디언 부족의 대변자로서 개인과 사회, 지구의 건강 문제에 적극 참여했다.

우르릉천둥은 히피 세대에서 이어진 뉴에이지라는 정신적 폭발의 도화선 중 하나였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에게 끼친 우르릉천둥의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들은 우르릉천둥을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서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받았다. 반전 세대의 대표이자 록 음악의 전설인 밥 딜런, 존 바에즈, 비트세대를 대표하는 시인 알렌 긴스버그 등이 우르릉천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르릉천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인간 역시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폈다. 그는 일관되게 '환경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의 이런 활동과 시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인디언 관련 책들

국내에서 인디언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출간됐다.

백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인디언 학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검은 사슴은 말한다〉(G. 나이하르트)와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디 브라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디언의 독특한 삶과 정신세계를 다루었다.

〈돈 후앙의 가르침〉(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아메리카 인디언〉(장 폴브르), 〈인디언의 모든 것〉(제라르 몽콩블), 〈인디언의 복음〉(E.T.시튼), 〈인디언 숲으로 가다〉(오이예사), 〈아메리카 인디언의 땅〉(필리프 자캥) 등이 그것들이다.

이외에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문을 모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시애틀 추장), 인디언들의 우화를 모은 〈인디언 우화〉(수잔 펠트먼), 〈아메리칸 인디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디셸 피크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80년대 후반 출간된 이후 절판 되었던 〈돈 후앙의 가르침〉과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는 재출간될 예정이다.

'진화론'을 인류문화 시각서 정리

전문가 서평

'이것이 생물학이다'

에른스트 마이어 지음

몸과 마음 / 1만 8천원



〈이것이 생물학이다(This is Biology)〉는 에른스트 마이어가 90세의 나이에 그 동안 일구어온 학문적 업적에 근거하여 생물학이란 무엇이가를 명쾌하게 정의한 것이다. 생물학의 전반적인 학문적 특성을 다른 과학 학문분야와 비교하면서 생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생물계의 진화이론을 생물, 인류 문화적 관점에서 생물진화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다.

에른스트 마이어는 독일태생으로 조류분류학, 집단유전학, 그리고 진화론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유럽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그는 이들을 진화의 종합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9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학의 명예교수로 진화생물학계를 이끌고 있으며 "진화논쟁(One long Argument)"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물철학에 대하여(Toward a new Philosophy of Biology)", "생물학적 사고의 발달(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등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생명의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진화능력, 자기복제능력, 진화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분화능력, 대사의 능력, 자기제어 능력, 환경의 지극에 대한 반응능력, 그리고 유전자형과 표현형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들어 생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윤리 변화에 끼친 영향 등 상세 소개
생물학과 생물학의 역사·철학까지 담아

생물학은 화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자율적 과학이며 생물체의 경이로움을 좇아서 생물학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한 방식을 선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생물세계에 대한 설명을 만들고 시험하는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의 이론구성은 법칙보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생물학 역시 다른 과학과 같이 진보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세포의 발견, 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중대한 과학혁명들이 생물학의 이론을 발전시켜왔음은 분명하지만 다윈적 진화인식론이 생물학에서 일어나는 이론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생물학은 다른 과학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현대생물학은 근대과학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이후 생물학의 다양한 영역은 독자적으로 학문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문영역은 지배적 이론이나 기본개념의 본질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천 수백만 수십억 개의 개체들로 구성되는 지구 생물세계의 다양성은 생물 종에 대한 분류에서 시작하여 1859년 "종의 기원"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업적의 근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생물 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계통분류학의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생물학의 여러 영역들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물분류학의 기본개념과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중세이후 다윈의 진화이론을 포함하여 근대의 도브잔스키(유전학과 종의 기원, 1937), 마이어(종의 분화, 1942), 심슨(고차적 분류, 대진화, 1944) 등으로 정리된 "종합적 진화이론"까지 소개한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집단선택, 사회생물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물의 진화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영역으로써의 생태학의 발달과정과 영역을 소개하고,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한 생물 종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현대인류가 지구에 출현하여 진화되어온 과정을 유인원, 그리고 화석 속에 남아있는 다양한 인류들을 통해 현생인류의 생물학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또한 진화적 관점에서 흥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유일신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 의해 주어진 자연에서의 인간의 독보적 위치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회에서 초자연적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회적 동물로써 인간사회가 가꾸어왔던 인간윤리의 변화에 미쳤던 영향과 변화방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화는 우리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이 명문화된 윤리규범들을 제공하지 않지만, 개인의 필요를 넘어 건강한 인간사회를 유지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는 세계미래를 위한 윤리체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계관을 제공한다면서 자신의 생물진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글 이욱재 / 충남대 강사(생물학 전공)

〈이것이 생물학이다〉는 진화생물학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에른스트 마이어가 쓴 책이다. 생물학이 물리학이나 화학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똑같은 종류의 과학인지를 역설하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생물학, 생물학의 역사, 그리고 생물학의 철학을 아우르고 있다.

㊊ 제3회 ㊓

국제 전문 자격사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얀마"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얀마 국제 아우미따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등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① 전통 침술 국제 자격증반
② 스포츠 지압 국제 자격증반
③ 비만 클리닉 백짐 자격증반
④ 명예 철학박사 학위반

지원자격

①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② 현재 침술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③ 학력 제한 없음
④ 지원서, 등본1통, 사진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분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접수 및 문의 :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홈페이지 접수 : www.sukamony.or.kr
◆ 지원서 접수 마감 : 양력 12월 15일
◆ 출발일 :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별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느드



세상이 불타고 있다

요즘은 신문이나 TV를 보기가 겁이 난다. 온통 전쟁, 테러, 납치, 살인 등의 기사로 얼룩져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하여 성매매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나 공권력이 범인을 취재하는 도중에 구타로 인해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등 이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살인, 납치, 임금착취, 성매매 등 그 이유가 여하튼 인간의 생명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차적인 것은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 나약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회의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현양하기 위해 미물일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번식기나 우기에 출가자들은 외출 내지 여행하지 말고 조용히 수행에 정진하라고 가르친다. 재가자들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재판관이나, 무기장사, 독약을 매매하는 일 등 생명과 관계가 있는 직업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생명 자체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태우고 있는 불 때문이라 설명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기름 삼아 타오르는 불길을 제어하지 않는 한 인간 세상은 추악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잡아함경〉 197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1000여명을 넘어서자 상두산(象頭山)에 올라가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절규한다. 불타는 세상에서 눈뜬 사람들은 그 불길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이 설법의 배경에 깔려 있다.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타오르고 있다. 눈이 보아서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느니라"

이상의 설법에 의하면 인간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의 독소로 알려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여기서 탐욕이란 갈망과 갈애(渴愛)를 지칭하는 말이다. 갈애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표현되는 삼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욕애(欲愛), 유애(有愛),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이들 중에서 삼계에 대한 욕망은 세계의 범주에 관한 욕망이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한 구분이다.

여기서 욕애란 남녀간의 애정을 비롯하여 재산, 명예, 식욕, 수면욕 등 오욕을 말한다. 유애란 다음 세상에는 행복과 쾌락이 많다고 생각하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무유애에서 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실체화되지 않는 대상을 갈망하는 욕망이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우비고뇌와 절망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일종의 허무주의 내지 염세적인 탐닉이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욕망의 공통점은 맹목적인 욕망이기에 이성에 의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욕망의 밑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불만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면 통제하기가 힘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야기되는 세상사를 불타고 있다고 비유한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체의 모든 대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만을 바라고, 자기만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지배와 군림의 오만한 마음뿐인 것이 현실이다. 결코 자신을 포함한 어느 것도 누군가의 소유나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자 한다.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하며 분노한다.

이때 탐욕과 분노의 불로 타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않고 살 수 밖에 없는 인간 자신들이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 테러, 인질극, 전쟁, 인신매매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편린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종말은 인간세상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파멸의 구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타오르는 불길을 제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탐욕·이기심의 세상사 불길 비유

부처님, '소화' 방법 8정도 가르쳐



"견성은 古語,



가까

법 인 스

겨울 초입의 태조산은 차분했다. 어머니 품 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굳이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있는 고향 냄새. 그 냄새를 다 맡기도 전에 거대한 불상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천안 각원사 하면 청동대불(보통 좌불상이라고 부른다)을 떠올린다. 높이 15m에 무게만도 60톤이니 그럴 만도 하다.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이 청동대불을 봉안하고 호국도량을 건설해 부처님의 진리와 호국사상을 고취시키겠다는 뜻에서 75년 세워진 각원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기자는 천안 각원사로 몇 차례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천안에서 자란 덕분이다. 신기한 생각에 몸집만한 청동대불 손가락에 올라갔다가 혼찌검을 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청동대불과 그 대불을 보기 위해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수많은 계단을 빼고는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각원사가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규모 사찰로 자리 잡았다. 웬만한 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만난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듯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바쁘지. 어떤 때는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어제 막 일본에서 들어와 오늘은 신도분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라서 그런지 반갑고 기쁘네요."

편안해 보였다. 피곤한 탓인지 얼굴은 다소 수척한 듯했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반처럼, 형제처럼 지내길 좋아하는 성품이 스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님께서는 선과 교, 그리고 교육과 포교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일궈내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다.

"견성으로는 안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무나 물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연을 말할 수 없습니다. 습성을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이 액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쳐다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안다고 해서 세상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견성은 이제 고어(古語)로 묻어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지성(知性)입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법인스님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도대체 견성을 고어로 묻어버리자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견성을 위해 고행정진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수행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법인스님은 단호했다. 단정한 옷매무새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견성을 묻어버리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니었다.

"서로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견성을 묻자는 것은 나 하나의 깨달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남도 세상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진정 법다운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불교가 살 길은 불교인들이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살 길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知性)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대는 흐름이 있지요. 그 흐름을 놓치면 도태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성이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 지성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천없는 깨우침은 공허한 것

승가는 중생의 카운슬러 돼야

수행은 외부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에 중심을 둔다. 자신의 각성과 존재 근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근질기게 자신을 물고 늘어진다.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의 해탈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개인의 해탈에 이르기 위한 노력은 그저 그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나아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의 문제를 넘어 현실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다시 여쭈었다.

"종교는 내면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까."

"내면과 현실이 둘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어찌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 어찌 남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성찰은 곧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사회에 반영되면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실천 없는 깨달음은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이루신 뒤 45년간 각지를 다니시며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면과 현실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면과 현실은 혼돈 없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차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승가가 나가야 할 길도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이것이지요."



법인스님이 말하는 승가의 역할은 지금까지 어느 스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것이다. 스님은 승가야말로 중생의 충실한 카운슬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카운슬러 역할처럼 숭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의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지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건강마사지 손발온욕기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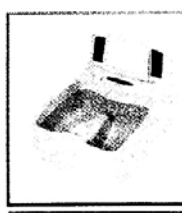


수족 온욕이란 수족온욕은 더운물을 용기에 담아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놋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인진(약쑥)명반을 풀어 손과 발을 담그고 넓은 천으로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덮어 두리고 발한을 시켜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감기 몸살을 예방 치료하였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 증진하였습니다.

다이 200 ~~980,000~~ → 660,000

선착순 100명에게 게르마늄 광천수 20리터 무료로 드립니다

손발온욕이 꼭 필요하신 분들
-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수술 후 빠른회복과 전이 방지를 원하시는 분
-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피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냉 · 대하로 고생하시는 분
- 산후조리 중이신 분
-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 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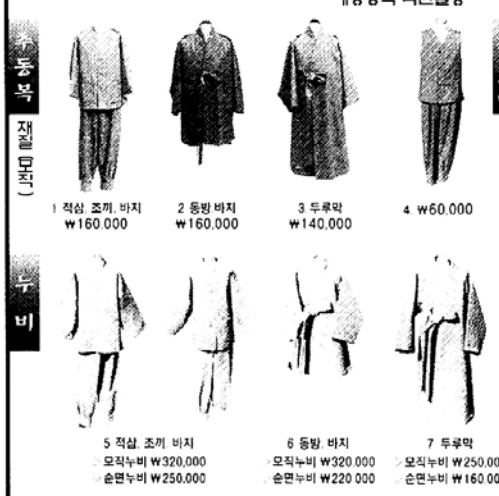
다이 100 ~~550,000~~ → 330,000

■ 실용신안등록증 제 0281998호
■ 의장등록증 제 0250258호 제 0250259호

제조원 : (주)림호산업 LIM HO INDUSTRIAL
판매원 : GE - 코리아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호 502호
전화 : (대) 02)475-6669 팩스 : 02)475-4356
http://www.onyok.com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동복 재질 (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8 서초 ₩50,000 (치마너형 라운드형) 바지 ₩60,000
서초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맞춤, 기사, 비빙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수족소장하여 늘 가장 고귀한 진품영품
신기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단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모시품 및 유시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이젠 知性입니다"

뵌 큰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나하나 깨달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불어 남도 함께
깨우쳐야 세상 구제

수行教雙修'를 얘기하는데, 법인스님은 그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학은 승가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불교이론이나 사상을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법한 길을 가기 위해 교학은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큰 스님들을 보세요. 단 하루도 경전을 읽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공부할 때는 선을 버리고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결심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사선입교'란 선을 아예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였다. 아니, 오히려 선을 제대로 하려면 교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 뒤에 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과 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하셨다. 부처님 마음이 선이요, 부처님 설법이 교이니, 어찌 선과 교가 다르겠느냐며 이 둘을 구분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다.

지금 법인스님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30년 전 동경에 명월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 30만 명이 넘는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을 교화했다.

스님의 계율관이 궁금했다.

"계율 계율 하는데, 도대체 계율이 뭡니까.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입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화합에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본분을 잊지 않고 명예욕과 물욕 없이 사는 스님에게 계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가 계율이지요."

법인스님은 지나치게 계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에 더 비중을 두셨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다.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碍'라고 써 보이셨다.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말이다. 스님께서는 이 말에 담긴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광대무변해서 대자비심으로 실천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안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법인스님.

대웅보전 앞까지 나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시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시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청동대불 앞에 섰다. 산 아래를 굽어보며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 얼굴이 법인스님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하심 '철저'…불교계선 '신지식인'으로 통해

법인스님은?

교학과 포교를 빼놓고 법인스님을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자이자 포교사다. 그러나 스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힘이 바로 깊은 수행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다른 스님들과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신도들에게 매우 자상하다는 것이다. 신도들에게는 친구이자 도반이다. 오히려 신도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스님의 하심은 정평이 나있다.

훌륭한 상좌들을 많이 둔 것도 눈에 띈다. 불교화자로 명성이 높은 호진스님(전 동국대 교수)과 실천승가회 의장인 청화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스님 7~8명이 모두 법인스님 밑에서 공부했다.

상좌인 각원사 총무 대원스님은 스승을 이렇게 말한다. "불교계에서는 '신지식인'으로 통하시죠. 불교가 이 시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시죠."

법인스님은 1931년 경남 충무에서 출생해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윤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산 해인대학과 동국대 사학과,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동국대 철학과를 수료한 뒤 일본 대동문화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를 졸업했다. 1975년 각원사와 명월사를 창건했으며, 85년 평화통일문화협의회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영수스님



덕숭산 수덕사에는 동진출가 스님들이 많다. 조선말과 일제의 암울한 역사속에서 등장한 경허라는 걸출한 선사스님은 조선 5백년의 불교핍박으로 쇠퇴해가던 우리 불교를 선수행과 깨달음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켰고, 경허스님의 전법제자 만공스님은 덕숭총림 선원인 정혜사에 머물며 지금의 선방수행의 틀을 확립하여 수덕사를 근대한국 선불교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경허, 만공 스님 두 분 선사께서도 어릴 때 출가해 계를 받은 동진출가승이고, 그 영향인지 만공스님을 직접 시봉했던 지금의 방장스님과 그 아래로 수좌스님 등 현재까지 수덕사에는 10대 동진출가의 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아들인 라훌라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동진출가는 역사속에서 수많은 선지식과 큰스님들을 탄생시키며 전승되어온 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수덕사의 많은 동진스님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스님이 지운스님이다. 지운스님은 법명보다 '영수스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익어져 법명을 부르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형편이다.



출가를 위하여 수덕사에 도착하여 입산의 허락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갔을 때 영수스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인생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고 심각한 고민 끝에 출가를 단행한 입장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출가의 뜻을 밝히려는데 미쳐 말도 꺼내기 전에 "아~ 입산하려고, 그래, 행자실로 가도록 하지." 짧은 말로 수덕사 입산의 절차를 마쳐버렸다.

담백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영수스님은 흔히 '수덕사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20대 청년시절에는 절에 와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무례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지금도 인근 사람들에게는 '수덕사 지킴이'로 기억될 정도로 괄괄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이유는 계를 받은 이후 수덕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노스님들 시봉을 시작으로 지금의 수덕사 대 소사 모든 곳에 영수스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말사 주지 한번 나가지 않고 오로지 수덕사에만 살아온 스님은 수덕사의 스님들과 덕숭산 구석구석에 관계된 작은 일이라도 모르는 일이 없다. 영수스님은 어려서 노스님들 앞에서 무릎꿇고 배운 의식과 염불이 아주 빼어난 수준이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간혹 후배들의 예법이나 염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나치는 결에 잠시 한마디씩 일러줄 뿐 자리를 만들어 청하려 하면 결코 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살아오며 배운 방법이 그런 틀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리를 갖추는 것 자체가 상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출가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고 모양내는 것을 경계하여 가끔 면박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말에 미움을 담는 일은 없다.

영수스님은 수덕사를 떠난 적이 없는 까닭에 강원이나 대학공부를 한 경험이 없지만, 당신의 후배나 상좌들에게는 시대에 따른 공부와 활동을 부족함 없이 지원한다.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떠난 상좌에게 꾸준히 학비를 보내고, 군에서 법사로 있는 시봉에게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면 그만큼 유혹과 번잡함이 많아 '중노릇'하기 어렵다는 노스님들의 가르침에 수덕사 산문 밖을 떠나보지 않은 자신의 삶에 회의나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요구 속에서의 '중노릇'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까닭에서 이다.

담백·직선적… '수덕사 터줏대감'
다비장 준비·진행 항시 도맡아

큰 절에는 대중이 많이 사는 까닭에 일년에 몇 차례씩 다비식이 있게 된다. 다비는 스님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중 하나다. 수덕사는 특히 '여승'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견성암 선원이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도량이라 비구니 스님의 다비식이 자주 있곤 한다. 그래서 늘 다비장을 깨끗이 가꾸고 다비에 필요한 화목을 준비해 놓는데, 다비장의 모든 준비와 진행은 언제부터인가 영수스님의 몫으로 굳어졌다. 절과 마을의 일꾼들이 다비식을 준비하고 돕지만 스님들의 가는 길은 스님들이 맡아서 준비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려 하지 않는 힘든 일을 직접 팔을 걷어붙여 나무를 쌓고 청솔가지를 덮어 스님들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수십년 세월동안 보고 익히며 쌓아온 경험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다비식을 이끌어 가고, 절도 있고 숙련된 진행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각 본사마다 각각의 전통에 따른 다비식이 있지만 수덕사의 다비식이 그중 간결하고 깔끔하며 시간적으로도 가장 신속하다는 평을 듣는 이유는 덕숭산의 가풍이 담박한 이유도 있지만 영수스님이 늘 다비장을 지키는 까닭이다. 그래서 덕숭산 노스님들에게 영수스님은 다비를 맡아줄 든든한 배경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주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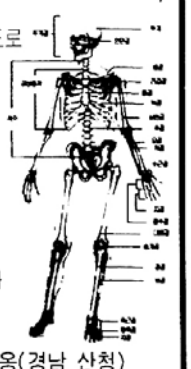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안상수씨가 현대적인 문자체로 디자인한 '광덕 스님의 임종게'

◇이호신씨가 한지에 그린 수묵담채 '금하당 광덕대선사 진영'

광덕스님, 그림 · 조각으로 '환생'

도피안사 개산조…원적 3주년 추모전

22일부터 불일미술관서

"전법으로 보리를 이루라."

다지막 순간까지 전법의 사명을 강조했던 금하당(金河堂) 광덕(光德) 스님이 원적 3년여만에 서울에서 환생한다. 수묵으로, 유화로, 사진으로 그리고 조각과 도자기로 환생해 무언의 장광설을 펼친다.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광덕스님 원적 3주년 추모 전시회 '환생',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아로새긴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모두 5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제1장의 주제는 '아, 광덕스님',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그린 광덕스님의 진영과 안상수씨의 한글 주련 등을 통해 스님의 평생 원력을 다시 살리게 한다. 제2장은 '환생의 땅'을 주제로 삼고 있다. 관조스님과 박하선씨를 비롯한 사진 작가들이 티베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강렬한 환생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제3장의 주제는 '기원'이다. 강대형의 조각 작품과 김기철의 도자기를 통해 광덕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모든 작품이 환생이라는 공통된 주제의식 아래 제작됐다.

이번 전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제4장은 '시봉일기'다. 광덕스님의 수행 일화와 전법의 열정을 이규경씨가 파스텔화로 표현했다. 찬찬히 그림을 감상하다보면 광덕스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광덕 스님의 생전 모습이 따스하게 그려져 있다. 마지막 주제는 '스님, 어서 오시지요'. 화가 최홍원씨의 유화 작품과 김철현씨의 사진으로 꾸며진다.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 도량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광덕스님이 개산한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스님이 마련했다.

스님 가르침 새긴 작품을 5가지 테마로 한자리에

수행일화 그린 파스텔화 우리곁으로 성큼 걸어오듯

"바라밀운동으로 신행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했고 출판과 문화운동, 거사불교의 활성화 등 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광덕스님의 진면목을 다시 느끼며 환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란 설명이다. 전시되는 작품을 일체 판매하지 않고 도피안사에 세워질 광덕스님 기념관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송암스님은 은사인 광덕스님의 입적 이후 산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천일 기도를 하며 광덕스님의 유지를 현창하는 데 몰두했다. '시봉일기' 시리즈로 7권의 책을 출간했고 지난해에는 금하효행상을 제정해 안성지역의 효심 가꾸기를 이끌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m@buddhapia.com

불화가 박정자씨 '사불교본' 출간

불보살 등 60여 가지 소개

불보살의 형상을 그리는 사람을 '불모(佛母)'라고 한다. 하지만 불모가 되기 위한 필력을 익히려면 탱화초를 수천장 그려봐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경을 하듯이 한 장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붓을 들지 못한다.

최근 불화가 박정자씨가 펴낸 두 권의 〈사불(寫佛)교본〉(한국전통불화연구원刊)은 그림에 자신이 없는 불자들도 쉽게 불보살을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초(草)를 모아 놓았다. 신문 크기의 〈사불 교본〉에는 관세음보살, 53불, 탱화정초,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등 불보살과 경전내용이 6개 장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의 종류도 6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또 각 불보살의 내용도 자세히 설명돼 있어 사불하기 전에 의미를 돼새겨 볼 수 있다.

"선 그을 땐 숨멈추고 부처님 상호로 마무리"



◇사불초본 작업을 하고 있는 박정자 보살.

박정자씨는 "그리고자 하는 원초를 한 장 복사해 바닥에 고정시킨 후 화선지의 매끄러운 면이 위로 가도록 덮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된다"며 "선을 그을 때는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좋으며, 부처님의 상호는 맨마지막에 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박씨는 "어느정도 실력이 생기면 두꺼운 천이나 종이에 사불한 후 물감과 크레파스로 탱화 도록을 보고 채색하면 한 점의 탱화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061)333-4472

김주일기자 jkmi@buddhapia.com

영국 불자 팝페라 가수 이지 2집앨범 '새로운 새벽' 출시

"날마다 독경·명상할 정도로 불심 깊어"



◇불교문화가 발달한 한국을 정신적 고향이라 생각한다는 이지(IZZY)의 2집 앨범 '새로운 새벽'의 재킷.

정통 오페라에 팝을 결들인 '팝페라'라는 장르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국의 소프라노 가수 이지(27 본명 이소벨 쿠퍼)가 2집 앨범 '새로운 새벽(New Dawn, EMI)'을 출시했다.

지난 8월 1집 음반 '아스콜타' 홍보차 내한한 그는 "가족이 모두 불교신자이며 혈통적인 특성 때문에 동양에는 친척이 없지만 불심이 깊고 불교문화가 발달한 한국을 종교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교를 접하고 공부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이지의 음악은 다른 클래식 가수와는 차이가 있다. 그녀의 음악은 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상이나 선(禪)적인 스타일이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중 '울게하소서', 도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중 '편지의 이중창', 아일랜드 민요 '수오간', 포레의 '파반' 등 14곡이 수록돼 있는 이번 음반도 이지만의 독특한 팝페라 스타일로 편곡해서 불러 명상음악의 분위기가 풍겨난다.

지난 8월 내한 일정에 동행한 음반제작사 이동은 씨에 따르면 "이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경전을 읽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불심이 깊다"며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지는 영국에서 13세소녀의 골수 이식 자선공연을 열었다.

영국 명문 길드홀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다 팝페라에 눈을 돌린 후 뮤지컬 대형 가수 사라브라이트만의 뒤를 잇는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지는 28일 2집 앨범 홍보차 한국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또 31일에는 남산 하얏트 호텔 1층 리젠시룸에서 특별 관객 초청 소규모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기자

이도다완 재현… '하동 찻사발展'

길성씨, 하동태토 · 매화피 비밀찾기



◇잔설(殘雪)의 아릿한 흔적과 잔잔한 물결 이미지가 찻잔 속에 녹아 있는 길성 씨의 '하동 찻사발'

차완의 으뜸으로 여겨지는 '이도다완' 재현에 앞장서 온 도예가 길성(57)씨가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구 갤러리 코리아에서 불교TV의 초청으로 '하동 찻 사발展'을 연다.

이번에 전시되는 길성씨의 찻잔은 다른 찻잔과 확연히 구분된다. 하동 찻 사발은 '매화피(유약이 묻은 볼흙이 구워지며 터져 악어 껍질처럼 갈라지는 현상)'와 함께 굽 바닥의 태토가 시간이 지날수록 끼맣게 변색되면서 스펀지 같은 부드러움과 순박한 느낌을 준다. 일본 다도를 완성한 오모테 센케 가문의 히사다 쇼야시씨가 길성의 찻잔을 보고 '내가 이것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라고 극찬했을 정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딸 길기정씨와 함께 만든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조선막사발 천년의 비밀' 저자인 작가 정동주씨는 "이도다완이 4백여년만에 재현돼 우리들 앞에 그 어여쁜 자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02)774-1366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W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요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본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 · 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 (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장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애견카페 'DOG'(경기도 고양시)를 찾은 사람들이 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임민수 기자

애완견 호사 실화 같지 않은 실화

유치원에서 전용카페까지…전국에 250만마리

고깔모자 쓰고 생일파티·휴가는 콘도서
시장규모 연 1조원 추정…유망사업 평가
늙고 병들면 '성가시다' 주인들 길에 버려
"새로운 문화현상" "문제점 많다" 팽팽

첨마다 예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간식을 먹고 생일이면 고깔모자를 쓰고 파티도 연다. '부모(?)'가 출장을 갈 때면 호텔에 묵고 휴가철이면 콘도로 피서를 가기도 한다.

부잣집 자녀가 아니라 '부잣집 애견'들의 이야기다.

애견 250만 마리, 애견산업 1조원의 시대(한국애견협회 추산). 가히 애견열풍이라 할 만하다. 때맞춰 먹을 것을 주고 적당히 운동시켜주는 것으로 그쳤던 애견사랑 또한 애견카페, 패션전문점, 전문사진관, 장례식장 등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이미 전국에 20여 곳이 넘는 애견카페가 있고 지난 6월에는 강아지 유치원 '프티페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문을 열었다.

사람과 개가 함께 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행처럼 개를 키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3년째 요크셔테리아를 키우고 있는 김민아(27) 씨는 개를 키우는 첫번째 이유로 '변함없는 사랑'을 든다.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사실 사람들에게선 말 한마디로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는 언제나 변치 않는 애정과 충성심을 보여주거든요."

동물을 키움으로써 성격이 밝아지고, 애견의 끼니를 챙겨주고 목욕을 시켜주면서 책임감이 생기기도 한다. 대학생 안현주(24)씨는 "1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며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책임감과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자폐증 어린이, 치매 노인,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어완견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시가 잡아들인 떠돌이 개는 2227마리. 이 중 절반이 넘는 1293마리가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거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안락사 당했다. 떠돌이 개의 대부분은 늙고 병들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뒤치다꺼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 받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 없이 아이들의 성화로 혹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화려하고 귀여운 모습에 끌려 충동적으로 개를 구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불편도 만만치 않다. 음식점에 개를 데리고 가 불쾌감을 주거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에 개의 배설물을 방치해 위생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 목줄을 매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개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점점 호사스러워지는 애견문화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도 많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점심을 거르는 청소년들도 아직 많은데, 300~400만원 짜리 애완견을 기르는 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이 바로 그것이다. 애견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영지 씨는 "누가 더 비싼 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멋지게 꾸미는지로 자신의 신분이나 취향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인간소외를 낳는다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국애견협회 최지용 기획이사는 "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집안 구조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애견을 길러야 한다"며 "개를 한 생명으로서 평생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애완동물모임인 '동물은 내친구'는 '기생충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한다', '외출할 때는 삽과 일회용 비닐봉투를 휴대하고 배설물은 지정한 곳에 버린다',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짖거나 힘부로 행동하지 않게 훈련시킨다' 등 주위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완동물의 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현상만으로 볼 때 가족화한 개 키우기는 이제 일종의 문화현상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작용 또한 크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애견 문화'를 발아들이기 힘든 문화 또한 엄존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애견 문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험 중인 문화인지도 모르겠다.

<불교와 개>

부처님의 10대 제자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는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처님께 간청해 구해내지만, 어머니는 무거운 업장으로 개로 환생하게 된다. 목련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칠월 보름날 우란분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가에서는 출 재가를 막론하고 개고기를 먹는 일을 금기시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애완동물 정서적 고립감 메워줘"

전문가 의견

애완동물 열풍은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를 배경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만큼 정을 그리워하고 친구 같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과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이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윤인진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정서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애완견 열풍을 설명한 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2~3년 사이 미디어 매체들이 앞다투어 동물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일반인들이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엄기동 교수(경북대 수의학과)는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애완동물'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심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화 뽀삐 최근 애견문화 단면 그려

〈뽀삐〉는 최근의 애견 문화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뽀삐〉는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 뽀삐가 죽자 애완견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수현(백현진)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강아지를 기르는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비구니 스님 불교방송에서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는 진명 스님이 연기했다. 은 마당에서 키우는 진돗개 '자비'가 수행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며 생식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애견센터에서 산 미니어처 슈나이저가 한 달 동안 병치레만 하다가 죽어버리자 보상을 해 달라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이렇듯 영화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영화 〈뽀삐〉를 만든 김지현(34) 감독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영화학교인 ESEC에서 연출 수업을 받았다. 〈웃음〉, 〈연애에 관하여〉, 〈바다가 육지라면〉 등의 디지털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건강단신

조선족 동포 등 무료 검진

서울시 영등포구 '국경 없는 의료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구 보건소 1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02) 2630-0323

대장암치료법 강좌 개최

원자력의학원 대장항문종양외과팀은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에서 대장암치료법 등에 대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국민대 박경순 교수가 한다. (02)974-2501

유방암 상담센터 개소

서울대병원은 유방절제술 후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방암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유방암 전문 외과의, 종양 내과의, 상담전문가, 재활운동전문가, 환자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방수술 후 회복운동 및 영양관리법,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간호실무교육실 102호에서 진행된다.(02)743-4674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늙은호박전



늙은호박 1/4개, 밀가루 1/2컵, 식용유, 소금 약간

1. 늙은호박은 겉을 닦고 껍질을 벗겨 샛노란 속살은 그대로 둔 채 씨만 털어낸다. 샛노란 속살은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다른 부위는 채칼로 썰어 다진 후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 살짝 절인다.

2. 호박에 물이 생기면 밀가루를 넣어 되직하게 반죽한다. 쌀가루나 찹쌀가루를 넣어도 된다. 호박의 단맛이 너무 강하면 부쳤을 때 질어지기 때문에 밀가루를 조금 넉넉히 넣어 되게 반죽한다. 전을 한두 개 부치면서 반죽의 정도를 가늠하도록 한다.

3.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조금씩 떠놓아 전을 부친다. 호박전은 얇아야 노르스름한 색도 살고 모양도 예쁘다. 부칠 때는 전의 끄트머리를 누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눌러가며 부쳐야 예쁘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천수경·반야심경 등 어디서나 청취

디지털 불경 룸비니



'디지털 불경 룸비니'는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회엄경약찬게, 금강경, 법성게가 녹음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 있는 재생기다.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다. 이어폰 증정. 값 3만5천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曉史塾」 제 4기 강의 안내

◆ 강의시작 : 2002년 12월 6일(금요일) 오후 5시 부터 매주 4시간씩
◆ 등록마감 : 2002년 11월 30일까지
◆ 등록비용 : 일백오십만원(카드결제 가능 : 효사육임강의록 교재 포함)
◆ 기 간 : 3개월 13주 52시간

정통 육임강의 제4기를 모집합니다.

3개월 공부를 마치면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 육임학회에서 시행하는 「육임고시」를 치른 후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회원으로 영입된 후 정통 육임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육임은,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정단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육임학당 강주 효 사 배상

각지역 강의안내

육임학당 광주숙 제2기 ● 개강 - 11월 25일 ● 전화 : 011)9606-7090
육임학당 대전숙 제2기 ● 개강 - 11월 26일 ● 전화 : 016)445-4580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 개강 - 11월 27일 ● 전화 : 011)729-6011
육임학당 복경숙 제2기 ● 개강 - 11월 30일 ● 전화 : 02)3446-4118
육임학당 일경숙 제2기 ● 개강 - 12월 3일 ● 전화 : 02)2203-4805

육임학당 曉史塾 직통 02 - 996 -3335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쌉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쌉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생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식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굿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물어옵니다.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묻는데 기도 치성만 하라고 해서 속시원한 해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대답해 주어야만 세태 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사법(邪法)이 아니라 아만공고(我慢供高)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가 안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9일 동작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환경사랑 알뜰 요리대회' 참가자들이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상추국 만들기

◆재료

된장 1큰술, 고추장 1/2큰술, 멸치국물 3컵, 상추, 다진 마늘 1작은술, 대파,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상추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끓는 멸치국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넣어 끓인다.

3.국물이 끓으면 상추와 다진 마늘, 어슷 썬 대파를 넣고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환경사랑 알뜰요리대회

찬밥·명절 제사때 남은 음식 걱정마세요

어렵잖은 '화려한 변신'

버리기쉬운 상추로 끓인 국 '알뜰대상'

음식쓰레기 줄이고 영양 고루…친환경식단

넝장고를 열어보자.

아이들이 먹고 남긴 찬밥, 명절에 만들었던 송편, 조금씩 남은 야채들…. 냉장고에 며칠씩 묵히다 결국 버리게 되는 음식물을 맛있는 요리로 바꿔보는 '환경사랑 알뜰 요리대회'가 9일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렸다.

"나물과 돼지고기 다진 것을 찬밥으로 말아 튀김옷을 입혀 튀겨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로켓이 됩니다. 아이들이 평소 잘 먹지 않던 나물도 먹게 되니 일석이조죠."

'찬밥 고기말이'를 만든 임병준 학생(한국관광대학 호텔조리과 2)은 "실기 수업을 하고 남은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다가 개발하게 됐다"고 말한다.

묵은 신김치로 만든 '김치전병'을 출품한 황종탁 씨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프로 요리사'. 다진 김치와 양파에 계란 반죽한 다음 밀전병 위에 올려 구우면 된다.

찬밥은 근사한 샌드위치로 변신했다. 길미경 주부가 선보인 '찬밥 샌드위치'는 밑바닥을 자른 종이컵 속에 밥과 버섯볶음, 나물, 김치 등을 번갈아 쌓으면 된다. 이 밖에도 경단 대신 인절미를 넣은 호박죽, 송편을 튀겨내 물엿에 버무린 강정, 채 썬 자투리 야채를 얇게 자른 식빵으로 싸서 구워낸 식빵 야채말이 등 16가지 요리가 선보였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 주관한 이날 대회의 알뜰대상에는 양성자(50) 주부의 '상추국'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 강혜순 씨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기 쉬운 상추를 이용해 국을 끓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또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상추의 부드러운 맛을 잘 살려 개운하게 끓여내 대상에 선정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양성자 주부는 "제사나 명절 때 남은 음식이 있으면 시장에 멀 가고 어떻게든 요리해 보려고 애쓴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천주 회장은 "친환경적인 식단이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불필요한 음식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주부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간 400만톤 씩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한 황혼

◆무료 한방진료=서울 성북구 보건소는 성북구 한의사회와 함께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질병 상담 후 뜸, 침, 한약처방 등 간단한 치료도 해준다. 22일 성북구청 별관 2층.(02)940-2436~7

◆무료 진료=선재마을의료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서울 봉은사 지하식당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다.(019)315-1972

◆한경 실버 페어=한국경제신문사는 노후 생활준비를 돕기 위한 '제1회 한경 실버 페어(Silver fair)'를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한다. 노인 전용주택, 의료 및 생활보조 기기는 물론 노후 대비 금융상품 등 노인 관련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02)360-4516

◆동절기 실내운동 대상자 모집=서울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용시간은 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02)804-4058

◆신장교실=중앙대학교 의료원은 22일 오후 1시 구관 4층 강의실에서 신장내과 류석희, 오동진 교수가 진행하는 '신장교실'을 연다.(02)748-9644

엄마의 마음을 목도리에 담아보세요

행복쪽지

입성 남루했던 시절, 이맘때면 우리네 어머니들은 틈틈이 긴 대바늘과 털실을 가지고 바지나 목도리를 만들곤 했다.

그것들 대부분은 작아져서 뜻 입게 된 형이나 언니의 스웨터를 풀어서 만든 것들이었다. 모양이 매끄러울 리 없다. 몸에 맞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 입겠다는 아이와 싸우다시피 그것을 입히곤 했다.

길게 잡아도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겨울을 났다. 그래도 아이들은 깜깜해질 때까지 골목을 누비고 다녔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다.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모든 것이 부족했으면서도 초라하지는 않았던 그 시절. 김치전 하나라도 담장 너머로 나누던 인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균적 풍요도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정신적 결핍 상태에서는 어떠한 물질적 풍요도 충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엄마가 짜준 털목도리가 그리운 때다. 누구에겐가 목도리 하나쯤 선물해 보자.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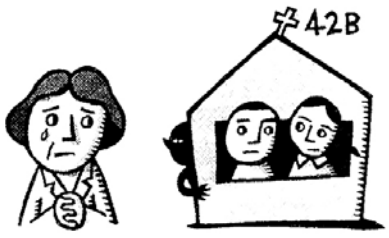
내 딸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40대 초반의 한 부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인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수입으로 딸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소녀시절에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부인은 딸이라도 화가가 되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고싶어 열심히 그림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딸 역시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초등학교때부터 다니는 미술학원을 지금도 싫증내지 않고 잘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집안에 남편이 없는 것만 빼고는 별로 문제될게 없는 부인은 딸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꽃집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꽃집에 나가있으면 남편이 없는 외로움도 많이 극복됐습니다. 그런 부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딸에게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부인은 딸의 일기장을 뒤져보다가 사이비종교에 빠져있음을 알았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부인은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듯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 놓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신적 방황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인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며칠을 몸져누워서 앓았다고 합니다.

부인한테서 들은 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부인의 딸은 미술학원에서 한 남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빛이 맑은 남학생은 우주와 영혼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남학생이 부인의 딸에겐 무척 신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학생이 들려주는 미래세계는 너무도 황홀해서 딸은 자신이 가야할 세계는 바로 그 세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 부모까지 나가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명칭만 쓸 뿐 일반적인 교회와는 교리자체가 완전히 달라,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머지않아 종말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지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질서는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건설되는데, 그 때가 되면 자신들이 새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라다이스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물들여졌던 가치체계를 완전히 떨쳐내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회에 나와 자신들의 교리를 공부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학생과 그의 가족이 믿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인 부인의 딸은, 기성의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학교공부는 물론 대학진학까지도 포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고 있는 부인의 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지요. 부인은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함께 깊은 허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난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부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전쟁과 기근 질병이 돌고, 악덕이 판을 치고, 인륜도덕이 파괴되고 인간이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릇된 사상이 판을 치고, 인간이 명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을 오탁악세라고 하셨습니다.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언젠들 오탁악세가 아닐까마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야 말로 오탁악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감 속에서 살아 갈 의욕을 잃고 있는 부인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제자리로 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일이 힘드시겠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제자리로 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가장 힘든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은가!

化緣 (02)704-3577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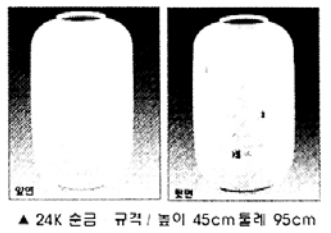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열반하신후 몸체에서 남은 사리가 봉안된 순금 사리백자이며 순금으로 새겨진 천수경과 함께 모셔두면 불자님들의 모든 업장소멸과 함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자비로서 가정의 편안함과 온갖 재앙과 악업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으며 특히 도자기 안쪽에 새겨진 5개(재수부, 건강부, 소원성취부, 금전운부, 사업번영부)의 부적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며 소원성취를 이룰수 있는 영험한 천수경 도자기다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안쪽 밑면에 봉안된 부처님의 사리를 불자님들께서 직접 친견함으로서 몇겹의 무명 속에서 헤메이던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와 부처님의 한량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안쪽에 봉안된 부처님의 사리상(舍利像)



▲ 24K 순금 규격 / 높이 45cm 둘레 95cm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작품 보급가 ▶ ~~W328,000~~ → 230,000원

※ 은행신용카드 사용시 6~12개월 분할

반야사 / 불교문화연구원
TEL 051)583-7774(代)

※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심을 기원드리기위해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작품을 충분히 확인, 검토후 한달(15일)이내 대금지불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 수행과정으로 생각하면 남의 탓 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 자세

문 스님,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하여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하면서 물 흐르는 것처럼, 조금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 거기에 얽매이는 느낌도 들고 몸도 따라 주지 않아서 힘들고, 반대로 그냥 놓으면서 힘닿는 대로만 살려고 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항상 반대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아직 주인공 공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되야 겨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외국지원에 계시는 신도들이 절박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절박한 만큼 간절하게 관해 봐!"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해결되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럽니다.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내 전깃줄은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과 내 마음의 전깃줄을 같이 합쳐졌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낫게 한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들을 믿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진실한 자기를 믿어야죠.

이런 고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싹은 열심히 뛰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라구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서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도리입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왜인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원이면 회사원, 장사면 장사 이렇게 제각금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소임에 따라서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 먹고 굶주린다고 해서 나의 자부처를 탁탁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남을 못살게 해서 지금 못사는 거니까 그 뜻을 아시고 '그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탓이다. 수행해서 이걸 다 녹이리라.'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 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거니와 조금도 허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주인공에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은 거기서 보디가 드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다구요. 해결사가 돼 준다고 해서 잔뜩 잘못해 놓은 거를 금새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다 녹이고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잘못한 거는 중생이 한 거고 잘한 거는 자기 자부처가 한 거니까, 허허허….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함께 도반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나간다면 요다음 생에 어떠한 차원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낳아 놓은 자식들도 염주알 꿰지듯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잘해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따로 있고 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생이 되고 현생이 됩니다. 그러니 거리가 멀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몰아서 한도량에 한 마음으로 넣고,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결산을 본다면 크게 이룰 겁니다, 아마. 허공에 꽃이 피어서 그냥 비 내리듯 말입니다.

모든 번뇌 여의고
맑고 청정한 마음 생겨나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며
육진의 도적 잘 막아내고
육근작용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

죄와 업을 녹이는 도리

문 저는 사회에 그릇된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 중 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기며 무사히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돌아오고 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죄가 많고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남들처럼 쉽게 일어서지를 못하는구나!" 하며 자책 아닌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감시절 항상 수지독송했던 뜻으로 푼 천수경에는 "죄는 본래 자성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일 없어지면 죄업 또한 스러지네. 죄와 망심 모두 놓아 마음 모두 공하여야 이를 일러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네."라고 쓰여 있던데, 저처럼 죄와 업이 많아서 저를 도와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저의 근본자리에 맡겨놓기만 하면 죄와 업이 녹아지고, 장애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해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 만법이 나한테 부딪치고 돌아가는데 내가 공한 도리를 안다면, 내가 공했는데 업보가 어디에 붙나요? 상대도 공했고 나도 공했는데 어디에 업보가 붙고 인과가 붙느냐 이겁니다. 간단히 비유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걸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를 붙이지 말아라. 왜? 전생에 살던 습성을 내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고 본성은 전생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구태여 왜 그거를 업보다, 인과다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는 무슨 조상의 탓을 하질 않나, 또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식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물들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걸 관하고 놓으면은 그 반면에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깐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업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업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만 성장하는 수행 과정이지 업보가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잘 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가 모르니까 불어닥치는 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지, 모든 걸 수행 과정으로 알면 힘이 들지 않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아마도 사형선고를 받고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슨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맡기고 놓아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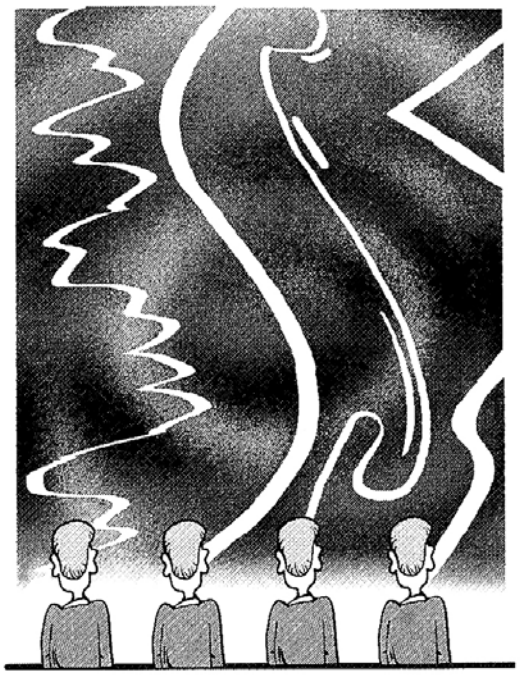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활 속에서 도를 이루는 과정

문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스님들께서는 진리를 깨치기 위하여 몇 년씩 토굴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수도를 하신다는데 그런 과정을 책으로 보면서 일반 중생이 이 복잡하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살면서 이생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두렵고, 도를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스님이 되어야 이생에 득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승들의 득도 과정을 보면 실로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세계로 보입니다. 근기의 문제이고 업의 문제이겠지만, 일반 중생도 견성을 하여 확철대오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가능한지요. 또 그것이 어렵다면 생활을 떠나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답 세속에서 공부를 한다 출가를 해서 승(僧)으로서 공부를 한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근본을 계발하고 발견하려면 주인공 자리를 항시도 놓치지 말고 일체를 그 주처에서 한다는 것을, 또 주처에서 들이고 낸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관을 통해서 주처에서,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니까 몽땅 놔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놔버리라고 했지만, 일체를 놓아버리면서도 여여하게 살라고 한 거지 여여하게 살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공했으니까 자기까지도 놔버리라고 하는 거죠. 주처에서만이 움죽거리게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육체가 움죽거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몰락 놔버리라고 하는데 '몰락 놔버림을 받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처를 알려면은 주처와 지금 현재의 내가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생명, 유생 무생이 다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인연들도 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건질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물질로 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작용으로 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서 그것을 알고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서 들이고 내고 하는 데에 여여하게, 그대로 진실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진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배울 때는 진실하게 할 양으로 노력을 해야지 노력 없이 관해서는 안 됩니다. 관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장님이 지팡이 짚듯이 주인공을 잡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눈을 뜨게 되니 지팡이는 저절로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돼야 하지마는, 하여튼 잡은 거조차도 없다고 할 때까지 그 지팡이를 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면 아주 투철하게 해야만 되고, 고가 따라야 공부가 된다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먹었으면 이것도 놔버리고 저것을 먹었으면 저것도 다 놔 버려야해요. 빈 깡통 들고 애쓰지 말고, 앞으로 올 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고싶으면 먹고 목마르면 그냥 떠서 마시면 돼요. 그리곤 그냥 다 놔버려요. 하나하나 자기 주처에다 놔버리게 되면, 다 거기서 한다고 놔버리게 되면 톡톡한 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비의 칼이죠, 시퍼런 자비의 칼이 완벽하게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해서 이 도리를 깨우쳐야 내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 봐요. 이 세상에 눈 가지고 코 가지고 남과 같이 태어나서 왜 못해요? 누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래나요, 공부를 하지 말래나요, 돈을 벌지 말래나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말래나요, 나가 놀지를 말래나요. 다만 일체를 주처에서 한다는 걸 진짜로 믿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선(禪)이라는 자체는 내가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야, 급하니까 빨리 해야지 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빨리 성장이 되는 것이고 홀연히 깨우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빨리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자면서도 잔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보면서도 본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들으면서도 듣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말로 뒵고 다니면서도 다닌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 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홀연히 깨우칠 수 있는 직접적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나 보이지만 물이 흐리면 달은 숨어버리고 만다. 맑은 물을 따라 달이 오는 것이 아니고 흐린 물을 따라 달이 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지만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부처가 다른 곳에서 온 것도 아니요, 부처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다. 모든 번뇌를 여의고 마음이 고요하여 맑고 청정하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고 육진의 도적을 막아내고 육근의 작용이 걸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청산은 말이 없고 유수는 터가 없는데 자연과 같이 마음이 정중하여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써서 공부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뜻을 잘 음미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

업장소멸 자기 근본에 맡기는 길뿐

아, 내가 낳기 이전도 조상이요, 부모가 낳기 이전도 조상인데 아니, 조상이 돌이냐는 겁니다. 부처 낳기 이전도 조상이요, 다 조상인데…. 그런데도 조상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어느 부처가,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돼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 뒷면의 뜻을 보면, 잘못돼서 내가 죽게 되고 부모로 인해서 죽게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뜻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부모를 속썩이는 게 안타까워서 울어야 할 것인데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업보가 있다고 한다면 소멸이 안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나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몸 속의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습이 많아진 그 자체를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를 아무리 해도 참회한 것이 도로 없어지고 또 다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안의 근본에 맡겨놓아라.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일체를 내 안의 근본에 맡겨놓고 지극하게 믿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내 앞에 대로(大路)가 열릴 겁니다.

☞ 26면으로 계속

내가 한다는 생각 없어야

홀연히 깨칠 수 있는 지름길

제사는 조상 은덕 알게 하고 아래 자손 가르치기 위해 지내야

☞ 25면에서 계속

야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를 이룰 수 있는지 진실하게 생각해보시고, 내 근본을 지팡이 삼아 길 아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의정을 내려면

문 스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이제는 마음공부에 대해서 조금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이 다하기 전에 확철대오 하고픈 마음은 간절하나 그 마음마저 근본 자리에 돌려놓고 스님께서 설법하신 법어집과 테이프, 그리고 매주 나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스님께서 직접 설법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의정을 내어야 한다는 스님의 법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의정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하찮은 질문이다 여기지 마시고 가르침 주신다면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답 의정이라는 것은 못 믿고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들어가는데, 보이는 이 육신은 가아(假我)이고 진짜 자기는 깊은 내면 속에 들어 있다는 거를 알면 아는 대로 넘어서는 겁니다. 의정을 떠나서 넘어서는 거죠. 진짜 의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짜 자기와 가아 자기가 같이 만나서 공부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의정이 나오는 거죠. 무의 세계 광대무변한 거를 다 배우려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의정을 내겠다고 해서 내는 거는 무모하기가 짝이 없고 내가 줄을 잡아타고서, 즉 말하자면 소 고삐를 잡고 피리를 불 때 그 피리소리가 얼마만치 가는지 되돌아오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먹지도 못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엉금엉금 물 흐르는 데 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배우는 일이죠. 나의 줄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그 물을 허덕거리면서 세 모금을 마시고 났는데 문뜩 생각이 나기를 '그 세 모금은 그대로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데 그거는 뭐 대의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 모금을 먹었어도 한 모금을 세 모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느니라, 아홉 모금이 세 모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모금이 한 모금도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정이 있는 거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정이 있는 거죠. 순간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나투는 방법과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하나뿐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분자로 화해가지고 입자로 화해서 보살로서의 응신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나툴 때 그렇게 의정이 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의정을 낼 게 하나도 없이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 대문을 탁 치고, 있다면 대답하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맡기고 말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애들이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에 무조건 걷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팔딱팔딱 뛰어가죠. 근데 반드시 애들 앞에는 어른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성부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생기면 무조건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낭떠러지가 없는 데로 데려다 놓는 거죠.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는 대문 없는 대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꼭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정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화엄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부처님의 곳처는 어디에다 두었는가. 또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을 어디에다가 이름을 뒀는가,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한 건지 저렇게 한 건지 봐도 모를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심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글을 떠나서 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떠나지 않고 그 뜻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몇 자가 더 적어진 곳이 있어요.

「한마음요전」이나 「허공을 걷는 길」도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해 놓은 것을 편집한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비디오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현대불교 신문도 있으니까, 근데 죽은 글이 있는가 하면 산 글이 있어요. 살아있는 글에서는 샘물이 나오지만 죽은 글에서는 샘물이 나오지를 않죠. 아무리 읽어도 물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만 편집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무한량으로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증득하기를 바래요. 이건 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고 개별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포괄된 여래의 법이므로 나는 입만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넓게 펼쳐 나가도록 하세요. 아무리 광대한 법이라고 해도 적은 그릇에다 자꾸 퍼부어 봤자 흐르기만 할 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선적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면서 바다를 집어삼킬 수 있게끔 열심히 해나가세요.

제사 꼭 지내야 하는지?

문 조상님의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저의 큰 형님은 교회를 가니까 제사를 소홀히 하고, 둘째 형님네 부부는 사네 마네 하고 있고, 누나들은 세 째인 저한테 제사를 모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면목이 서지 않아서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괜찮던데 꼭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요?

답 우리 신도님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주 떡하고 과일 세 가지, 향과 초를 켜고 흰 꽃과 큰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지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래 자손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교훈도 되고,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삼혼묘묘귀하처(三魂杳杳歸何處)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괘씸한 놈'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아마 휘적휘적 갈 거예요.



그림 · 최주현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자기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단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사람이 권리가 주어지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잊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타파가 되도록 아들의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꼭 어느 날짜만 되면은 꿈에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사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제사 밥을 먹고 오는데, 그 집에는 하얗게 머리가 센 노파가 앉아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기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바로 너를 낳아주신 전생에서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찾아서, 몇 해를 두고 항상 다녔으니까 그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사 상을 차려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현생의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현생의 어머니와 함께 두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답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그 밑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은 집에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과거의 어머니로서 그 자식의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가 주신 이 모습을 아주 은혜롭게 항상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시면 제사 잘 지내느냐는 말도 하고 천도재는 지냈느냐, 얽히고 설킨 거를 다 편안하게 활연하시게 했느냐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네는 한 쪽은 기독교를 믿고 한 쪽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식구는 한 사람이고 기독교 믿는 식구는 여러 사람이 되니까 우겨서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대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어디다가 몸을 의지하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한 거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도님네는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들이 추도식을 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막내 아드님한테 따라오셨더라고요. 거길 안 가고, 참 이거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다 끝내고서 돌아서서 나갈 때 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 몸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들이 못 지내는 형편이면 지낼 수 있는 자식이 소박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내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삼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업의사(한의사) 방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숙,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혈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 [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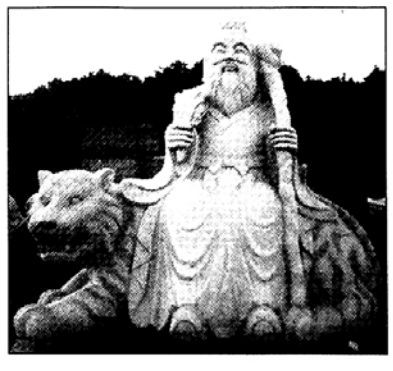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인터넷 포교사 양성 시급

붓다뉴스 설문조사 95.4% 필요성 느껴

정보매체 운영·수행지도 능력 갖춰야



인터넷을 통해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 포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교사란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세계인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네티즌들에게 불교를 홍포하거나, 동호회 등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포교에 전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상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특성상 인터넷 포교사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된다. 정보매체와 기술을 운영할 능력과 불교관련 지식 및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 그래야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검증안된 불교정보를 올바르게 고쳐 네티즌들에게 전달해 주고 사이버 훼불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네티즌들에게 신행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제시하고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단이나 불교정보화협의회와 같은 공익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된 인터넷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진행된 네티즌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7명가운데 83명(95.4%)이 인터넷 포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포교사를 전문 양성기관에서 배출해야한다는 의견이 49명으로 57%에 달했고, 22명(26%)이 종단이 시험후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총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종교도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교와 정보매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인터넷 포교사를 양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며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디지털·영상 콘텐츠 불교소재 눈길

지난 6~8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츠 국제전시회에서 카르마엔터테인먼트, 앤캐릭엔터테인먼트, 코리아루트의 부스는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카르마엔터테인먼트사(대표이사 하윤환)는 회사 창간 맴버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고 의도적으로 업이라는 산스크리트어인 카르마를 회사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은 기업. 그동안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작, 캐릭터 머천다이징, 인터넷 방송 등을 사업분야로 하는 멀티미디어 종합 콘텐츠 생산에 주력했다.

카르마 엔터테인먼트-전통응용 캐릭터 개발

앤캐릭 엔터테인먼트-선 애니메이션 선뵈

코리아 루트-사찰소리 디지털화 기획

앤캐릭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이양우)는 '몽푸 몽키 젠'이라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몽푸 몽키 젠'은 부모를 잃고 분노에 빠질 뻔했던 소년이 무도를 통해서 진정한 용기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참선을 통해 인격을 수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소리를 디지털화하는 코리아루트(대표이사 김진순)는 최근 사찰의 소리를 기획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몽푸 몽키 젠'의 상영 모습.



다양한 콘텐츠로 내실에 최선 다할 터

유불동 7기 대표 시삽 신진학씨

"인터넷의 활성화로 PC통신 동호회에서의 신입회원 확보 및 접속상의 문제 등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대표시삽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이하 유불동) 제7기 대표시삽으로 선출된 신진학(42 삼상물산 건설부분 차장)씨는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불동에 접속해 알고자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내실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집안이 불교라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신진학 대표시삽은 학창시절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유불동에는 98년 처음 가입해 그동안 온라인 활동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수계법회와 성지순례 연등축제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경인지역장으로 활동했었다.

신진학 대표시삽은 유불동을 이끌어온 선배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불법을 믿고 배우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 구성된 7기 운영진과 함께 신입회원 확보방안 강구,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유불동 활성화에 전력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성지순례 등 오프라인 행사 적극 참여

게시판 엿보기

◎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마음을 내어 생각을 일으킬 때 사람들에게 유익한 바가 없거든 이를 경계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bbs 이병선 님, 유불동 교계소식게시판

◎ 사람들을 가장 움추리게 하는것이 겨울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계절 또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行子, 다음카페 인연 인연_게시판

◎ 내가 보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기대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실망이란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면이 발견될 때마다 그 사람을 다 알아가려는 욕심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쪽빛하늘, 프리챌 대학생불교모임 룸비니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능인선원

신도 관리 등 종무 전산화 구축

'홈피' 개설후 해외까지 법회 활성

1984년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조그마한 상가에서 처음 문을 연 능인선원. 지금은 서울 강남 포이동, 서초동, 국넝사, 등룡사 등 국내외 6개 법당을 운영하고 있고 포교, 신도교육, 기도처로 유명한 도심사찰로 성장했다.

능인선원은 현재 신도수만도 20만명이 넘고 한달 우편발송량만도 10만건에 달한다.

신도가 늘고 우편물 발송량이 늘면서 능인선원은 종무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995년 서초동 법당에서 지금의 포이동 법당으로 이전하면서 사찰내에 인터넷 전용선을 깔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도관리, DM발송, 불교대학 업무 등을 종무관리 프로그램인 '아란타'를 사용, 전산화했다. 처음에는 신도들의 인식부족으로 약간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신도임원을 대상으로한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지금은 신도들에게 빠른 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신도들에게 전자신도카드를 발급했고, 지금은 삼성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능인선원 전자신도증을 발급, 개인신상은 물론 불교대학 출·결석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있다.

능인선원은 지역 가정법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서울은 물론 해외까지 합하면 가정법회가 천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는 해외 이민을 가거나 지방에 거주해 사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더 늘어만 갔다.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능인선원은 96년 홈페이지(www.gotobuddha.org)를 개설했다. 능인선원 홈페이지는 사찰 소개, 능인불교대학, 사이버 법당, 채팅방, 쇼핑몰,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코너를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도들에게 특기 인기 있는 코너는 사이버 법당. 멀리 미국에 거주하는 신도들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을수 있기 때문이다. 능인선원은 앞으로 그동안 촬영해 놓은 능인불교대학 강의 동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능인선원 홈페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도들과 사찰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지 지광스님

시공간 초월한 디지털 불사 앞장

도심사찰 감안한 화상법문 계획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불교계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진 지광스님은 평소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찰 종무의 전산화는 물론 홈페이지를 개설, 사이버 법당을 만드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불사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불교대학 강의를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놓은 것은 정보사회에 앞서나가기 위한 지광스님의 소신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이 현대식 도심사찰이라는 점과 신도교육, 기도 중심 도량이라는 특성을 감안, 앞으로 위성을 이용해 국내외 6개 법당을 연결하는 화상 법문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불교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왕건과 궁예의 전설이 전해오는 포천 명성산은 가을 바람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억새가 한창이다.

늦가을 억새춤에 마음 '내려놓기'

하얀 억새 꽃대가 가을바람에 흔들린다.

하늘을 비질하는 듯한 그 무욕의 몸짓에 따라 흔들려 본다.

색깔을 내려 놓은 억새마냥 마음도 내려 놔 본다.

푹 - 쉴 수 있을 것 같다.

■ 포천 명성산·후삼국 통일 전설 자인사 답사

억새의 절정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삭이 떨어지지 않은 억새 꽃이 하얗게 일렁거릴 때다. 억새는 한반도 전역에 널려있는 풀이지만 특별한 군락을 이뤄 발길을 끄는 곳들이 있다.

경기 포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경계인 명성산(일명 울음산 923m)은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가을의 전설'과 같은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후삼국 시대, 왕건에게 패해 쫓기게 된 궁예가 이곳에 이르러 처지를 한탄하며 크게 울어 '명성(鳴聲)산'이라 이름 붙었다는 전설이 있다.

억새 능선은 고집스럽게 이마를 쳐든 삼각봉의 9부 능선에 어마어마한 넓이로 펼쳐져 있다.

명성산이 억새의 명소로 더욱 이름을 날리는 이유는 주변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 북한의 김일성이 그 경치에 매료돼 별장을 지었다는 산정호수가 등산로의 시작이다. 산정호수 주차장 길건너 왼쪽에 있는 등산로 가든 길 옆으로부터 20분 정도 올라가면 등룡 폭포를 만나게 된다. 폭포 옆에 세워진 두개의 표지판을 보자 갑등이 생긴다. 왼쪽은 억새능선까지 가파른길(1.0km), 오른쪽은 완만한 길(1.2km). 가보지 않은 가파른 길에 대한 아쉬움을 안은채 완만한 길을 택했다. 이곳에서 억새밭까지는 1시간 이면 충분하다. 특히 곳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계곡미는 산행의 지루함을 덜어 준다.

억새능선에 있는 팔각정에서 정상까지도 등산로가 잘 닦여있어 하산하는데까지 정상에서 3시간이면 넉넉하다. 전방지역인 이 곳에서는 사격훈련이 자주 실시돼 가끔씩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한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정호수관광지부 (0357)532-6135.

내려올 때는 팔각정에서 자인사쪽이 빠르고 좋다. 간간히 로프를 매달아 놓은 가파른 길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내려올 수 있다. 하산길에 만나는 자인사는 왕건이 궁예와의 결전을 앞두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절이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한 후 신성암이란 임자를 세웠으나 몽고침략 등으로 소실된 것을 1964년 혜공스님이 석고로 된 18척의 미륵불을 조성하고 자인사(慈仁寺)라 이름 붙였다. 궁예왕과 태조 왕건이 맺힌 악연을 풀고 미륵세계를 구현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왜소한 대웅전에 비해 턱없이 큰 석불(포대화상, 인덕불, 미래불)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석불 외에도 관세음보살상과 몇 개의 석탑이 오밀조밀하게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경내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은 맛좋기로 소문나 있다.

산정호수 부근에는 식당가와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놀이기구 등 위락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억새철이 아니더라도 산행을 즐기려고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등산객들이 붐빈다.



◇포대화상이 빈갑게 맞아주는 자인사.

포천=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oo@buddhapia.com

전국 억새명소

◎억새오름길(제주도 남제주군)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와 성읍민속마을을 잇는 1119번 지방도 구간은 제주도의 가을을 가슴으로 느낄수 있는 드라이브코스이다.

흔히 억새오름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멀리 한라산을 가운데에 두고 동서방향으로 봉곳봉곳 솟아오른 오름들과 가을바람에 살랑대는 억새가 조화를 이뤄 한폭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가는길 : 제주시-표선 간의 동부산업도로(97번 지방도)를 타고가다 성읍민속마을에서 성산읍 수산리로 가는 1119번 지방도 이용

◎오서산(충남 홍성)

장항선 광천역에서 봄과4km거리에 있어 수도권에서도 손쉽게 갈 수 있는 오서산(791m) 억새산행의 최대 매력은 산의 기품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넘실대는 억새의 움사위 너머로 아득히 펼쳐진 서해안 다도해의 정경이 걸음을 길게 붙든다. 오르는 길에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단풍길도 이어져 있다. 산 정상 부근의 2km에 달하는 주능선이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있다.

◇가는길 :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

◎화왕산(경남 창녕)

산 정상(757m)의 10리 억새길이 장관이다. 자하골 매표소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화왕산 산행은 진흥왕순수비가 있는 창녕여중을 거쳐 통도사의 부속암자인 도성암으로 이어진다.

6만여평의 화왕산 억새밭은 몽골의 대초원을 방불케 할 만큼 광활하다. 산의 최정상인 배바위 위에 오르면 드넓은 억새밭이 한 눈에 들어온다. 화왕산 억새밭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시간 남짓 걸린다.

◇가는길 : 구마고속도로 창녕IC→자하골→화왕산

◎사자평고원(경남 밀양)

사자평고원은 영남알프스의 한 봉우리인 재약산(1,108m) 정상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평원. 국내 최대의 억새 군락지다. 예로부터 억새밭의 아름다움을 재약산 8경중의 하나로 꼽아왔다. 가지산과 재약산 사자봉의 사이를 잇는 이 고원은 해발 700~800m 높이에 넓이는 125만여평에 달한다. 사자평으로 오르는 방법은 표충사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길과 쌍폭포를 지나 고사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첫번째 길은 20~3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지만 고개가 가파르고, 쌍폭포로 돌아가는 길은 완만하다. 고사리마을에서는 찻길을 따라가면 된다.

◇가는길 : 경부고속도로 언양IC로 나와 24번 국도 밀양 방면으로 간다. 얼음골 입구를 지나 산외면 금곡리 삼거리에서 좌회전, 1044번 지방도를타고 가면 표충사다.

◎민둥산(강원 정선)

민둥산(1117m)은 이름처럼 헐벗은 산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발 800m의 발구덕 마을에서 정상부위까지 억새밭이 이어지고, 정상 너머에도 역시 억새평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금빛 물결이 출렁댄다

◇가는길 : 중앙고속도로 서제천IC→5번국도→제천→영월방향 38호 국도→영월→31,38,59번 국도 병합구간→석항리→59번 국도로 계속 직진→별어곡→4.8km→증산초등교

◎무등산(전남 광주)

가을철의 무등산(1187m)은 암회색 기암괴석과 눈처럼 흰 억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보여준다. 특히 장불재 일대의 출렁이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가는길 : 호남고속도로→광주 IC→증심사 입구

여행메모

찾아가는 길

〈자가용〉 1)서울 수유리-43번 국도(의정부 경유)-신철원 방향-산정호수 2 서울 워커힐-47번 국도(구리 퇴계원 경유)-일동-산정호수(1인당 입장료 1천원, 주차료 1천5백원) 〈대중교통〉서울 상봉터미널(02-435-2122,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나 1호선 의정부역에서 혹은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천행 버스를 탄다. 운천에서 1일 7회 운행하는 산정호수행 시내버스 이용.

온천

온천욕으로 산행의 고단함을 씻어보자. 산정호수 입구의 한화콘도 온천(031-534-5500), 신북면의 신북온천(031-535-6700), 일동면의 제일온천(031-536-6000) 일동싸이판(031-536-2000)이나 일동용암천(031-536-4600) 등이 있다. 시간은 대개 평일 오전 5시30분부터 밤 8시30분까지이며, 저녁 7시에 매표마감 한다. 가격은 모두 5천원이다.

이색 볼거리



자인사 앞 산정호수 변에는 2년 전 문을 연 '허브와 야생마을'이 있다. 비닐 하우스에 40여종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어 안에 들어가면 향긋한 허브 내음에 산행의 피로가 싹 가신다. 캐모마일, 라벤더, 로즈마리, 자스민 등 각종 허브차를 차실에서 마실 수 있다. 차 값 4천원. 이외에도 오일, 비누, 향, 방향제 등 허브가공 제품을 살 수 있다. (031)532-5153

먹거리

일동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다가 기산 삼거리에 있는 관돌주막(031-533-6002)은 국산 콩만을 고집하는 두부 요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보리밥에 금방 끓인 순두부와 된장찌개 국물을 얹고 야채와 고추장 한 숟가락에 들기름을 넣고 쓱쓱 비빈 후 먹으면 으깨진 순두부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간다. 순두부 비빔밥 5천원, 두부김치 5천원. 인근에 있는 원조 파주골 순두부(031-532-6590)도 두부요리 전문식당. 순두부 1인분 3천원.



세계로 가는 길

끊없는 혁신과 변화로 앞서가는 포스코 - 최고의 경쟁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이 가야 할 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명경영, 디지털경영, 스피드경영 등 변화와 혁신으로 달려온 민영 포스코의 두 돌.

당당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언제나 앞서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
세계철강 1강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